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 종가 자료의 심층 연구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

종가 자료의 심층 연구

식 순

개회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축사 강기정(광주광역시장) 박병규(광산구청장)
	기관소개 및 고봉 기대승 종가 기탁 현황 조광현(한국학호남진흥원)
	기념촬영
제1부	주제발표 사회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14:10~14:35	주제발표 1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의 내용과 역사문화적 가치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4:35~15:00 주제발표 2 『광국원종공신록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진나영(송의여자대학교)
15:00~15:10	휴식
15:10~15:35	주제발표 3 고봉 기대승의 『도산기』 발문 및 도산잡영 화답시 고찰 김기림(조선대학교)
	15:35~16:00 주제발표 4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16:00~16:10	휴식
제2부	종합토론 좌장 김희태(광주광역시 문화재 위원)
16:10~17:00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현숙(원광대학교)
	박명희(전남대학교)
폐회	

※ 학술대회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고봉 기대승

종가 자료의 심층 연구

목 차

축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발표 1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의 내용과 역사문화적 가치 1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표 2

『광국원종공신록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13

진나영(숭의여자대학교)

발표 3

고봉 기대승의 『도산기』 발문 및 도산잡영 화답시 고찰 31

김기림(조선대학교)

발표 4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 45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토론문 64

축 사



호남의 대표 명현(名賢) 고봉 기대승 선생과 명가(名家) 행주 기씨 종가의 소장 자료를 국가지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는 예향의 고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입니다. 이는 고봉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학자가 학술적, 문화적 토양을 마련하고 힘을 축적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봉 선생을 배향하는 월봉서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큰 자부심이며 앞으로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고봉문집 목판〉과 〈월봉서원 빙월당〉이 우리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을 건립하는 등 우리시는 고봉 선생의 높은 정신과 월봉서원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키우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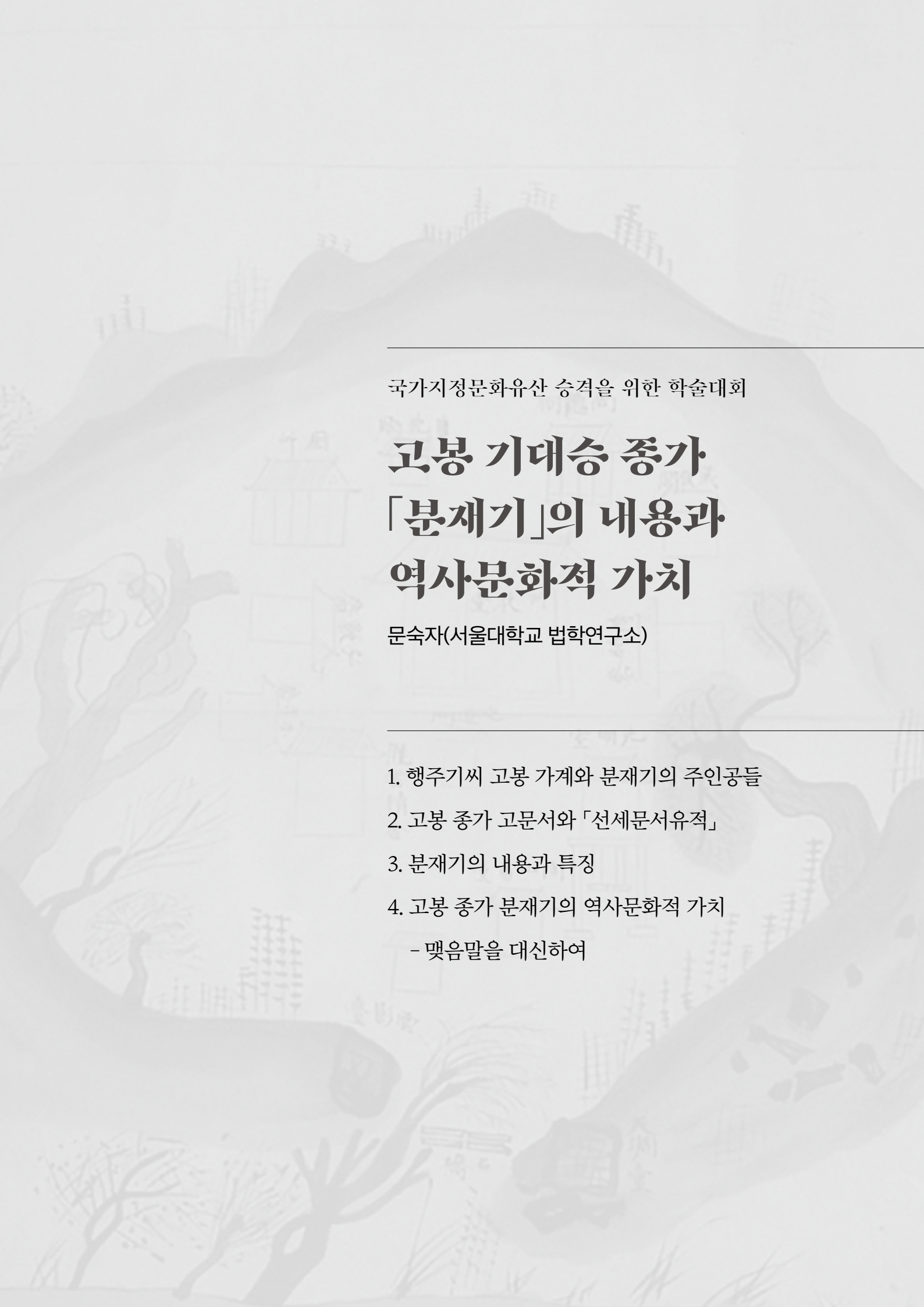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우리시를 비롯해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봉 기대승 선생 서세 450주년〉 기념행사가 국회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며 호남 유학의 높은 정신과 문화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더 깊게 연구해 광주의 역사가 미래를 여는 동력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지정유산인 고봉 선생 관련 자료들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고봉 선생의 학덕과 애향정신을 새기고 우리 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또 한 번의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하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의 내용과 역사문화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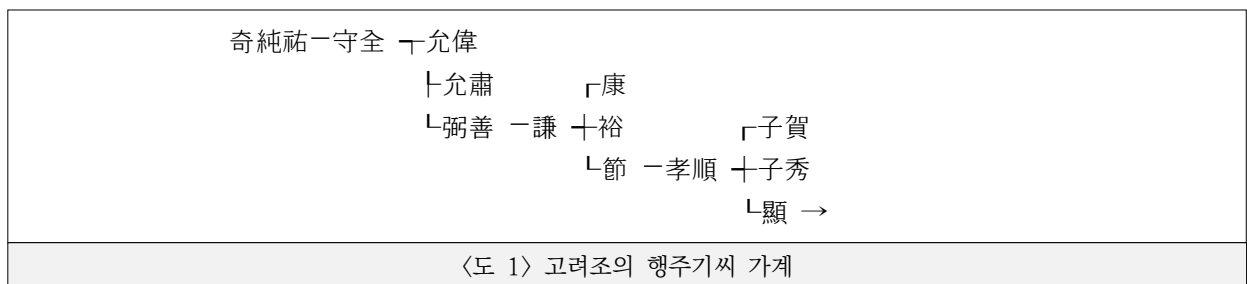
문숙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 행주기씨 고봉 가계와 분재기의 주인공들
2. 고봉 종가 고문서와 「선세문서유적」
3. 분재기의 내용과 특징
4. 고봉 종가 분재기의 역사문화적 가치
- 맏음말을 대신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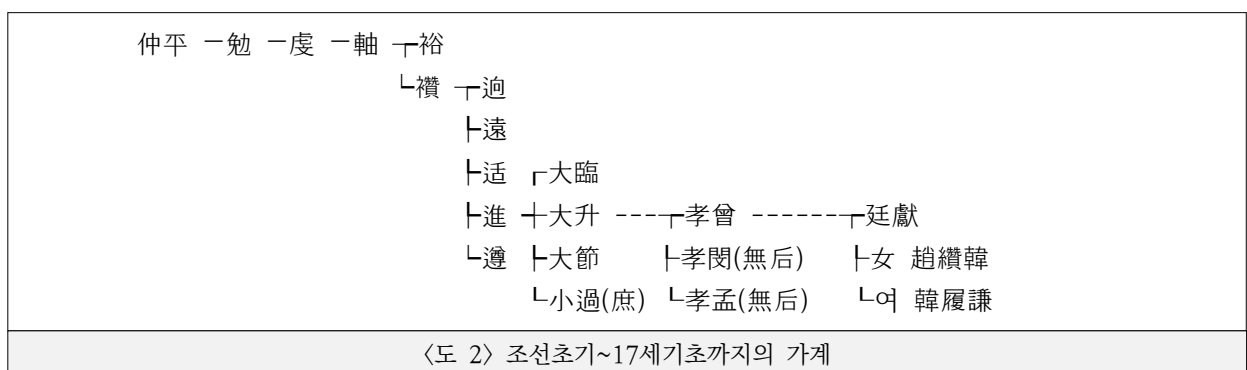


1. 행주기씨 고봉 가계와 분재기의 주인공들

행주기씨는 중국에서 온 기자의 후손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으나 족보에서 1세로 기록된 인물은 고려 인종 대에 문하평장사를 지낸 奇純祐이다.¹⁾ 1세 기순우로부터 7세 顯까지는 고려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족보상에는 8세 仲平부터 조선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고려조에 해당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계보는 <도 1>과 같다.



<도 1>에 나오는 인물들은 족보상에 字와 관직 등 간단한 이력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졸년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묘소 등도 실전된 상태이다. 족보상에는 11세에 해당하는 奇軸의 졸년이 天順 甲申年(1464)으로 되어 있고, 그 아들인 欝(1424~1492) 대에 와서 비로소 생년과 졸년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묘소의 경우 중평 대까지의 묘를 失傳하여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甲午譜를 인용하여 抱川 서면 天寶山 檜巖 아래 新基村 대로변에 있는 7, 8기의 분묘를 가리켜 기정승택 산소라 칭하고 마을 어귀의 전답을 位田이라고 전해오던 사실을 수록하였다. 하지만 碑碣은 사라졌고, 宗人들이 무덤을 열고 誌石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조선전기 행주기씨는 주로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는 재경관료 집안이었다. 이들이 호남지방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된 것은 奇欝의 아들 代에 와서였다. 기찬의 5子 遵(1492~1521)이 기묘년(1519)에 被禍한 여파로 낙남하게 된 것이다. 奇遵은 기묘명현 중 한 사람으로 기묘사화 당시 홍문관 응교로 재 유배되고, 여러 차례 이배된 끝에 사화의 여파로 발생한 辛巳誣獄으로 1521년에 사망하였다. 그 과정을 지켜본 형제

1) 이하 행주기씨 가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행주기씨족보』 및 『행주기씨대동보』, 1983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들은 이제 중앙을 외면하고 전라도로 낙남하게 되는데, 기찬의 차남 遠(1481~1522)이 장성으로 낙남하여 그 후손이 장성에 세거하는 기반을 마련했고 4男 進(1487~1555)은 광주로 낙남하였다.

광주로 낙남한 기진은 字가 子順이고 호는 勿齋이다. 1522년에 진사시에 입격한 후 1527년 경기전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차남 大升이 광국공신에 녹훈되면서 德城君으로 추증되었다. 晉山君 姜希孟의 증손녀이며, 姜永壽의 딸인 진주강씨 부인을 맞아들였다. 奇大升(1527~1572)은 기진의 차남으로 高峰 또는 存齋는 그의 號이며 시호는 文憲이다. 1549년에 사마 兩試에 입격하고 1558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관직이 부제학에 이르렀으나 宗系辨誣奏文을 찬한 공로로 광국공신에 녹훈되었고 德原君에 봉해졌다. 그는 퇴계 李滉의 문인이었고, 하서 金麟厚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명망있는 학자들과도 폭넓은 교유 관계를 형성하였다. 퇴계 선생과 주고받은 書簡, 태당 이식이 찬한 謚狀, 鄭弘溟이 찬한 행장, 광주 월봉서원과 나주 경현서원 등에 제향된 사실 등은 그의 명망과 학문적 교유범위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후술할 고봉 종가의 분재기 3점은 고봉 기대승과 그의 형제, 기대승의 아들 孝曾(1550~1616), 효증의 사위 趙纘韓과 관련된 문서들이다. 기대승의 장남 효증은 1570년에 진사시에 입격한 후 延恩殿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임진년에 擧義한 공로 때문에 그의 忠義를 褒獎해야 한다는 公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부친인 기대승을 이어 아들 기효증 역시 호남 지역 인사들과 교유가 깊었다. 일례로,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광주 진사 기효증’과 직접적 왕래 뿐 아니라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기효증의 아들 기정헌(奇廷獻) 역시 정묘년에 擧義한 사실이 있다. 양대에 걸쳐 擧義한 점에서 관직을 통한 출세와는 거리를 두면서 勤王이라는 大義에 충실한 면면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기효증의 사위 조찬한은 號가 玄洲이며 본관은 한양이고 승지를 지냈다. 종가에 傳存하고 있는 3점의 분재기에는 광주에 낙남한 기진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기대승을 비롯한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傳繼되었는지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고봉 종가 고문서와 「선세문서유적」

행주기씨 가문의 고문서와 전적류 자료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계에 알려져 왔다. 알려진 자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장성 행주기씨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의 고봉 종가 자료이다. 두 가계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찬의 아들 대에서 분파하였다. 기묘사화 때 기찬의 4자 기준이 화를 입게 된 것을 기화로 기찬의 차남 기원은 장성으로 입향하였고, 4남 기진은 광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이후 그 자손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오늘날까지 世居를 이어오고 있다.

장성에 정착한 행주기씨 가계의 고문서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고문서』 시리즈 중 한 책으로 영인 간행된 바 있다.²⁾ 해당 자료집에 수록된 고문서를 가리켜 ‘장성 종가에 소장된 고문서 920건 중 242건’이라고 한 것을 보면³⁾ 장성 종가에 상당량의 고문서가 전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고문서는 고신교지·홍패·백패를 비롯하여 분재기·매매문기, 호구단자, 소지·입안문서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작성연대가 1621년(광해군 13)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성 고산서원에 소장된 盧沙 奇正鎭 관련 문서 등도 공개된 바 있다.

광주의 행주기씨 고문서 역시 낱장 고문서는 물론이고 몇몇 善本 문서는 장첩 또는 성책되어 전존하고 있다. 고봉 종가 소장 고문서의 경우 2015년에 간행한 『古文書輯選』을 통해 대체적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⁴⁾ 해제에는 이 자료집을 가리켜 고봉 선생 종가 소장 문적 중 초서관찰, 언문서관, 문집 등을 제외한 遺文을 모아 간행한 것이라 기술하였다.⁵⁾ 이 자료집에는 소지·전령 14건, 弔狀·만사 20건, 제문 5건,

2) 전남대학교 박물관, 『고문서』 제5책, 1999.

3) 박재상, 「해제」, 앞의 책, 3쪽.

4) 고봉선생선양위원회/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古文書輯選』, 도서출판 사람들(광주), 2015.

5) 최두남, 「해제」, 『古文書輯選』, 도서출판 사람들(광주), 2015, 9쪽.

호구단자 7건, 명문·차용증 32건, 수기 5건, 기타(통문, 편지, 혼서지 등) 9건 등 총 92건의 고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사진 1〉 「선세문서유적」 표지

한편 「先世文書遺蹟」은 위 輯選에 수록하지 않고 『(고봉선생) 종가고문헌집 1』에 포함되어 공간되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낱장 고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다만 『古文書輯選』에 수록한 낱장 고문서와 다른 점은 數種의 고문서를 묶어 裝帖했다는 점이다. 『(고봉선생) 종가고문헌집』은 모두 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선세문서유적」은 1책에 수록되어 있으며⁶⁾, 원문을 활자화하고 국역을 붙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⁷⁾

「선세문서유적」은 행주기씨 고봉 기대승 종가의 고문서 중 分財記 3점과 書簡 5점, 諺簡 2점을 뽑아 이를 裝帖한 것이다. 서지적 형태는 가로 23.5cm, 세로 36.2cm 크기로 여백면을 포함하여 20면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별지를 오려 붙여 「先世文書遺蹟」이라는 제명을 써넣었다. 제명 우측에는 푸른색의 표지 바탕에 그대로 「附 外孫書札」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써넣었다.(〈사진 1〉 참조) 「先世文書遺蹟」이라는 제명은 장첩할 때 써 붙인 것으로 보이나, 우측 바탕에 써넣은 附記가 이와 동시에 쓰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후손에 의해 장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서·발문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확한 장첩 시기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선세문서유적」에는 각각의 문서를 장첩한 내면에 첩의 크기에 맞게 붙였고, 서간의 경우 여백에 皮封을 함께 이어 붙인 경우도 있다. 대체로 장첩 안에 문서를 안정적으로 안착하였으나 후술할 別給文記에 한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즉 별급문기는 세로가 긴 장방형의 문서인데, 문서의 상단과 하단이 분

6) 고봉선생선양위원회/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고봉선생) 종가고문헌집 1』(국역 박경래, 助譯 최두남), 2013. 이 중 「선세문서유적」은 112~141쪽에 수록되어 있다.

7) 단, 正書하고 국역할 때 분재기나 매매명문류에 나오는 특유의 용어 등에 미세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추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앞의 註에 나온 책자의 114쪽만 예로 들어보면, 탈초의 오류로 「執等」을 「執籌」로, 「爲弥」를 「爲旆」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誤譯 사례를 예로들면, 「分執」의 경우 「(도망노비를) 나누어 잡아오다」로 번역했으나 「(노비를) 나누어 가진다」가 자연스럽다. 「分執」은 도망노비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므로 「도망노비를」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따라서 「잡아오다」라는 말도 맞지 않다. 「新奴婢」는 「새로 들어온 노비」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신노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다. 신노비가 노비의 한 유형이며, 흔히 혼인할 때 받는 노비를 가리킨다. 전답을 지칭하면서 쓴 「居平里 伏在」는 「거평리에 숨겨져 있던」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거평리에 있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리된 채 별도의 면에 부착되어 있다. 원래 문서가 절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인지, 장첩 과정에서 문서 크기 때문에 절단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행에 쓰인 ‘萬曆三十五年 二月 二十日 女壻趙繼韓處別給明文’이라는 문서 제목 중 ‘萬曆三十五年 二月 二十日 女壻趙’까지는 앞면에, ‘繼韓處別給明文’은 뒷면에 분리되어 있다. 사진과 같이 두 면을 이어 붙여서 각 행에 붙인 번호를 따라가면서 읽어야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⁸⁾ 특히 문서 본문의 마지막 글자인 13행의 ‘事’자가 왜 <사진 2>의 하단과 같이 맨 앞 줄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사진 2〉 3번 분재기 원본과 독법

〈표 1〉은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문서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분재기 3점, 서간 4점, 언간 2점이 수록되어 있다. 분재기 중 첫 번째 문기는 1559년(명종 14)에 기대승을 포함한 그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의 재산을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和會文記이다. 그로부터 27년 후인 1586년(선조 19)에 두 번째 화회문기가 작성되었다. 첫 번째 화회문기 작성시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정으로 상속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상속한 문기이다. 그러므로 문서의 주인공은 첫 번째 화회문기와 동일하다. 또 1점의 분재기가 「선세문서유적」의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이 세 번째 분재기는 1607년(선조 40)에 奇孝曾이 사위 조찬한의 登第를 축하하고자 진답과 노비를 증여한 별급문기이다.

4점의 서간 중 2점은 승지 洪處大가 쓴 것이다. 홍처대는 본관이 남양으로, 趙繼韓의 사위이고 조찬한

8)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분재기를 활자화하여 소개한 글에서 이 별급문기의 상단과 하단이 분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순서대로 활자화하여 내용과 맥락이 닿지 않게 된 사례도 있다. 이종일, 「高峰 奇大升 宗孫家所藏 文籍」, 『호남문화연구』 22, 1993, 166~167쪽.

은 기대승의 孫女壻이다. 또 다른 서간의 주인공인 趙麟祥은 한양조씨로, 조찬한의 손자이다. 「선세문서유적」에 「附 外孫書札」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진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이 외에 조현의 서간과 언간 2점도 수록되어 있다.

순번	문서명
1	嘉靖 38년 和會文記
2	萬曆 14년 和會文記
3	乙巳 2월 洪處大 書簡
4	甲辰 5월 趙麟祥 書簡
5	乙巳 2월 趙憲 書簡
6	壬子 至月 洪處大 書簡
7	언간 1
8	언간 2
9	萬曆 35년 別給文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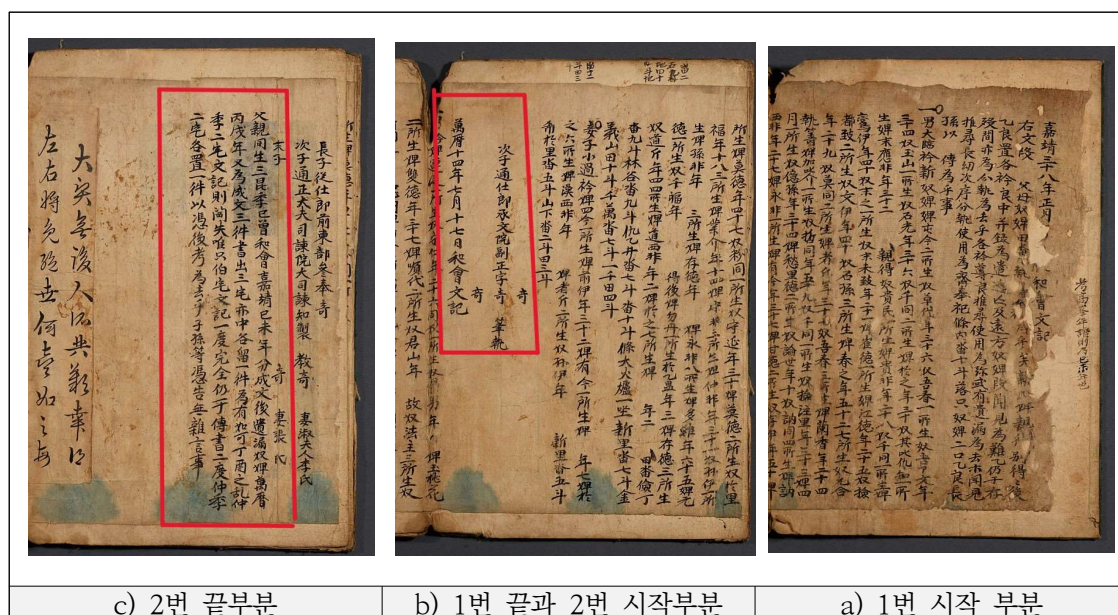
〈표 1〉 「선세문서유적」 수록 문서목록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문서들은 분재기의 경우 작성연대가 1559년부터 1607년까지로 傳存하는 分財文記 중 비교적 작성시기가 이른 편에 속한다. 특히 奇大升이 직접 상속인으로 참여한 분재기가 2점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간 역시 조인상·홍처대·조현 등 행주기씨 집안의 혼인 및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인물들의 것으로, 이들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선세문서유적」은 고봉 기대승 종가에 소장된 「陶山記」, 「兩先生問答帖」, 「光國原從功臣錄券」 등과 함께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9점의 고문서가 고봉 종가 고문서 중 善本임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3. 분재기의 내용과 특징

1) 개요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3점의 분재기를 하나하나 상세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진 3〉을 보기로 하자.



〈사진 3〉 분재기의 現狀 비교

〈사진 3〉은 분재기 3점 중 〈표 1〉의 순번에 따라 1번 분재기와 2번 분재기의 現狀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a)는 「선세문서유적」의 내용 중 첫째 면에 해당하며, 1번 분재기의 첫째 면이기도 하다. b)는 1번 분재기가 끝나는 지점이며, 바로 행을 바꾸어 2번 분재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화회문기이므로 상속인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 1번 분재기가 끝났고, 바로 행을 바꾸어 ‘만력 14년’으로 시작하는 2번 분재기가 시작되고 있다. 즉 이 분재기 2점은 원본 문서가 아니라 轉寫本이다. 1번 분재기를 모두 옮겨적은 뒤 2번 분재기를 동일한 지면에 바로 이어서 쓴 것이다. b)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속인의 이름만 열거하고 이들의 서명과 필집의 서명이 없는 이유도 전사본이라는 점 때문임을 알 수 있다.⁹⁾

이 두 문기가 전사본으로 傳存한 이유는 c)의 사각형 표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분재기가 끝나는 지점에 追記한 내용이다.

“부친과 그 형제들이 이미 일찍이 和會를 하고 嘉靖 己未年(1559)에 문서를 작성한 후 빠뜨린 노비를 萬曆 丙戌年(1586)에 다시 문서로 작성하고, 3건을 써서 3택에 각각 1건씩 보관하였다. 그런데 丁酉年(1597, 선조 30) 난리로 둘째, 셋째 집은 문기를 闕失하고 큰택 문기 1장만 온전했으므로 2장을 옮겨적어 둘째, 셋째 집에 각 1건을 비치하여 훗날 빙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손들은 이를 증거로 삼아 잡다한 말을 하지 말 것”

인용한 추기에 따르면 기대승 형제가 재산을 상속하고 화회문기를 작성한 것은 1559년으로, 아버지인 奇進이 사망한 후 4년째 되는 해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27년 후인 1586년에 遺漏分 화회문기를 작성하였다.¹⁰⁾ 관례에 따라 화회문기는 상속인 수만큼 복수로 작성되었으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장남 奇大臨 집안에만 문서가 온전히 남아있고, 차남 大升과 3남 大節 집안은 문서를 잃어버렸다. 따라서 장남 집안에 보존하고 있던 원래의 화회문기를 대본으로 문기를 전사하여 다시 차남, 3남 집에 비치했다는 내용이다. 원상속인을 ‘父親과 그 형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잃어버린 분재기를 전사한 것은 기대승의 아들 代였음을 알 수 있다.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사진 3〉의 화회문기 2점이 바로 전사본 화회문기로서 당시 차남인 기대승 가계에 傳存한 문기이다. 따라서 2점의 문기가 모두 동일한 필적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지면에 마치 1점의 문기처럼 連書되어 있는 것이다. c)에서 확인되듯이 화회문기 뒤에 이어지는 서간은 원본 문서이므로 분재기와 필적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5점의 서간 모두 각각의 크기와 필적, 紙質이 다르다.

한편 「선세문서유적」에 수록된 마지막 분재기인 별급문기는 위의 화회문기 2점과 달리 원본 문서로서 문기 마지막 부분에 쓰인 財主, 3명의 증인, 필집의 서명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5인의 서명은 앞의 〈사진 2〉의 14행~18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내용과 특징

각 분재기의 원문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 38년(1559) 화회문기

1559년에 奇進의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의 재산을 분할상속한 화회문기이다. 화회문기는 부모 사후에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한 문서이므로, 재산상속의 주체이면서 분재기 작성의 주체는 모두 자식들이다. 이 문기의 상속인은 장남 大臨, 차남 大升, 3남 大節, 그리고 妻子 小過이다. 재산분할 항목은 신노비, 親

9) 전사본 분재기의 경우 참석자의 서명을 摹寫하여 집어넣은 사례가 종종 있으나, 위 b)의 경우는 서명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10) 재산상속 후 유류분 화회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유류분의 분할은 상속 직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3~4년 후에 하기도 하고, 이 사례처럼 수십년 후에 시행하기도 한다. 유류분 분할 상속이 1회가 아니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得, 執籌, 전답으로 나누어서 내역을 열거하고 있다. 앞의 세 항목은 노비를 입수 유형별로 나눈 것이고, 전답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하였다. 신노비는 혼인시에 미리 증여받는 노비를 가리키며, 집주는 정례적 재산분할이나 재산상속으로 자신의 정해진 몫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친득은 보통 집주 안에 포함하여 보통 노비를 신노비와 집주, 또는 신노비와 친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재기에는 친득과 집주 두 가지를 구분하여 쓴 것이 이채롭다. 여기서는 신노비와 정식 상속분을 제외한 증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이 친히 획득한 별급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남 몫에는 봉사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봉사조에는 노비 없이 전답만 배정되어 있다.

문기의 맨 뒤에 상속인을 나열하였는데 3명만 쓰여 있고, 차남 한 사람만 품계와 관직명, 측라는 姓을 써 넣었다. 차남은 기대승을 가리키며 장남과 3남은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성씨만 써 넣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사본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한 기술을 축약한 것으로 추정한다. 차남 기대승에 대해서만 품계와 관직 등 이력을 써 넣은 것은 이것이 기대승의 아들에게 써 준 전사본이기 때문이다. 3남의 집에 써 준 전사본에는 3남 大節의 직역이나 관직 등을 상세히 써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妾子 小過는 위 3형제에 비해서는 상속한 노비·전답은 적지만 상속인으로 명시되었는데 서명 부분에는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본에서도 제외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원문〉

- 01 嘉靖三十八年正月 日 和會文記
- 02 右文段 父母奴婢田畝 執籌□□爲乎矣 新奴婢親得別得後
- 03 乙良置 各衿良中 并錄爲遣 逃亡及速方奴婢段 聞見爲難乙仍于 存
- 04 歿間 亦爲分執爲去乎 各衿導良 推尋使用爲旆 或有遺漏爲去 卞 聞見
- 05 推尋 長幼次序分執使用爲齊 奉祀條內畝十斗落只 奴婢二口乙良 長
- 06 孫以 傳爲乎事
- 07 一男大臨衿 新奴婢 婢屯今二所生奴草代年三十六 奴吾春一所生奴吉 卞 文年
- 08 三十四 奴玉山一所生奴石光年三十六 奴千同二所生婢於之年三十 奴其叱仇知一所
- 09 生婢末應非年三十二 親得 奴貴民一所生婢貴非年二十八 奴千同一所生婢
- 10 鸞伊年四十 奴末之一所生奴末未致年二十一 婢崔德一所生婢江德年二十五 奴檢
- 11 都致二所生奴文伊年四十 奴石孫三所生婢春之年五十二 七所生奴允合
- 12 年二十九 奴莫同二所生婢者斤年三十七 奴吾春三所生婢蘭香年二十四
- 13 執壽 婢加叱介一所生奴哲同年五十九 奴千同一所生奴檢注里年三十三 婢四
- 14 月一所生奴億孫年三十四 婢愁里德二所生奴論世年十 奴訥同四所生婢訥
- 15 西非年二十七 婢永非一所生婢有今年三十七 婢甘德二所生奴存伊年五十 婢
- 16 煎伊一所生婢崔今年十二 婢仇叱非一所生婢於叱伊年十二 婢於之三所生婢
- 17 漢今年十五 婢銀非二所生□□□年 奴溫孫一所生婢溫今年五十 婢銀非
- 18 一所生婢山非年五十六 奴永智二所生婢春非年四十 婢守非一所生奴盤松年三十
- 19 七 奴吾春二所生奴金伊年二十七 婢山非一所生婢春每年二十五 婢順今一所生
- 20 奴銀金年十九 奴玉山二所生婢內 卞 伊年三十二 婢山非一所生婢□□年 奴孫伊
- 21 二所生奴孫石年二十三 婢多難三所生婢莫今年二十六
- 22 奉祀 奴可外一所生婢愁里德年四十二 奴江丁伊二所生奴江文年四十八 奴孫山二
- 23 所生奴莫山年三十二 婢於之一所生奴漢□年十九 四所生奴漢介年□□ 奴難
- 24 元一所生婢山德年五十七 同婢一所生奴□□年□□ 得後 婢者斤三所生婢愛玉
- 25 年四 奴草代一所生奴玆金年七 婢愁里德三所生婢內 卞 德年四 婢貴非一所
- 26 生婢貴德年四 奴末應非一所生婢粉伊年七 二所生奴粉世年三 田畝
- 27 道麻橋畝八斗 桶井畝二十斗 草同畝一斗五升 反畝四斗 金井畝十三斗 又六斗

- 28 栗伊代田四斗 松内田四斗 松亭下田四斗 金義山田三斗 竹下田五斗
- 29 奉祀 金井番十斗 又八斗 綿田七斗 家代田五十一ト
- 30 二男 大升衿 新奴婢 奴訥同一所生奴世孫年三十八 奴存同二所生奴番左年三十二
- 31 婢丹正一所生奴金石年 二所生奴金非年 奴訥同二所生婢元西非年三十四
- 32 親得 奴貴民二所生奴貴連年二十一 婢銀今一所生婢銀非年四十八 婢延介一
- 33 所生奴開文年二十三 婢春月一所生春山年二十一 改名良世 婢春月一所生
- 34 奴順連年三十六 奴石孫六所生奴允還年四十 奴五名四所生婢風月年三十六
- 35 奴訥同五所生奴象伊年 執壽 奴末訖一所生奴云起年 奴於叱金一
- 36 所生婢文非年二十七 婢石德一所生婢六月年五十二 婢夏今二所生婢加屎年十九
- 37 婢存德一所生婢萬今年 婢禾今二所生婢夏今年五十四 婢金非一所生婢金
- 38 代年十 婢風月一所生婢愛卿年八 婢於之二所生婢漢之年十七 婢銀非一所生
- 39 □□年 奴石孫一所生奴貴民年 奴存同五所生奴存西年 婢有今二所生
- 40 婢□□年 婢末德五所生婢莫只年 婢永智一所生婢順今年四十七 婢
- 41 莫德一所生奴有菊年二十六 奴粉同二所生奴守江年 三所生奴守萬年
- 42 四所生奴守明年 奴順孫二所生婢順代年三十七 奴巨大一所生奴文伊林年
- 43 婢多難四所生奴莫金年 婢小德二所生婢□□年 別得 奴莫同
- 44 四所生婢於乙亥年二十七 奴存同三所生婢存代年二十六 奴於從三所生奴毛乙論
- 45 年 得後 奴番左一所生婢春安年五 二所生奴春同年二 婢漢之一所生
- 46 婢□□年二 田番 加里洞番十三斗 長橋田二斗 山下番六斗 孝知田五
- 47 斗 蛇淵番九斗 善文田一斗 松亭番四斗 芋田一斗五升 長橋番四斗 仇乙井番七
- 48 斗 地同田二斗 洪山番十斗 別得 橫井番十二斗 林守丹田 十五斗
- 49 三男 大節衿 新奴婢 奴訥訖一所生奴末訥年三十 奴叔工一所生奴儉同年四十一 奴貴
- 50 千一所生奴武千年十九 奴千同三所生婢古非年 奴存同四所生婢存西非年
- 51 二十二 親得 奴麻同三所生奴打作年二十 奴無里石一所生婢貴今年三十
- 52 六 婢孔雀三所生婢五十伊年十三 婢愁里德一所生奴內^ㄹ 文年十四 婢今介二所
- 53 婢者斤年二十 奴仲孫一所生末非年二十一 婢春之四所生奴改發年十二 奴莫同
- 54 三所生婢勿丹年三十四 奴訥同三所生婢元之年二十九 執籌 奴訥同一所
- 55 生奴訥訖年大十 奴存同一所生婢存德年三十七 婢眞伊三所生婢桃花年
- 56 五十五 同婢一所生奴采蓮年二十一 婢夏今三所生婢 婢永今二所生奴
- 57 相伊年二十三 婢泉之五所生婢仇叱非年三十五 婢存德二所生婢道今年
- 58 婢煎伊二所生□□年 婢銀非三所生 年 奴於從二所生婢於
- 59 之年三十八 婢檢之三所生婢尺^ㄹ 德年五十六 奴李同一所生婢義非年大十一 三
- 60 所生婢莫德年四十七 奴彩同一所生奴守延年三十 婢莫德二所生奴於里
- 61 福年十八 三所生婢業介年十四 婢守非三所生奴仲非年三十一 奴孫伊一所
- 62 生婢孫非年 三所生婢存德年 婢永非八所生婢多難年大十五 婢元
- 63 德一所生奴千福年 得後 婢勿丹一所生於乙丑年三 婢存德三所生
- 64 奴道斤年四 四所生婢道西非年二 婢於之七所生婢□□年二 田番 儉丁
- 65 婢九斗 林谷婢九斗 仇乙井婢七斗 番十斗條大火爐一座 新里番七斗 金
- 66 義山田十斗 千萬番七斗 一千田四斗
- 67 妾子 小過衿 婢四今一所生婢前伊年三十二 婢有今一所生婢□□年七 婢於
- 68 之六所生婢漢西非年 婢者斤二所生奴孫伊年 新里番五斗
- 69 希於里番五斗 山下番二斗 田三斗
- 70 奇

② 만력 14년(1586) 화회문기

앞의 화회문기에 대한 유루분 화회문기이다. 즉 1559년의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적·보충적 재산분할의 결과로 작성된 문기이다. 초행에 제목을 쓰고 서문은 생략한 채 바로 상속분을 나열하였다. 유루분에 대한 분재기의 경우 이렇게 서문을 생략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16세기 분재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상속인은 3명으로 장남 奇大臨, 차남 奇大升, 3남 奇大節이다. 1559년 상속시 상속인에 포함되었던 妾子 小過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루분 상속이 이루어진 1586년은 상속인 3인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장남 기대림은 1565년 11월에, 차남 기대승은 1572년에, 3남 기대절은 1567년에 각각 사망하였다.¹¹⁾ 따라서 문기 말미에 서명 부분을 보면 차남을 대신하여 妻 함풍이씨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3남을 대신하여 처 張氏를 써넣었다. 하지만 장남의 경우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품계와 관직을 써넣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3인의 서명이나 印章이 있었는지는 전사본이므로 확인할 수 없다.

상속 재산은 전답없이 모두 노비이다. 또 노비의 거주지를 밝힌 사례가 많은데 모두 忠州이다. 前代에 광주에 낙향하여 정착한 것을 감안하면 충주 소재 노비는 妻家 또는 外家와의 인연으로 소유하게 된 노비일 가능성이 있다. 遠方에 거주하는 노비이므로 정확히 파악·수습하지 못하고 당초 화회문기 작성에서 빠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앞에 소개한 追記가 기재되어 있다.

〈원문〉

- 01 萬曆十四年七月十七日 和會文記
 02 一男衿 婢連從一所生奴守仁年二十六 同奴一所生奴景男年 婢玉桃花
 03 二所生婢雙德年三十七 婢順代二所生奴君山年 故 奴法主三所生奴
 04 希同年忠州 婢希今一所生婢萬花年四十六忠州 同婢二所生婢許
 05 今年十六忠州 婢萬非一所生婢加八里年三十一忠州 同婢二所生奴於叱同
 06 年二十六忠州 婢萬花五所生奴允成年六忠州 承重 奴希孫三所
 07 生婢九月年二十三忠州 婢萬花三所生奴許仁年十四忠州
 08 二男衿 婢馬只一所生奴內 石之年 同婢二所生奴內 世年五十三 婢孔雀一所
 09 生婢連從年四十八 同婢三所生婢木英年十三 奴論石一所生婢內 之年十八
 10 婢雙德一所生墨介年二十七 奴孫希一所生奴仁希年二十七忠州 婢萬非
 11 三所生奴末吃福年十六忠州 婢九月一所生奴丁金伊年四忠州 婢萬花四所生
 12 奴尹起年九忠州
 13 三男衿 婢連從二所生奴木男年 婢雙德二所生奴墨雪年三十四 三所生奴
 14 勃伊年 奴法主六所生婢萬非年五十五忠州 奴希孫二所生奴仁福
 15 年二十五忠州 婢萬花一所奴許順年十九忠州 婢加八里一所生婢銀今
 16 年四忠州 婢順代一所生婢於今伊故 同婢一生婢仁每故
 17 長子 從仕郎 前東部參奉 奇
 18 次子 通政大夫 司諫院大司諫知製教 奇 妻 淑夫人李氏
 19 末子 奇 妻 張氏
 20 父親同生昆季已曾和會 嘉靖己未年分成文後 遺漏奴婢 萬曆
 21 丙戌年 又爲成文 三件書出 三宅亦中 各留一件爲有无可 丁酉之亂 仲

11) 「고봉선생연보」, 『고봉전서』

- 22 季二宅文記則闕失 唯只伯宅文記一度完全仍于 傳書二度 仲季
23 二宅 各置一件 以憑後考爲去乎 子孫等憑告 無雜言事

③ 만력 35년 별급문기

〈원문〉

- 01 萬曆三十五年 二月 二十日 女壻趙續韓處別給明文
02 右文爲 登第設宴 榮幸莫甚仍于 羅州西面水多里及居平
03 里伏在 母邊傳來田畝並合全三石十三斗落只 父邊傳來奴萬卜
04 三所生婢萬非年□□ □□生 奴玉只二所生婢難今年貳拾 □□生 奴億
05 龍二所生奴龍水年□ □□生 母邊傳來婢夢臺三所生奴玆年 年戌戌生 四所生
06 奴終連年□ 癸卯生身乙 後所生並 永永別給爲去乎 鎮長耕食使□
07 事
08 財主 通訓大夫 前行軍器寺僉正 奇 (手決)
09 證 通政大夫 行原州牧使 金弘遠 (手決)
10 通善郎 前禮曹佐郎 李時楨 (手決)
11 女壻 務功郎 行順陵參奉 韓履謙 (手決)
12 筆執 男 承議郎 行金泉道察訪 奇延獻 (手決)

1607년에 기대승의 아들 奇孝曾이 사위 趙續韓에게 노비와 전답을 증여하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별급은 득남·과거급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상속과 달리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財主가 직접 증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조찬한은 1606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 별급은 이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별급한 내역은 부변전래 노비 3구, 모변전래 노비 2구, 모변전래 전답 全 3石 13斗落只¹²⁾이다. 16세기 분재기에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대해 모변·부변전래, 혹은 조부변·조모변·처변전래 등 해당 재산의 유래를 기술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재산이 傳繼되던 상속 관행과 관련이 있으나 17세기 이후 이런 상세한 기술은 점차 퇴색하고 ‘조상전래’로 단순하게 기재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별급문기는 17세기초에 작성되어 16세기의 전형적인 분재기 작성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별급한 전답 73두락지는 모변에서 전래했고, 그 소재지는 나주 거평리로 나와 있다. 이 문기에서 ‘모변전래’로 표현한 것은 財主 기효증의 모변이므로 기대승의 처 咸豐李氏를 가리킨다. 함풍이씨가의 나주 소재 전답 일부가 아들 기효증에게 상속되어 奇氏 일가로 편입된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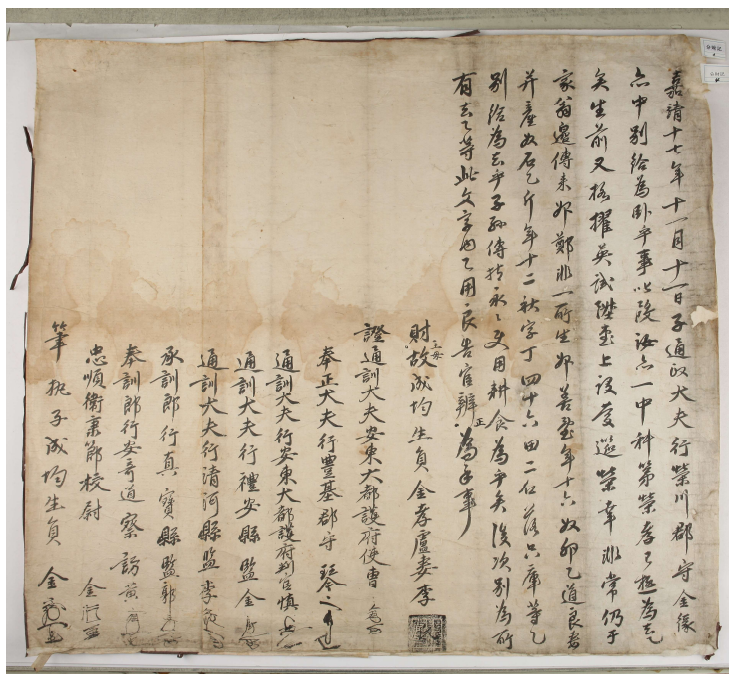
문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관련자들의 이름과 관직, 서명이 있는데, 재주 기효증과 3명의 증인, 필집 기정현 등 5명이다. 증인으로 문기에 서명한 3인은 당시 원주목사 金弘遠(1571~1645)¹³⁾과 예조좌랑을 지낸 이시정, 순릉참봉이면서 재주 기효증의 사위인 한이겸이다. 모두 호남 지역의 顯官 출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홍원은 부안에 세거한 부안김씨 집안의 인물이며, 기효증의 장인 또한 부안김씨로 梅堂 金坵의 딸이었다는 점에서 김씨 가문과의 교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유력인사를 별급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들의 서명을 남기는 관행은 주로 16세기 별급문기, 그 중에서도 과거 시험에서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과거 급제 후 到門宴

12) 全 3石은 60두락과 같다. 石은 全石과 平石이 있는데 全 1石은 20斗, 平 1석은 15두이다.(『경국대전』 형전, 도량형조) 평석의 경우 ‘平’을 생략하고 그냥 1석으로 쓴다. 따라서 ‘전 3석 13두락지’는 73두락지와 같다. ‘모친 쪽에 전해 내려온 전답과 함께 삼백삼십 마지기 전부’(『(고봉선생) 종가고문헌집 1』, 130쪽)라는 번역은 재고를 요한다.

13) 김홍원의 원주목사 재임 기간은 1606년 8월~1607년 12월이다.

등의 잔치를 베풀고, 이 자리에 유력 인사들을 초청한 후 별급문기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일화도 분재기에 직접 거론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별급문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유력 인사를 동원할 정도의 지위와 명망을 가진 가문이며, 그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를 배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진 4〉 1539년 김효로 처 이씨 별급문기(보물 1018호 중)

〈사진 4〉는 이러한 별급 사례 중 하나로 참고할 만한 문서이다. 경상도 예안 오천의 광산김씨 집안 별급문기로 현재 보물 1018호로 지정된 광산김씨 후조당 가문의 일괄 고문서 중 1건이다. 1539년에 탁영시에 합격하여 당상관에 오른 아들 金緣을 축하하기 위해 그 모친이 재산을 별급한 문서이다. 탁영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면서 인근 고을 수령들을 초청하였고 이들이 별급문기의 증인으로 참여하여 서명을 남긴 사례이다. 비슷한 유형의 별급문기가 안동의 의성김씨 학봉 종택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4. 고봉 종가 분재기의 역사문화적 가치 -맺음말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선세문서유적」 속에 수록된 행주기씨 고봉 기대승 종가의 분재기에 대해 그 서지적 상황, 분재기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선세문서유적」에 포함된 분재기는 총 3점이다. 1559년에 작성된 화회문기 1점, 1586년에 작성된 화회문기 1점, 그리고 1607년에 작성된 별급문기 1점이다. 앞의 두 화회문기는 「기대승 형제 화회문기」이며, 별급문기는 「기효증 별급문기」로 부를 수 있다.

화회문기 2점은 기대승 형제들이 부모 사후에 부모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이 중 1559년 문기는 일반적인 재산상속 문기이고, 1586년 문기는 유류분에 대한 상속문기이다. 두 문기는 상속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구분	상속인	상속물건
원 화회문기(1559년)	기대림, 대승, 대절, 소과	노비, 전답
유루분 화회문기(1586년)	기대림, 대승, 대절	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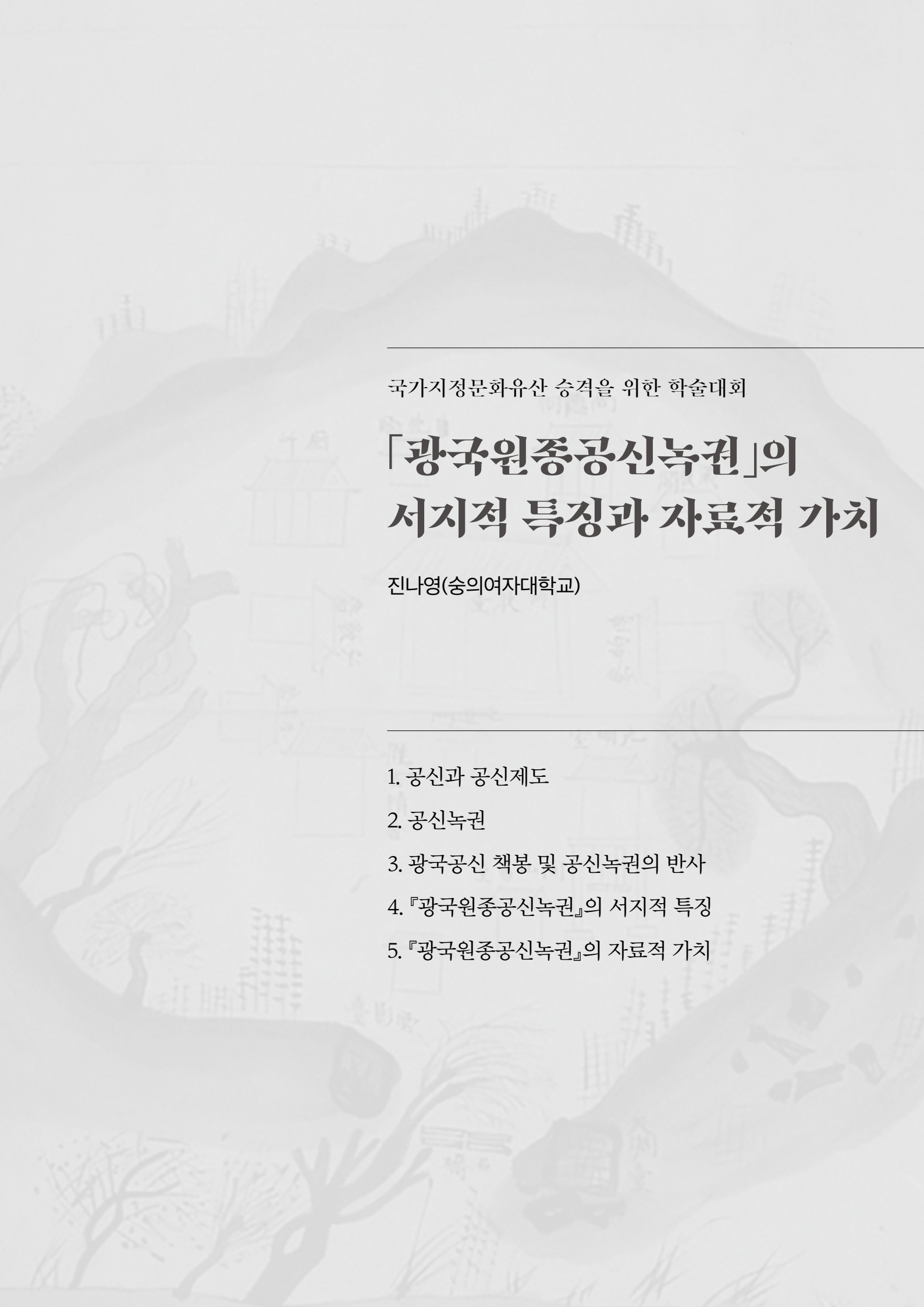
〈표 2〉 화회문기의 내용 비교

즉 유루분을 상속할 때는 첩자 소과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상속 대상물 역시 전답은 없고 노비만 분할하였다. 원 화회문기에서 3형제는 대체로 균분상속을 한 것으로 보이며, 첩자 소과는 이들의 상속분에는 훨씬 못미치는 분량의 재산을 받았다. 嫡庶에 따른 상속분의 차이는 법전에도 규정된 바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유루분 상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또 유루분 상속은 노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遠方에 거주하는 노비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도망도 찾기 때문에 유루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유루분 상속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충주 소재 노비였다. 16세기 고봉 종가 소유의 노비 분포와 관련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두 화회문기는 서지적 측면에서는 원본 문서가 아니라 전사본 문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두 분재기를 3형제 집에 각각 보관한 과정, 그 중 2장을 잃어버리고 남은 1장을 저본으로 이를 다시 옮겨적는 경로를 追記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할 부분이 있다. 즉 원본을 있는 그대로 옮겨적었으므로 상속내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문서의 탄생, 서실, 전사본으로의 재탄생 과정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문서학, 역사아카이브즈의 관점(Historical Archive)에서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문기인 별급문기는 기대승의 아들인 기효증이 자신의 사위인 조찬한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노비와 전답 약간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전형적인 별급문기이지만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에 원주목사 김홍원 등을 참석시키고 별급문기에 증인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과거급제자에 대한 별급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영남 지역의 우수한 가문들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간혹 보인다. 유형이 비슷한 별급문기를 모아 그 특징에 대한 분석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특징에 앞서 3점의 문기는 모두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인 고봉 기대승과, 그의 家系인 광주 행주기씨 일문의 사회적 기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서라는 점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화회문기는 기대승의 부친인 기진 부부의 재산 소유 양상으로부터, 이를 상속한 기대승 형제들의 재산 승계 및 경영의 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별급문기는 기대승의 아들에서 손자 代로의 재산 증여 양상과, 별급문기 작성에 동원된 인맥과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별급문기의 필집은 기대승의 손자 奇廷獻이므로 그의 친필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점의 분재기는 ‘기진-기대승-기효증-기정현’으로 이어지는 행주기씨 4대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진나영(송의여자대학교)

1. 공신과 공신제도
2. 공신녹권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5.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진 나 영

목 차

1. 공신과 공신제도
 2. 공신녹권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5.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 참고문헌

1. 공신과 공신제도

- 공신(功臣)
 -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사람
- 우리나라 공신제도
 - 중국에서 행해지던 것을 신라시대 때 수용하여 고려시대에도 이어짐
 - 고려시대
 - 당시 공신 책봉 및 녹권(錄券)의 반사가 행해졌으며, 고려 후기에 이르러 녹권이 일정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음 (『고려사』 및 2차자료)
 - 다만, 실물로 전하는 것이 없어 당시의 공신 및 공신제도, 녹권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움
 - 조선시대
 - 공신제도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정착되었음
 - 태조(太祖) 때 개국공신 책봉을 시작으로 영조(英祖)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음
 - 공적의 대소(大小)에 따라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을 각각 책봉하고, 공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공신 녹권을 반사했음 ⇒ 원종공신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 역사상 최초로 둔 것임
 - 조선시대의 공신녹권은 그 실물이 현전하여 조선시대의 공신제도를 파악 가능함

2. 공신녹권(功臣錄券)

- 국가의 대소사(大小事)에 공적을 쌓은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한 후, 이들의 공훈을 등재하여 각 공신에게 반사(頒賜)한 것

종류	발급자	수급자	비고
공신교서(敎書)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	정공신	*초기 개국(開國) · 정사(定社) · 좌명(佐命)의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 모두 사급함
공신녹권(錄券)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를 받아 공신도감에서 왕을 대행해 주관	원종공신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 광국공신 책봉

- 조선 선조 때,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라를 빛낸 공신이라는 의미로 ‘광국공신’ 및 ‘광국원종공신’이라는 공신호(功臣號)를 주어 공신으로 책봉하였음

■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것 ⇒ 종계변무(宗系辨誣)

- 조선 건국 이후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간 명(明)나라의 『대명회전(大明會典)』에 태조 이성계의 세계(世系)가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자, 이를 정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 종계의 개정에 성공한 일

■ 종계변무의 과정

나라	년	월	일	내용	비고
고려	공양왕2 (1390)	05	01	이성계의 정척이던 윤이(尹翬)·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라 이성계의 인척이라고 함. 이성계는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고했함.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함
			04 25	이성계의 종계(宗系)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됨. 명나라가 종계 문제로 태조(이성계)를 무시함. 또한 조선을 복속시키려 함.	양국의 외교문제
조선	태조3 (1394)	06		명나라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냄.	
			01 08	성절사 장온(張溫)의 귀국 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중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태종2 (1402)	11	01 08	이성계의 종계를 바로잡기 위해 임빈(林彬)을 파견함.	
	태종3 (1403)			파견했던 임빈 등이 종계 정정 등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옴.	
	태종4 (1404)	03	27	주정사(奏請使) 이계명(李繼孟)이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고려의 임금 4명을 사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전함.	
			04 21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됨에 대해 의논하고 빨리 주청하여 수정하게 하였음.	명나라는 종계를 개정해 주겠다고 했으나 실제 바꾸지는 않았음
	중종13 (1518)	04	26	『대명회전』이 중단된다는 소리를 듣고, 예부에 주청해 개정을 요구함.	
	중종24 (1529)		06 08	주청사 관별(權別)을 보내 『대명회전』에 대한 수정을 주청.	
	중종34 (1539)	04	07 21	종계의 개정을 위해 주청사 조사수(趙士秀)를 파견함.	
	명종12 (1557)		04 20	주청사 김주(金澍) 등이 종계에 대한 주청을 함.	
	명종18 (1563)	02	09 30	종계변무를 위해 주청사 이후백(李後白), 윤근수(尹根壽)를 보냄.	
	선조6 (1573)		02 28	김계휘(金繼輝)를 변무 주청사로 삼음.	
	선조14 (1581)	05	01 01	종계 주청사 황정욱(黃廷域) 등이 출발함.	
	선조17 (1584)		05 03	종계변무사 황정욱 등이 중국 황제가 『대명회전』을 개정한 전문(諭文)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돌아옴.	
	선조21 (1587)	05	02 02	사은사 유홍(兪弘) 등이 『대명회전』 중 조선이 수록된 한 권을 가지고 옴.	종계가 완전히 개정되어 수록됨
	선조22 (1588)		05 11 22	성절사 윤근수(尹根壽)가 『대명회전』 전결과 칙서를 받아 돌아옴.	종계변무 완성

6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 광국공신 책봉 (계속)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및 『광국원종공신녹권』에 실린

광국공신 책봉 및 녹권 반사에 관한 내용

年度	朝代	月	日	內容	奉命者
1589	선조 22	12	01	광국 훈신을 책록하도록 명하다	
1590	선조 23	02	01	광국·평난 두 공신의 녹훈을 명하다	
		08	01	광국공신과 평난공신에게 녹권을 반사하고 대사령을 내리다	
1591	선조 24	윤 03	02	임해군 이진 등을 원종공신으로 삼도록 전지하다	同都承旨奇弼
				원종공신의 처우에 대해 전지하다	同都承旨奇弼
			30	광국 도감 낭청이 녹권에는 어보를 찍어 허위의 폐단을 막으라고 청하다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 광국공신 책봉 (계속)

– 광국 정공신

■ 3등급으로 구분하여 모두 19명을 책봉함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3	尹根壽, 黃廷彥, 俞泓
2등	7	洪聖民, 李後白, 尹斗壽, 韓應寅, 尹暹, 尹洞, 洪純彦
3등	9	奇大升, 金澍, 李陽元, 黃琳, 尹卓然, 鄭徹, 李山海, 柳成龍, 崔滉
合計	19	

- 1등: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이성계의 종계가 개정되어 실린 것을 조선에 가지고 온 신하
- 2·3등: 종계변무를 위한 사신행렬에 동참했던 부사, 서장관, 통역관 및 주청문 작성에 관여했던 신하들

3. 광국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 광국원종공신 책봉 및 공신녹권의 반사

- 광국 원종공신

- 종계변무에 힘쓴 정공신을 도와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음
- 모두 872명 (1등: 137명, 2등: 136명, 3등: 599명)
 - 1등: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
 - 2·3등: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
-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녹권을 반사하였음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현존본 현황

- 현존하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은 6종인 것으로 확인됨
 - 국내·외 국가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각 기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조사

No.	소장처	수급자	직함	등급	기타
1	국립중앙도서관	李繼孟	左贊成	1등	BA2513-458
2	고려대학교	柳雲龍	漢城府判官	3등	貴-320
3	안동 하회 풍산유씨 충효당	學生	柳翺	3등	
4	안동 주촌 진성이씨 경류정	李庭檜	監察	3등	
5	충재박물관	權檣	右贊成	1등	보물 제896-4호
6	고봉 기대승 종가	奇廷獻	學生	3등	광주유형문화재 제22호

- 현재 남아 있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수량이 많지 않은 편임
- 녹권에는 다른 문헌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높음 ⇒ **현존본 수집 및 보존 시급**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형태적 특징

光國原從功臣錄券 / 光國功臣都監 編. - 再鑄甲寅字本. - 漢城 : 光國功臣都監, 宣祖 24(1591).
1冊(20張) : 四周雙邊, 半廓 26.1 × 18.5cm. 10行17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37.6 × 22.6cm.

表題名 : 光國原從功臣錄
印記 : 施命之寶



- 선조 24(1591)년 금속활자 중 재주(再鑄)갑인자인 경진자(庚辰字)로 인쇄한 1책(20장)임

▪ 현존하는 공신녹권 중 경진자로 인쇄된 녹권은 『광국원종공신녹권』이 유일함

- 광곽의 종류가 ‘사주쌍변’임

▪ 이전 발급된 녹권: 사주단변

- 녹권에 주인(朱印)된 인장은 국왕문서용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임

▪ 이전 발급된 녹권: 이조지인(吏曹之印)

⇒ 이전 발급된 녹권에서의 양상과 다른 형태를 보임 ⇒ 조선시대 녹권 체계의 변화된 양상을 보인 첫 녹권임



西南雙邊(『光國原從公身錄券』, 1591)



西南單邊(『光國原從公身錄券』, 1507)

11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施命之寶)

* 붉은 글씨는 이전에 발급된 녹권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수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施命之寶)

* 굵은 글씨는 이전에 발급된 녹권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 체제(體制) 특징

－ 권수

■ 권수제

- － 이전: 吏曹 (녹권 발급기관)
- － 이후: 녹권명

■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

- － 이전: 직함 부분에 겸직(兼職)이나 전직(前職)
모두 기재, 성명 아래 본관도 기재
- － 이후: 현재의 직함과 성명만을 간략하게 기입



광국원종공신녹권
(1591)



정국원종공신녹권
(1507)



좌리원종공신녹권
(1471)

■ 체제(體制) 특징

- 권수

■ 녹권 수급자: 학생 기정헌(奇廷獻)

- 자(字): 덕회(德晦)
- 본관: 행주(幸州)
- 고봉(高峰) 대승(大升)의 손자, 현감(縣監) 효증(孝曾)의 아들
- 행주 기씨 16세(世)
- 원종공신 책봉 이유
 - 할아버지인 고봉 기대승이 광국 정공신으로 책봉 되었음
 - 이에 기대승을 도와 나라를 빛낸 공적으로 기대승의 형제, 아들, 사위 및 손자를 광국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함



향토문화전자대전

기정헌

[奇廷獻]

■ 체제(體制) 특징

- 권수

■ 녹권 수급자: 학생 기정헌(奇廷獻)

- 기존 문헌 및 자료를 통해서는
광국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 원종공신에 경우, 해당 녹권을 통해
공신으로 책봉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신녹권은 중요한 자료임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 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외방 독립운동가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출처 디지털광주문화대전-기정헌

정의

조선시대 경요호란 당시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한 의병장.

가계

기정헌(奇廷獻) [7~?]의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덕회(德晦)이다. 할아버지는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이며, 아버지는 현감(縣監) 기효증(奇孝曾)이다.

활동 사항

기정헌은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으며, 음직(陰職)으로 현종현감(玄鳳縣監)이 되었고, 창박리로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기정헌은 1627년(인조 5) 1월 경요호란 당시 의병장이 되어 호소사(隰召使) 김장생(金長生)의 소모유사(召募有司)를 맡아 의병과 양곡을 모집하여 전주로 이동하였다. 전주에 도착한 뒤 굴욕적인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자 통곡하여 전라도 광주로 돌아왔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00173&cid=71262&categoryId=71328>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施命之寶)

* 굵은 글씨는 이전에 발급된 녹권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順序	內容	奉命者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吏曹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同副承旨 奇弼
傳旨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等級別功臣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 吏曹 담당	同副承旨 奇弼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 전지(傳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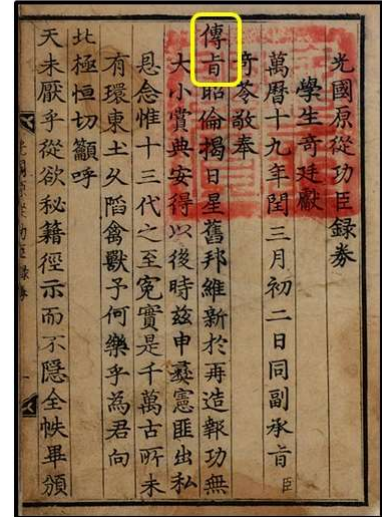
-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

■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함

■ 책봉 사유

이성계의 종계가 완전히 개정되어 수록된 『대명회전』 전질을 가지고 온 공로로 책봉되었음을 확인

'왕은 인륜이 해와 별에 들어 옛 나라가 다시 자아상에 새로워졌다. 공을 보답함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 상을 내리니 아찌 후에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거듭 법에 못맞춰 사서로운 은혜가 아니다. 13대의 자국한 원통함을 생각하면 실로 천만 년이나 되는 오랜 옛적에 없던 바로 우리-러의 영토가 오랫동안 공수의 차이에 빠졌으니 내 아찌 임금에 되어 출금했는가. 복국성을 향해 항상 경성스럽게 구하여 하늘이 종옥(從欲)을 막지 않았다. 비적(秘籍)은 바로 보이고 숨지 않았다. 전질(全秩)은 마땅히 널리 반포되고 남음이 없다. 이는 2-3명 신하들로 말미암아 전후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며 또한 역간의 사람들이 분주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이들의 아첨다움을 둘러가며 부축하여 아찌 감히 존호를 받고 말이 없다. 공이 빛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이미 아찌 이르렀으니 경사스럽게 이 명을 받으라. 은혜는 또한 마땅히 위로는 사물에 돌아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로는 사리(賈吏)나 복예(復隸)에 이르기까지 전질로 작은 수고와 조금 값한 일이 있으니 아울러 기록하여 모두 거두지 않음이 없다. 공을 나눈 중함을 생각하고 가벼움을 생각함이 비록 신하들의 등급이 동일하지 않음이 있다. 귀함도 없고 건함도 없어 함양이 가장 나랏과 더불어 아첨답게 한다. 나는 가상하게 여기니 그를 감히 잊겠는가. 그러므로 이를 가르쳐 보아니 잘 알자이다.'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順序	內容	奉命者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吏曹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同副承旨 奇沓
傳旨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等級別功臣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 吏曹 담당	同副承旨 奇沓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

- 1등: 137명, 2등: 136명, 3등: 599명 모두 872명

-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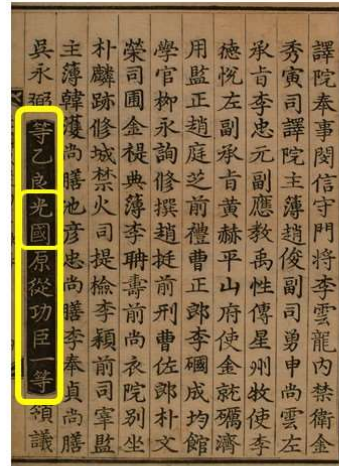
■ ‘...等乙良光國原從功臣O等’ 표시

■ 묵개자(墨蓋子)를 통해 구별 용이하게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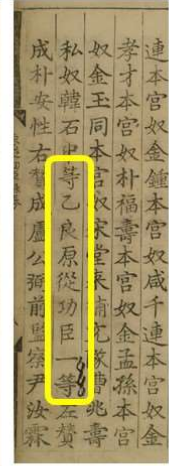
- 이전: ‘...等乙良原從功臣O等’ 표시

■ 공신명칭 無

■ 묵개자 無



광국원종공신녹권
(1591)



정국원종공신녹권
(1507)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 (계속)

-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함

■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3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직함 기술의 특징

- 소속 기관 등을 함께 기재하여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냄

- 곳곳에 같은 기관에 소속된 직함끼리 나열되는 경우가 있었음

녹권발행부분	司譯院 所屬	
韓潤傑司譯院前街金吉孫司譯院前街	司譯院判官	申應澍
	司譯院副正	朴麟禧
	司譯院直長	洪明彦
	司譯院奉事	韓潤傑
	司譯院前街	金吉孫
	司譯院前街	趙安義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 (계속)

-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음 (계속)

■ 성명 기술의 특징

-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임

■ 예) 행주(幸州) 기씨(奇氏)의 경우

: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됨

녹권발췌부분	幸州奇氏 關係		
奇大臨	14世	奇大升의 兄	
奇孝曾	15世	奇大升의 子	
奇孝閔	15世	奇大升의 子	
奇孝孟	15世	奇大升의 子	
金南重	15世	奇大升의 婿	
奇小過	14世	奇大升의 弟	
奇孝芬	15世	奇大臨의 子	
奇孝奎	15世	奇大臨의 子	
奇子男	15世	奇小過의 子	
奇子國	15世	奇小過의 子	
奇子盛	15世	奇小過의 子	
奇廷獻	16世	奇大升의 孫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順序	內容	奉命者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吏曹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同副承旨 奇弼
傳旨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等級別功臣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奉敎日 및 奉命者	萬曆 19(1591)年 閏3月 初2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 - 吏曹 담당	同副承旨 奇弼
傳旨	傳旨(등급별 포상규정)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본문

■ 포상규정에 관한 전지(傳旨)

- － 포상규정이 등급별로 조금씩 상이함
- － 또한 상황별 포상규정을 자세하게 제시함
- － 이전 녹권들과 차이점

■ ‘係干逆黨及因亦賊公事間事被罪者 官爵一隸舉行安徐’

항목 추가됨

- － 정확한 이유는 확인 불가하지만, 이전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됨

區分	褒賞規程	
一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封爵
二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甥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
三等功臣	본인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有及後世
	부모	-
各等遇政 以上	子孫兄弟甥姪女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旌各贈一資	
犯罪作亂人	並於本品敘用	
在戡及無故作亂人	各加一資敘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職權收斂人	並只選除	
妻子	贈品安徐	
公私口	免議	
休干逆黨及因亦賊公事間事被罪者 官爵一隸舉行安徐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전전히 중용하게 한다.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教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氏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施命之寶)

* 굵은 글씨는 이전에 발급된 녹권과 차이가 있는 부분임.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말

■ 공신도감명

- － 이전: 공신도감명 無
- － 이후: 공신도감명 有

■ 도감원의 직함 및 성명

- － 이전: 직함+성씨+수결(手決)
- － 이후: 직함+성명(姓名)



광국원종공신녹권
(1591)



정국원종공신녹권
(1507)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말

■ 공신도감명

- － 이전: 공신도감명 無
- － 이후: 공신도감명 有

■ 도감원의 직함 및 성명

- － 이전: 직함+성씨+수결(手決)
- － 이후: 직함+성명(姓名)



광국원종공신녹권
(1591)

직함

성명



정국원종공신녹권
(1507)

직함

성씨

수결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말

■ 광국공신도감 구성원의 관직, 직함 및 성명

－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음

번호	관직 · 직함	성명	備考
1	堂上韓忠貞翼護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杞城府院君兼知經筵事五衛都提府都提管	俞泓	정공신 1등
2	堂上韓忠貞翼護修紀光國功臣輔國宗祿大夫行兵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成均館事長溪府院君	黃廷彥	정공신 1등
3	堂上韓忠貞翼護修紀光國功臣正憲大夫禮曹判書兼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藝文館提學海平君	尹根壽	정공신 1등
4	堂上韓忠貞翼護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清平君	韓應寅	정공신 2등
5	郎廳韓忠貞翼護修紀光國功臣通訓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 敎兼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尹暹	정공신 2등
6	郎廳韓忠貞翼護修紀光國功臣朝散大夫行刑曹正郎	尹洞	정공신 2등
7	監校郎廳修城禁火司提檢通訓大夫	李穎	-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체제(體制) 특징

－ 권말

■ 광국원종공신에 대한 책봉 및 녹권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은 대부분 ‘광국 정공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광국 정공신이 책봉된 이후, 다시 광국공신도감이 구성되어 광국원종공신녹권을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 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특이점

－ 본문까지는 금속활자(재주갑인자)로 인쇄하였으나,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인쇄하였음
⇒ 관원의 직함을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모든 내용과 성명을 함께 한 행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으로 추측됨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직함에 따른 신분 구성의 특징

-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양반(兩班) · 중인(中人) · 양인(良人) · 천인(賤人)으로 구분함

■ 광국원종공신 중 신분별 인원수

- 양반 > 중인 > 양인 > 천인
- 광국원종공신 중에는 양반 신분이 많음
- 그러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음

區分		人員數		比率
兩班	1等	132	748	85.8
	2等	128		
	3等	488		
中人	1等	3	103	11.8
	2等	8		
	3等	92		
良人	1等	2	13	1.5
	2等	0		
	3等	11		
賤人	1等	0	8	0.9
	2等	0		
	3等	8		
合計			872	100

4.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

■ 직함에 따른 신분 구성의 특징

-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양반(兩班) · 중인(中人) · 양인(良人) · 천인(賤人)으로 구분함

■ 광국원종공신 등급별 신분 및 인원수

- 등급이 낮을수록 비교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등급별 신분의 비율은 다르지만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1等	2等	3等	合計
兩班	132	128	488	748
中人	3	8	92	103
良人	2	0	11	13
賤人	0	0	8	8
合計	137	136	599	872

5.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 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 전지(傳旨)

- 『조선왕조실록』 및 기타 문헌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함
⇒ 공신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원자료로서 역사적·증거적 가치가 높음

–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당시 신분사, 정치사, 사회상(社會相)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조선시대 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 공신도감 구성원의 직함과 성명

- 공신도감은 공신에 대한 제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청인 연유로 이와 관련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녹권에 실린 공신도감 구성원에 대한 정보로 공신도감의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해 파악 가능

5.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1)

– ‘광국 정공신 및 원종공신’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

- 광국공신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광국원종공신이 책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광국공신도감 구성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로 인출된 유일(唯一) 녹권

- 조선시대 발급되어 현존하는 21종의 원종공신녹권 중 재주갑인자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은 『광국원종공신녹권』이 유일
- 특히 재주갑인자 인본은 임진왜란의 발발(1592)로 인해 인출기간이 짧아 그 종수가 별로 많지 않은 편임
⇒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재주갑인자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임

5.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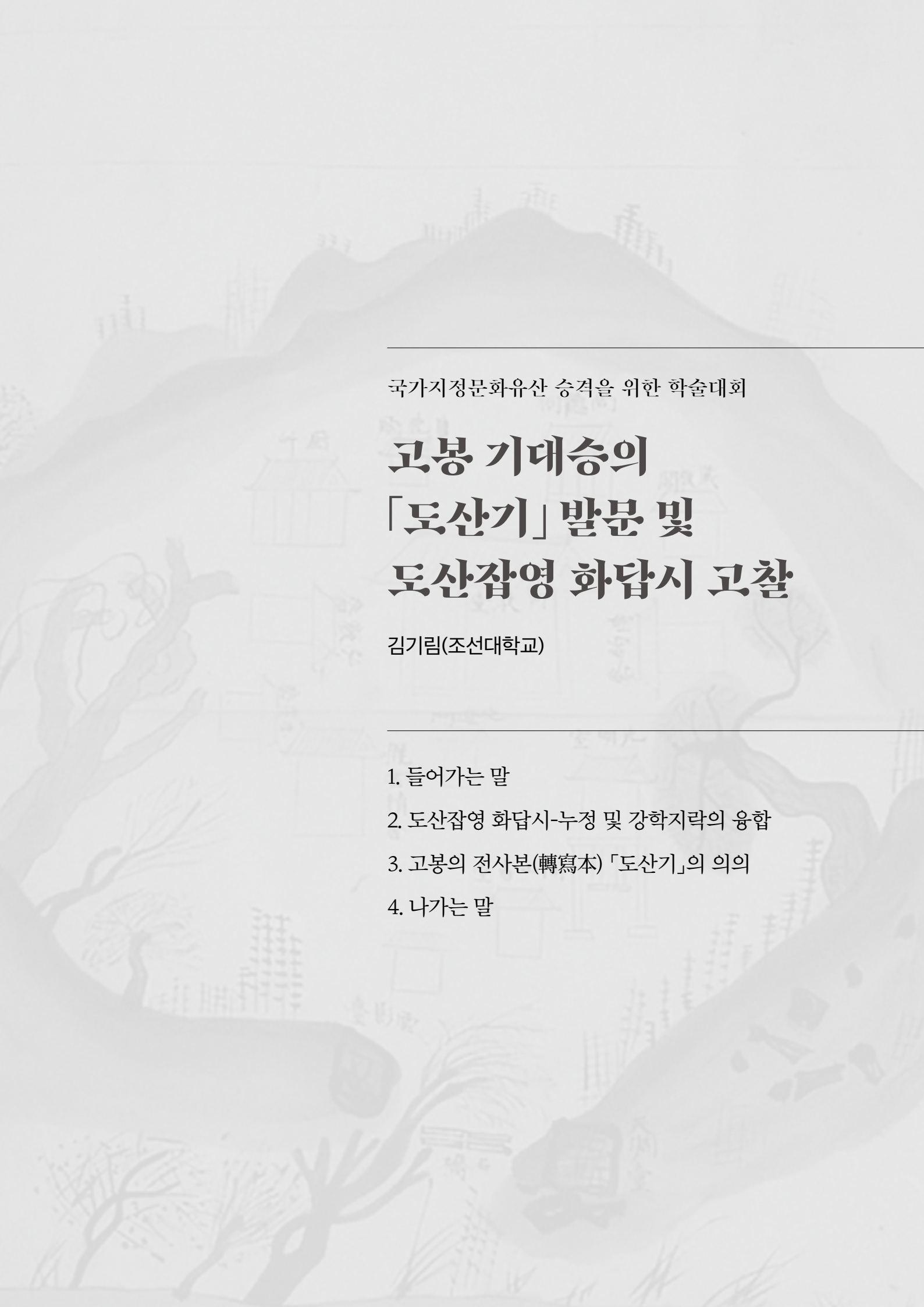
– ‘조선시대 원종공신녹권 형태 및 체제’ 변화의 전환점인 녹권임

⇒ 이후 반사된 원종공신녹권 체제에 있어 원형이 되었음

항목	이전 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
광곽의 종류	사주단변	사주쌍변
인장의 종류	이조지인(吏曹之印)	시명지보(施命之寶)
권수제	녹권 발급기관	녹권명
수급자 정보	직함 모두 기재+성명+본관	현재 직함+성명
등급별 공신 구분 표시	공신명 및 목개자 無	공신명 및 목개자 有
권말 공신도감명	無	有
공신도감원 정보	직함+성씨+수결	직함+성명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光國原從功臣錄券』
- 『靖國原從功臣錄券』
- 『佐理原從功臣錄券』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 가람기획, 2002.
-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한영우,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 집문당, 1997.
- 幸州奇氏大同譜所, 幸州奇氏大同譜, 고양 : 幸州奇氏大同譜所, 2004.
-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사학/고고학 전공, 2008.
- 송일기, 진나영,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427-456.
- 송일기, 진나영,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12), pp.211-240.
- 진나영, 송일기, “靖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6권 제4호(2012. 12), pp.27-60.
- 진나영,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지학전공, 2008.
-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서지학전공, 2014.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00173&cid=71262&categoryId=71328]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의 「도산기」 발문 및 도산잡영 화답시 고찰

김기림(조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도산잡영 화답시-누정 및 강학지락의 융합
3. 고봉의 전사본(轉寫本) 「도산기」의 의의
4. 나가는 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도산잡영 화답시-누정 및 강학지락의 융합
3. 고봉의 전사본(轉寫本) 『도산기』의 의의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고봉종가 소장 자료인 『도산기』의 문학적, 자료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봉 기대승은 16세기 호남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허균은 호남의 문인과 학자들을 꼽으면서 일재 이항, 고봉 기대승 등을 꼽았고¹⁴⁾, 김득신은 학문 분야에서 고봉만 꼽고 이후에 학문하는 이는 없었다고 단정지었다.¹⁵⁾ 조선말기 문인인 홍직필은 호남의 학문을 서술하면서 ‘하서, 고봉, 일재, 은봉, 손재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¹⁶⁾ 고봉은 10대 초반부터 문장에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주로 『소학』 『효경』 『맹자』 등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고문진보』, 한유의 글, 『문선』 등 문학 관련 공부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런데 20세 즈음에 <자경설>을 지어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고 주자성리학에 집중했다.¹⁷⁾ 31세 때인 1554년에 『주자대전』을 읽고 긴요한 것들을 정리한 1554년에 『주자문록』을 완성했다. 1588년(32세) 7월에 일재 이항을 만나 태극도설에 대해 토론했고, 서울에 와 추만 정지운과 <천명도>에 대해 논의했으며, 10월에 퇴계를 만나 사단칠정에 대해 논의했다. 선배들과의 학문적 토론이 가능했던 것은 『주자대전』을 비롯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봉은 1558년부터 8여 년 동안 진행한 퇴계와 사단칠정에 대해 논변했다. 퇴계는 ‘1558년 서울에서 고봉을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고 했고, 고봉은 퇴계야말로 학문의 표준이 바르게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학문적으로 상호 인정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리학 연구를 함께 했다. 이들의 사단칠정논변은 조선 성리학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조선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¹⁸⁾ 이런 점에서 고봉은 조선 성리학의 심화를 촉발한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봉과 퇴계의 상호 교류는 학문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학적 교류도 병행했다. 매화를 매개로 삼아 시를 주고 받았고, 1560년 즈음에는 주자의 <무이도가> 성격에 관해 문학적 논변도 벌였다. 퇴계의 <도산기>와 <도산잡영>도 중요한 교류 매개물이었다. 이황은 도산서당을 완성한 후 서당 건물 및 주변에 대해 시인 <도산잡영>을 이를 설명하는 기(記)를 지었다. 이것이 <도산기>이다. 기대승은 이황이 지은 <도산기> 및 <도산잡영>을 보고 발문을 지었고, 화답시를 지었다. 매화를 매개로 한 문학 교류에 이어 또 다시 본격적으로 문학적 교류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찰 성과는 미약하다. 또한 고봉은 도산기에 발문을 쓰면서 퇴계의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베껴썼다. 이것이 고봉종가소장(고봉)『도산기』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28.5*39.7cm(가로*세로) 크기이며 표지를 제외하고 30쪽이며 장첩 형태이

14) 허균, 『惺所覆瓿稿』, 惺翁識小錄 中 說部, “在靖陵朝 湖南人才之顯 于時者甚多 如朴訥齋昆季 崔舍人山斗 眉菴昆季 梁校理彭孫 羅提學世績 林牧使亨秀 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璫最著 其後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或以學問 或以文章顯於世.”

15) 김득신, 『柏谷集』 5책, <三益堂序>, “蓋湖南俗 以靡衣餼食歌姬美酒 窮遊衍鬪豪華 不務經學 亦不尚操觚之業 矣 若指可屈則往者奇高峯一人之學問 林石川 高霽峯 林白湖 白玉峯之詞華而着力爲學之人 不繼起奇高峯之後.”

16) 홍직필, 『매산집』, 권16, <答林來卿 宗七>, “湖南之學 河西, 高峯, 一齋, 隱峯, 遜齋最著焉.”

17) 김경호, 「고봉 기대승의 낙향과 삶으로서의 철학」, 『한국인물사연구』 17,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176쪽.

18) 고영진,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영남학』 60, 영남문화연구원, 2017, 77쪽.

고, 행서체로 쓰여져 있다.¹⁹⁾ 고봉의 문학 고찰에서 도산잡영 화운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고봉의 (고봉) 『도산기』에 대한 문학적, 자료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도산잡영 화답시-누정 및 강학지락 융합

〈도산잡영〉은 퇴계의 시이다. 퇴계는 1557년(명종 12, 퇴계 57세)에 도산에 터를 잡고 서당을 짓기 시작해서 1561년 즈음에 완성했다.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두 개 건물을 짓고 건물과 주변 경물에 이름을 붙였다. 이에 대해 시로 표현한 것이 〈도산잡영〉이다. 아울러 시에 기(記)를 부쳤는데 이것이 〈도산기〉이다. 도산서당을 비롯하여 주변에 대해 7언절구 18수, 5언시 26수를 지었다.²⁰⁾ 여기에 도산의 주변 마을인 농암, 분천, 하연, 병암 등 4언 절구 4수를 더했다.

고봉은 퇴계의 문인인 이정 김취려(而精 金就礪)를 통해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얻어보았다. 김취려는 안산 사람인데 예안까지 내려가 퇴계의 문인이 되었고, 서울과 예안을 오가며 퇴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받아 온 김취려는 표지까지 갖춰 첩으로 만들었고, 고봉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고봉에게 그 첩에 대한 발문과 시에 화운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봉은 발문에서 정황을 자세하게 적었다.

내가 일찍이 김군에게서 이것을 빌려다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김군이 나에게 말미(末尾)에 두어 마디 발문(跋文)을 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내가 삼가 승낙은 하였으나, 그 후 풍진 속에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워낙 바빠서 잠깐의 한가로운 시간도 없었기에 진실로 붓을 잡고 생각을 토로할 겨를이 없었다. 이제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다행히 아무 일도 없기에 수시로 이를 펴 놓고 읊조려 보매 선생의 은미한 뜻을 혹 한두 가지나마 엿볼 수가 있었다. …(중략)…김군이 또 일찍이 나에게 그 첩 안에 있는 여러 시에 대해 화운시를 지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나는 비록 감히 선뜻 승낙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역시 허락했었다. 이제 한가로운 가운데 다시 칠언시 18수를 화운하여 함께 첩의 말미에 적었으니, 나의 구구한 뜻을 조금이나마 나타냈을 뿐 감히 선생의 시와 서로 발명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것을 가지고 김군에게 바로잡아 주기를 구하고 선생께 우러러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²¹⁾

고봉은 허락하고 그 첩을 빌려 와 읽었지만 즉시 발문을 쓰거나 화운시를 짓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도산기를 쓴 시기가 1561이니 김취려가 이 글을 얻은 것은 그 이후였을 터이고, 당시 고봉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한가한 시간에 틈틈이 읽어가면서 퇴계가 시에 담아낸 뜻을 음미했고, 화답시를 지었다. 이 발문 끝에 쓴 간지에 ‘용경 4년 경오년 5월’이라고 했으니 1570년 5월이다. 고봉은 이해 벼슬을 버리고 3월에 한양을 떠났고 집 근처에 있는 고마산에 낙암을 지어 5월에 완성했다. 그 사이 퇴계의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다시 정독하며 그 동안 구상해두었던 시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봉은 화운하여 자신의 뜻을 조금 드러냈을 뿐이며 퇴계의 시와 서로 발명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자부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취려를 통해 퇴계에게 전해 시의 뜻을 제대로 읽어냈

19) 임준성, 「고봉친필본 도산기 해제」,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402쪽. 이 자료는 1994년 광주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봉종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20) 18절은 도산서당을 비롯해 그 주변을 읊은 것으로 도산서당, 암서헌, 완락재,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 농운정사, 관란헌, 시습재, 지숙료, 곡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동취병산, 서취병산, 부용봉 등이며 26수는 5언시로 蒙泉, 冽井, 庭草, 澗柳, 菜園, 花砌, 西麓, 南洪, 翠微, 寥朗, 釣磯, 月艇, 鶴汀, 鷗渚, 魚梁, 漁村, 烟林, 雪徑, 機遷, 漆園, 江寺, 官亭, 長郊, 遠岫, 土城, 校洞 등이다.

21) 기대승, 『고봉집 속집』 권2, <退溪先生陶山記文跋>, “余嘗從金君借而玩之。金君要余出數語跋其後。余謹已諾之。而風埃逆旅。卒卒無須臾間。固未遑於把筆抒思。今者解官歸鄉。幸無事。時時披閱吟諷。於先生之微意。或有窺得其一二。伏想先生當此之時。閒居彌久。其所自樂。必有深於前日者。恨不得操几杖從遊於堂壇巖臺之間。而面承提誨也。山川間之。奉拜靡由。東望飛雲。每不覺神魂之馳遡焉。金君又嘗要余和帖中諸詩。余雖不敢輕諾。而心亦許之。茲於閒中。輒復仰步七言十八首。併寫之帖末。庶幾少見區區之意。非敢以爲有所助發也。蓋欲以求正于金君。而仰質於先生云爾。”

는지, 자신의 시의 뜻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질정해보고자 했다.

고봉의 화운시는 도산서당을 비롯한 주변에 대해 쓴 7언시 18수만 대상으로 했다. 고봉은 발문에서 ‘이 <도산기문>1편과 곳에 따라 일을 기록한 칠언시 18절(絶), 또 오언잡영(五言雜詠) 26절과 별록(別錄) 4절이 모두 제지(題識)가 있다.’²²⁾고 썼다.²³⁾ 고봉은 퇴계가 쓴 시의 운(韻)의 글자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차운 형태로 시를 지었다. 시구 맨 끝에 오는 글자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일은 쉽지 않은데 이는 원작자의 운자 선택에 대한 동의나 원시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내포한다.²⁴⁾ 단순한 차운시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도산잡영에 대한 고봉의 차운은 퇴계에 대한 존중과 도산잡영에 담은 퇴계의 뜻을 존중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고봉은 퇴계의 뜻을 탐미하며 시에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다.

도산잡영은 도산서당에 속하는 건물, 방, 주변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장소에서 얻은 뜻을 서술하였다. 이름짓기는 사물이나 장소의 의미를 특정해준다. 퇴계는 도산서당 건물의 각 칸에 암서현, 완락재라고 이름을 부쳤고 이것들은 주자의 글에서 착안하여 주자학적 색채가 짙다.²⁵⁾ 주변에 대해서는 천연대 천광운영대, 정우당 등 성리학과 관련있는 이들의 글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이름을 지어 도산 공간 자체에 성리학적 성향의 색채를 입혔다.²⁶⁾

증자는 안자가 실하면서 허한 듯하다 일결었는데	曾氏稱顏實若虛
병산이 회암에게 이를 가르쳤네	屏山引發晦翁初
늘그막에야 바위에 사는 재미를 알았으니	暮年窺得岩棲意
박약과 연빙의 공부 허술할까 두렵네 ²⁷⁾	博約淵氷恐自疏

몸을 감춤은 도망하거나 현허를 사모해서가 아니고	收身非欲慕逃虛
뜻 가다듬은 처음을 회복하기 바라서네	勵志唯應冀復初
아득히 전현의 마음 밝디밝음을 상상하니	緬想前修心炯炯
이 현에 거처하며 세속 인연 멀리하겠네 ²⁸⁾	一軒棲息俗緣疎

퇴계는 도산서당 동쪽 한 칸에 암서현이란 이름을 부쳤다. 주자의 운곡시에 ‘오래도록 자신을 가지지 못했으니 바위에 깃들여 살며 작은 효험이라도 바라네.’라는 내용에서 따왔다고 했다.²⁹⁾ 안연은 가난하지만 그것마저 즐기며 학문을 하며 마음을 수양했다. 학식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증자는 ‘겉으로는 빈 듯하나 실제 안으로는 학문과 수양의 결실이 차 있다.’고 칭송했다. 병산 유자휘는 주희에게 원회(元晦)라는 자를 지어주면서 ‘잘 숨기’를 경계했다. 주자는 스승의 뜻을 이어 호를 회암이라 짓고 그 시에 ‘암서(巖棲)’의 의지를 보였다. 세속과 떨어져 수양하면서 학문을 연구하여 결실을 맺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퇴계는 암서현이란 이름을 지으며 주자의 뜻을 계승했다. 학문과 수양의 궁극적 결실은 ‘박문약례(博文約禮)’와 ‘여리박빙(如履薄氷)’의 태도이다. 퇴계는 안자와 주자가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궁향과 산수를 선택해 수양하고 학문에 집중하여 결실을 맺었

22) 기대승, 『고봉집 속집』 권2, <퇴계선생도산기문발>, “右陶山記文一篇及逐處記事七言十八絶。又五言雜詠二十六絶。別錄四絶。併有題識。”

23) 5언잡영과 별록한 시가 있다고 했지만 고봉은 7언시 18수에 대해서만 화운시를 지었다. 맨 뒤에 덧붙인 짧은 글에 ‘첩을 베끼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애통함을 만나게 되었다. 남겨진 첩을 어루만지니 슬픔이 더했다. 지금 마침 도성에 와 김군을 만나 서로 옛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이를 보면 나머지 5언 잡영, 별록한 시에 대해서도 화운하려고 했으나 퇴계가 세상을 떠났고 고봉도 일정이 바빠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4) 강성위, 「화운시의 유형과 특성고」, 『중국문학』 30, 한국중국어문학회, 1998, 179쪽.

25) 추제협, 「이황의 도산잡영에 그린 도산의 삶과 산수지락」,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234쪽.

26) 신두환,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 미의식」, 『한문고전연구』 41(1), 한국한문고전학회, 2020, 68쪽.

27) 이황, 『퇴계집』 권3, <도산잡영 : 암서현>.

28) 기대승, 『고봉집속집』 권1, 존재만록, <암서현>.

29) 이황, 『퇴계집』 권3, <도산잡영:병기>, “東一間曰巖栖軒。取雲谷詩自信久未能。巖栖冀微效之語也。”

던 일을 본받고자 했고, 암서헌 시에서 그것을 표현했다.

고봉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우선 암서의 의지를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허함을 사모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도산기>에서 퇴계는 산수 자연에 깃들여 사는 이들을 ‘현허를 사모하여 고상함을 일삼는 부류와 도의를 즐겨 심성 기르기를 즐기는 부류’로 나누었다. 그리고 현허를 사모하는 이들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조수(鳥獸)와 함께 살면서도 그릇됨을 알지 못한다.³⁰⁾ 비판한다. 퇴계는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 기르는 일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단호히 보여주었다. 고봉은 퇴계의 이 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퇴계가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의 실천으로서 암서할 뜻이 있음을 시에서 밝혔다. 또한 퇴계가 전범으로 안연과 주자로 설정하고 암서함으로써 세속과 소원해짐을 당연하게 여긴다. 퇴계는 세상을 ‘바람과 티끌이 뒤얹은’ 공간으로 보았고 도산에서는 세속의 명리를 쫓는 뜻이 마음 속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도산은 세속의 분란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수양과 학문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고봉은 퇴계의 이러한 암서의 의도를 적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뜻을 표현했다.

술개는 날고 물고기는 뛰는 것 누가 시켰나	縱翼揚鱗孰使然
활발히 유행하는 묘한 이치 하늘과 못에서 보겠네	流行活潑妙天淵
강대에서 종일토록 마음과 눈이 열리니	江臺盡日開心眼
명성 큰 책을 세 번 되풀이 외우네 ³¹⁾	三復明誠一巨編
소리개와 물고기 비단 지적해서 그러한 것 아니라	鳶魚非但指爲然
위로는 하늘 있고 아래로는 못 있도다	仰有青天俯有淵
우연히 조그만 대에 올라 정경이 묘하니	偶上小臺情境妙
지난날엔 괴롭게 옛 책만 대하였도다 ³²⁾	向來辛苦對陳編

<천연대>를 대상으로 읊었다. 퇴계는 (새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은 누가 시켰냐고 하면서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치를 캐물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운행되는 이치를 하늘과 연못에서 본다고 했다. 퇴계는 천연대에 대해 ‘위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 있어 새는 날고 물고기는 뛰다.’고 했다³³⁾. 연비어약(鸞飛魚躍)의 모습을 천연대에서 볼 수 있어 하루 종일 머물면마음이 열려 천리 운행의 오묘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명성(明誠)을 외운다고 했다. 퇴계는 명성의 의미를 대학과 중용에서 얻어냈다. 『대학』에 명명덕이 있는데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본성이며 명명덕은 사람의 본성을 밝게 한다는 말이다. 성(誠)은 『중용』에 나오는 말로 진실하고 망녕됨이 없다는 말이다.³⁴⁾ 명성을 외움은 천리의 운행 묘리를 깨닫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성찰하여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고봉은 퇴계의 이 경지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본다. 술개와 물고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이야 말고 당연하다는 논리다. 『주역』 천택 이괘의 상전에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음이 상하의 바른 이치’라고 했다. 천연대는 하늘과 못의 중간 지점에 있어 양(仰)-올려다 보기와 부(俯)-아래를 굽어보기가 모두 가능하다.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 아래에 있는 자연, 천지의 이치를 살피고 체득하면서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이며 학습의 장이다. 퇴계는 이를 깨달으면서 책 속의 ‘명성(明誠)’을 환기하여 외운다. 반면 고봉은 ‘옛 책만 보았다.’고 토로했다. 산수 또는 자연 속에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자신의 학문 방식

30) 이황, 『퇴계집』 권3, <도산잡영:병기>, “觀古之有樂於山林者。亦有二焉。有慕玄虛。事高尚而樂者。有悅道義。頤心性而樂者。由前之說。則恐或流於潔身亂倫。而其甚則與鳥獸同群。不以爲非矣。由後之說。則所嗜者糟粕耳。至其不可傳之妙。則愈求而愈不得。於樂何有。”

31) 이황, 『퇴계집』 권3, <도산잡영 : 천연대>.

32) 기대승, 『고봉집속집』 권1, 존재만록, <천연대>

33) 이황, 『퇴계집』 권3, <도산잡영:병기>, “潭上巨石削立。層累可十餘丈。築其上爲臺。松棚翳日。上天下水。羽鱗飛躍。左右翠屏。動影涵碧。江山之勝。一覽盡得。曰天淵臺。”

34) 추제협, 「이황의 도산잡영에 그린 도산의 삶과 산수지락」,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21쪽.

이 좁았음을 반성한다.

퇴계는 도산에 서당을 배치하여 성리학적 학문 연구의 공간, 강학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고봉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로 표현해냈다. 고봉과 퇴계는 주자의 무이도가의 성격을 두고 토론했다. 퇴계는 분명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8곡과 9곡에 대해 학문의 차례로 보려는 입장이었으나 고봉은 외물에 의해 생긴 흥을 부친 작품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주자가 도가적 색채가 짙었던 무이구곡을 유가 성리학적 공간, 도의지향(道義之鄉)으로 변모시키고 강학공간으로 만들었다는³⁵⁾ 사실에는 생각을 같이 했다. 도산잡영은 이처럼 한 공간을 학문 연구와 강학 장소로 만들어 수양과 학문, 강학하며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표현한 작품이다. 산수 공간에 대한 이러한 구상과 실천은 고봉의 생각과 잘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 푸르른 하늘을 누가 우리러 떠받들지 않으며 아득한 땅을 누가 굽어보며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이연(所以然)을 알아서 이것을 자신에게 돌이키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공께서는 이미 이것을 마음속에 얻고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에 뜻을 부쳤으니, 그 호연(浩然)한 흥취는 진실로 일반인은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변화는 무궁하고 인생은 한계가 있으니,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서 무궁한 변화를 다스리려면,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우리러보는 사이에 천지의 영허(盈虛)하는 이치와 인물의 영체(榮悴)하는 진리를 마음에 경영하여 스스로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산수의 낙(樂)에만 오로지 할 뿐이겠습니까.

이 글은 고봉이 1558년에서 1560년 사이에 쓴 〈면앙정기〉이다³⁶⁾. 면앙정은 송순이 1533년에 처음으로 세웠고 1553년 즈음에 다시 재정비했다. 면앙정은 누정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가단 형성에 토대 기능을 했고 문인들은 산수에서 노니는 흥취를 시로 표현했다. 〈면앙정 30영〉에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그 곳의 경물을 묘사하면서 흥취를 일으키고, 경물과 서정을 동시에 묘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³⁷⁾ 그런데 고봉은 호연한 흥취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천지의 영허하는 이치, 인물의 영체’를 살펴 체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서술했다. 면앙정이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천지 운행의 묘리를 살펴 체득하고 인간의 일까지 사유를 확장하는 학문 공간, 수양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면앙정의 산수를 심미적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학문적 곧 성리학적 깨달음의 대상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1560년 8월 즈음 고봉은 자신의 서재에 존재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면 퇴계에서 글씨를 써 주기를 요청했는데 이때 주자의 무이도가나, 주자시 중 삶과 학문의 경계로 삼을 만한 글을 함께 보내달라고 했다.³⁸⁾ 1570년 4월에 쓴 편지에서는 1570년 4월에 퇴계에서 쓴 편지에 집에서 가까운 작은 언덕에 초암을 새로 지어 지낼 곳으로 삼고자 하는데 조용하게 수양하기에 합당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樂’으로 이름을 걸고자 하니 글자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³⁹⁾ 퇴계는 학문을 닦는 즐거움을 부치는 일이 매우 좋다고 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고봉도 산수 또는 자연에 주자 또는 성리학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고 수양, 학문 연구, 강학 등의 성격을 띤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묘리를 체득하는 즐거움과 기쁨 등을 느끼며 시로 표현해내고자 했다. 퇴계의 도산과 도산잡영은 고봉에게 그 전범이 되었다. 낙암을 통해 도산을 호남 땅에 구현해내고자 했고, 문학을 통해 학문, 수양, 강학 공간에서의 즐거움을 토로하고자 했다. 도산잡영에 대한 화답시는 고봉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계기였다. 고봉은 퇴계에서 시를 보여주하고자 했지만 퇴계가 세상을 떠나는

35) 이민홍,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림파 문학의 일 양상-퇴계, 하서, 고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 한국한문학회, 1982, 27쪽.

36) 이상원,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57쪽.

37) 임준성, 「면앙정삼십영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9쪽.

38) 기대승, 『양선생왕복서』 2권, <答上退溪先生座前>, “大升欲以存名齋。伏乞爲作存齋二大字以惠, 何如。如此中白紙二束封上, 併乞幸於假日揮灑, 或眞或草以惠, 何如。深欲掛諸屏障, 以爲閑中之益耳。武夷權歌及朱子詩中最警切者, 皆可書也。”

39) 기대승, 『양선생왕복서』 3권, <先生前答上狀 判府事宅>, “歸臥一簣, 溫繹陋學, 頗覺有味, 蓬蒿之安, 簞瓢之甘, 亦庶乎可以有也。家近山崖, 新築小庵, 擬爲棲遲之所, 欲以樂字揭其名。蓋緣前書所視貧當可樂之語, 用寓鄙心之所願慕者。山水不深, 眼界周數百里, 屋成而居, 儘合靜修之地, 從事其間, 不無情境助發之趣也。”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1570년에 도산기 발문에서는 ‘나의 구구한 뜻을 조금이나마 나타냈을 뿐 감히 선생의 시와 서로 발명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런데 퇴계 사후 1572년에 도산기 발문에 덧붙여 쓴 글에서 ‘내 말이 비록 천근하지만 만약 지하에서 보신다면 선생께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실 것이다.’⁴⁰⁾라고 했다. 퇴계가 도산서당을 조성하고 시를 지은 뜻을 고봉이 잘 이해하고, 고봉도 그대로 실행하려는 마음을 퇴계가 잘 이해하리라 여긴 것이다. 고봉의 낙암은 강학, 학술토론, 수양의 꿈을 담아내고자 했던 장소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도산잡영 화답시는 누정을 중심으로 흥취, 산수 풍류를 지향하던 호남 문학계에 강학공간 중심의 학문 연구, 수양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문학 풍조를 발흥 시키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3. 고봉의 전사본 『도산기』의 의의

퇴계는 1561년에 <도산기>를 지었는데 곧바로 외부로 전파되었다. 1561년 퇴계가 서울에 가 있는 손자 이안도에게 쓴 편지에 ‘도산기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전파되었으니 비밀스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고,⁴¹⁾ 1562년 봄에 이정(李楨)이 도산서당에 갔다가 헤어질 때 퇴계는 도산기와 도산잡영 30여 절을 보여주었다고 했다.⁴²⁾ 1564년에 이원(李源)에게 쓴 편지에서는 ‘병 중에 시험삼아 적막함을 달래보려고 쓴 것인데 자질들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했다.⁴³⁾ 편지들의 내용에 의하면 1561년에 도산기를 쓴 직후부터 서울의 사대부들도 그 내용을 보았고, 퇴계 자신도 도산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준 듯하다.

고봉은 김취려를 통해 퇴계의 도산기 및 도산잡영을 입수했다. 발문에서 밝혔다.

이 <도산기문> 1편과 곳에 따라 일을 기록한 칠언시 18절(絶), 또 오언잡영(五言雜詠) 26절과 별록(別錄) 4절이 모두 제지(題識)가 있다. 다 선생이 손수 쓴 것으로 간간이 고친 흔적이 있으니, 아마도 맨 처음 초본(草本)일 것이다. 나의 친구 김군 취려(金君就礪)가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면서 이 본(本)을 얻어 돌아왔는데, 이를 마치 남금(南金)이나 화씨벽(和氏璧)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 깨끗하게 장정하여 첩(帖)으로 만들어 두고서 보배처럼 완상해 왔다. 내가 일찍이 김군에게서 이것을 빌려다 구경한 적이 있다. 김군이 내게 말미에 두어 마디 발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⁴⁴⁾

김취려는 서울에서 예안을 오가며 퇴계에게 배웠다. 발문에 의하면 김취려가 가져온 원고를 보면 ‘간간이 고친 흔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초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산기를 쓴 1561년에 이미 이안도에 의해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취려는 도산에서 퇴계가 쓴 도산기 초기 원고를 얻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도산기 및 도산잡영은 목판에 의해 발간되었고 여러 이본이 전한다. 퇴계가 직접 썼다는 퇴계 친필 글씨가 있는 원고와 고봉이 1570년에 쓴 발문, 화답시, 1572년 5월에 서울에서 쓴 글 등을 합쳐서 목판으로 발간한 것, 1573년에 허엽이 쓴 발문까지 합쳐 발간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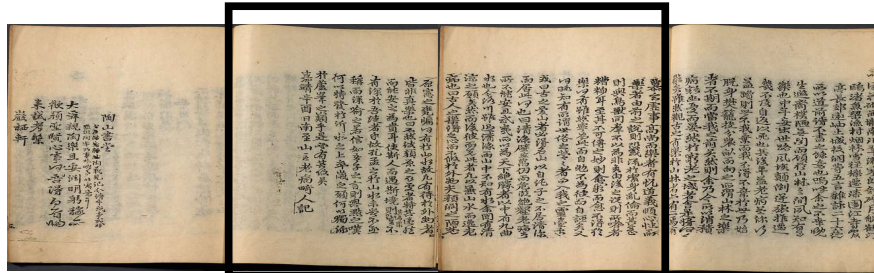
40) 기대승, 『도산기』, “余既爲此詩 欲以呈稟先生未敢 遽寫諸帖 懶慢因循 忽遭山頽之慟 撫玩遺帖 益增悲惋 今適入都 見金君 相與道舊推咽 遂出此帖 書以歸之 抑鄙言雖淺 而亦有意思 如使九原可作 先生必以爲相悉者矣

41) 이항, 『퇴계집 속집』 권7, <答安道孫>, “陶山記, 不意傳播至此, 甚悔不終秘而輕出示人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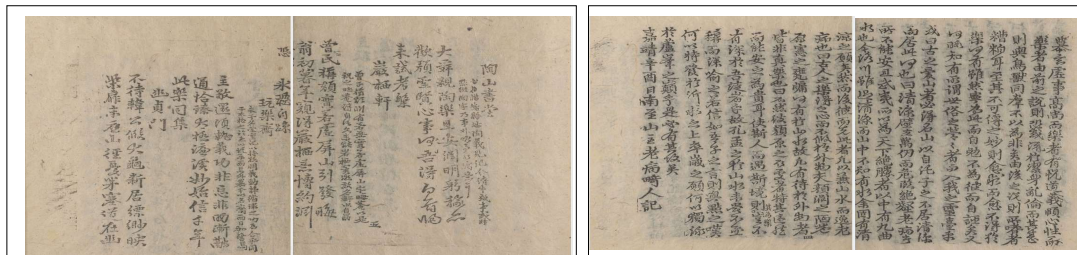
42) 이정, 『龜巖先生文集』 권1 속집, <節友社. 次退溪先生韻. 壬戌>, “壬戌春. 往省先生于陶山精舍. 留三四日. 臨別. 贈之以四絶. 又示以陶山記諸詩詠三十餘絶. 在別錄.”

43) 이항, 『퇴계집』 권12, <答李君浩> “就中所云陶山記者. 偶於病中. 試出戲語. 消遣愁寂而已. 不意子姪輩私相傳示. 致誤播出. 其爲有識嗤點. 何可勝言耶. 今公不以浮淺譴責. 乃反欲云云. 何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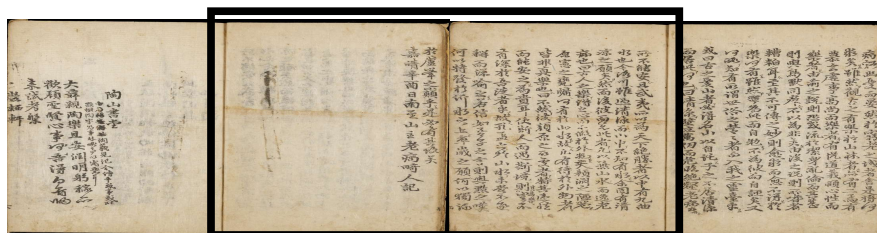
44) 기대승, 『고봉집 속집』 권2, <退溪先生陶山記文跋>, “右陶山記文一篇及逐處記事七言十八絶. 又五言雜詠二十六絶. 別錄四絶. 併有題識. 皆先生所手寫. 間有塗改處. 蓋初間草本也. 余友金君就礪嘗遊先生之門. 得此本以歸. 重之不啻如南金和璞. 裝繕作帖. 以爲寶玩. 余嘗從金君借而玩之. 金君要余出數語跋其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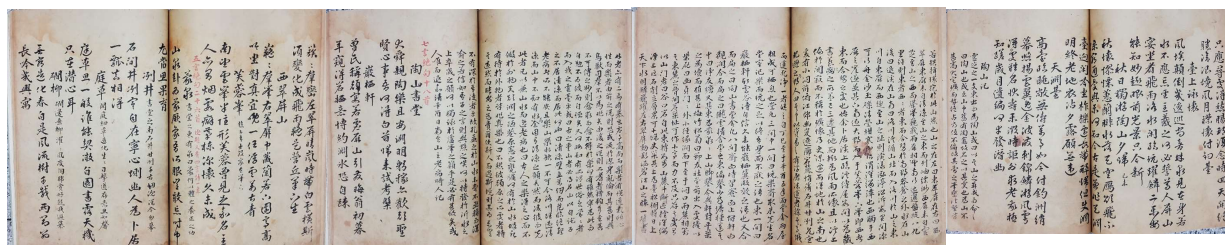
고봉종가 소장본 : 1쪽 12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1쪽 12행. 허엽의 발문이 없음.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허엽 발문이 있는 것도 있음)



규장각 소장본 : 1쪽 10행. 허엽의 발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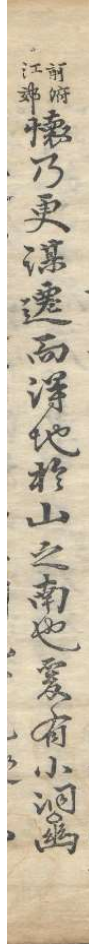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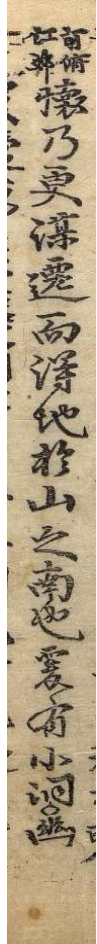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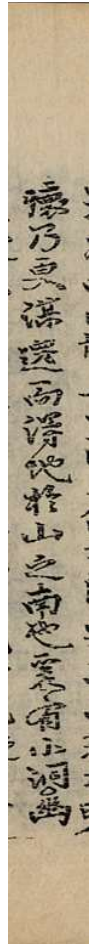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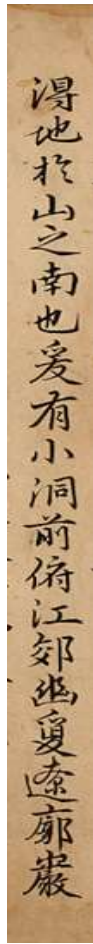
영남대 소장본 : 결표지의 표제는 '퇴계잡영'으로 쓰여 있다. 상하권으로 구성되었고 상권은 '퇴계잡영' 하권은 '도산잡영'이라고 쓰여 있다. 해제에 의하면 퇴계가 1566년 즈음에 쓴 것이라고 한다.

이 앞의 세 이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판각,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봉종가 소장본과 허엽 발문이 없는 것의 출간 시기는 1572년 이후, 허엽 발문이 있는 이본에는 1573년에 발문을 썼다고 한 것으로 보아 1573년이나 그 이후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봉종가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허엽 발문 없는 것)은 퇴계의 도산기, 도산잡영 그리고 고봉의 발문과 화답시, 1572년에 쓴 짧은 글 등이 실려 있다. 허엽의 발문이 있는 규장각본은 퇴계와 고봉의 글 외에 도산기 및 도산잡영 내용에 대해 고증한 내용과 발문이 있다. 허엽은 고증하면서 '一本陶山記'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글자와 내용이 허엽이 본 것과 다른 텍스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 규장각본(허엽 발문이 있는 것), 고봉종가본 등의 경우 도산잡영 맨 첫 번째 시인 도산서당 제목 아래의 세주 부분에 글씨를 썼다가 지운 흔적까지 그대로 보인다. 또한 글 중간에 글자를 지

우고 다른 글자로 쓴 흔적, 빠진 글자 삽입 표시 등이 보인다. 영남대 소장본은 제목 아래에 주석 내용이 없고 빠진 글자 삽입 표시나 글자를 지우고 다른 글자로 대체하라는 표시 등이 없다. 이런 것을 보면 앞의 세 이본은 퇴계가 퇴계잡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원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봉이 발문에서 ‘고친 흔적이 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김취려는 퇴계로부터 얻어 온 첩 말미에 발문 및 화답시를 써 달라고 고봉에게 요청했는데, 김취려가 이것을 갖고 목판으로 출간했을 가능성이 있다.⁴⁵⁾ 퇴계가 직접 쓴 원고이기에 고친 흔적까지 그대로 판각하고 고봉이 쓴 발문과 화답시는 다른 사람이 써서 판각해 출판했을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직접 썼다는 영남대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본들에서 고친 흔적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고봉이 썼다는 도산기 및 도산잡영의 형태는 판각본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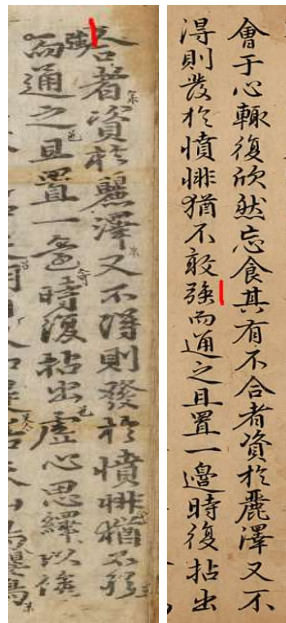
규장각본	국학진흥원 (광산김씨설악당종가)	국립중앙도서관본 (허엽 발문 있는 것)	국립중앙도서관 (허엽발문 없는 것)	고봉종가 소장본	고봉 <도산기>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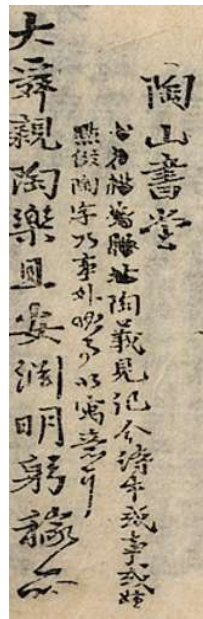
幽자 위에 0 삽입표시가 있고 그 행 위에 ‘前俯江郊’라는 글자가 있다. 고봉이 쓴 도산기에는 이 네 글자가 제자리에 잘 쓰여져 있다.

45) 1913년 이용민이 간행한 『성호보회(姓號譜會)』의 김취려 소개에 ‘도산기를 교정했다(較正陶山記)’는 내용이 있다. 퇴계집을 편찬할 때 도산기 교정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면 그 이전에 김취려가 도산기와 관련하여 출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규장각본(허엽발문있는 것)과 대비한 것이다. (그림1)而자 위에 삽입표시가 있고 强을 넣으라고 했다. 고봉이 쓴 도산기에는 ‘强而通之’ 순서대로 기록했다. 또 (그림2)도산서당 제목 아래 글자를 지운 표시가 있는데 그 글자는 ‘山在禮安縣北’이다. 퇴계의 제자인 매헌 금보는 1568년에 도산기를 베껴 쓰면서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뽑아 본주와 함께 쓴’ 〈도산기고증〉으로 작성했는데⁴⁶⁾ 이 부분에 대해 ‘先生本註。陶義見記。今詩中或事或姓。點綴陶字。乃事外映事以寓意耳.’라고 썼다. 퇴계가 처음에 쓴 주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목판본에서는 6글자가 지워져 있다. 고봉이 쓴 데에는 이 여섯 글자가 없다. 고봉은 원고에서 지워진 글자를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의 경우 내용 개작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규장각본이나 고봉이 쓴 도산기에는 ‘武夷所以爲天下絶勝者 以中有九谷水也’라고 썼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비롯해 장서각, 고봉종가소장본 등에도 모두 동일하다. 영남대소장본에는 ‘樂山樂水缺一不可’라고 쓰여졌다. 금보는 이 부분을 ‘樂山樂水缺一不可’라고 쓰면서 그 옆에 ‘初本作武夷。所以爲天下絶勝者。以中有九曲水也’라고 표기했다. 1573년 허엽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본에는 且아래에 樂山樂水缺一不可也라는 글자 9개가 있고 武夷부터 水까지의 열일곱 글자가 없다.’고 적었다.⁴⁷⁾ 초기 원고에는 무이구곡에 관한 내용으로 되었고 이후 수정했다. 『퇴계집』에도 ‘樂山樂水缺一不可’로 되어 있고, 고종 때 문인인 송환기가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此退翁所以有樂山樂水缺一不可之歎’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내용으로 고정되어 후대까지 전해진 것이다.

시 ‘월정(月艇)’의 경우 규장각본이나 고봉이 쓴 데에서는 ‘寒潭如拭鏡。乘月弄扁舟 九曲羊裘詠。黃岡桂棹秋’라고 되어 있으며, 금보의 고증에서도 ‘九曲羊裘詠’을 쓰고 이 시구에 관해 보충 설명을 했다.⁴⁸⁾ 영남대 본에는 ‘寒潭如拭鏡。乘月弄扁舟。湖老烟波詠。坡仙桂棹秋’로 되어 있고 이것이 『퇴계집』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아울러 『퇴계집』의 소주에 ‘末二句。一本。作九曲羊裘詠。黃岡桂棹秋’라고 설명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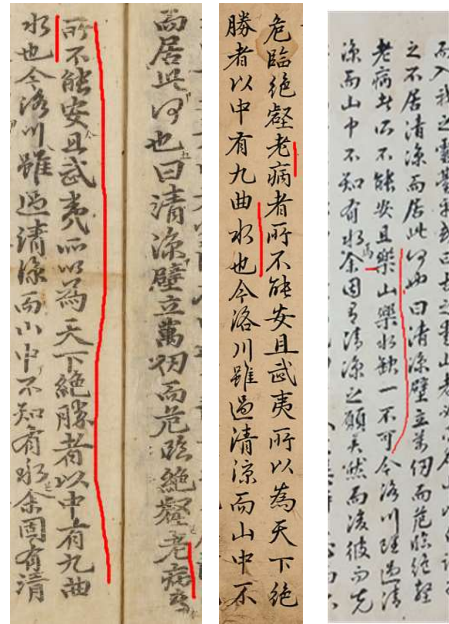
46) 이군선, 「퇴계학과 학문방법에 대한 일고찰-매헌 금보의 도산기고증과 정존재잡고증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37, 2005.

47) 『도산기』(규장각본) “一本陶山記 所不能安且下, 有樂山樂水缺一不可也 九字, 而自武夷至水也十七字 無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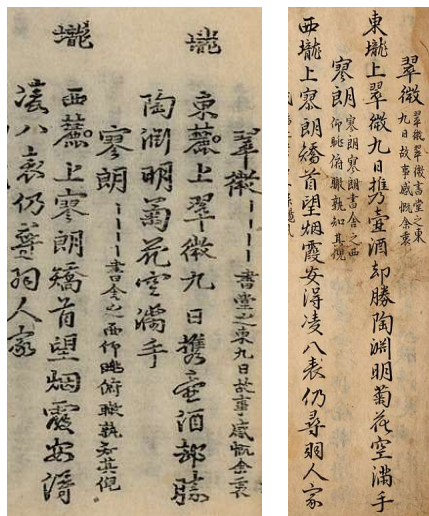
48) 금보, 『매헌집』 권2, 「도산기고증」, “月艇詩。九曲羊裘詠。晦菴在武夷。答劉靜春寄羊裘詩。誰遣羊裘與醉披。故人心事不相違。狂奴今夜知何處。月冷風淒未肯歸。狂奴嚴光之小字也。侯霸邀之。光瞋目不答。久之乃b003_109c曰懷仁寶義國家興。阿諛順從腰領折。霸以白帝。帝笑曰狂奴舊態尚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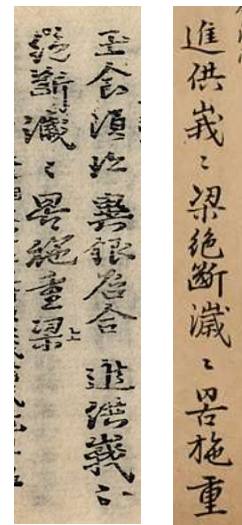
장서각본; 위 여백에 바뀐 내용이 보인다.



〈그림 3〉 왼쪽-규장각본, 중앙-고봉이 쓴 글, 오른쪽-영남대소장본



글자 반복 표시, 麓 대신 壠으로 바꿈 표시.
- 취미, 요량을 글씨로 쓰고, 수정
내용대로 壠으로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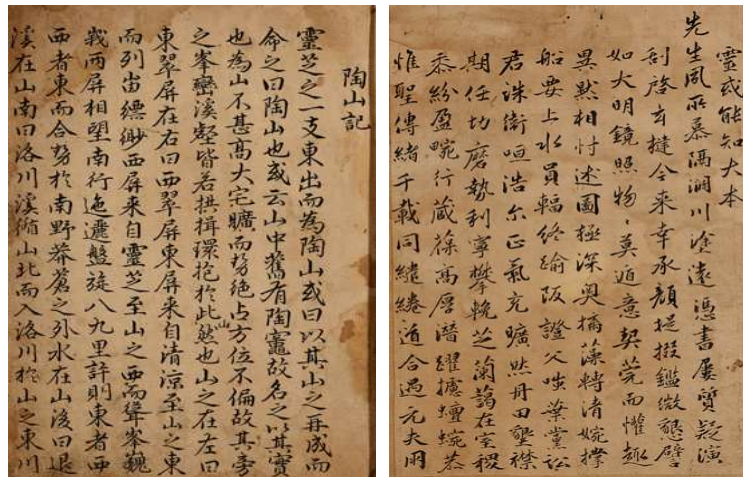


裁裁 다음에 梁 넣음 표시.
-수정 내용에 맞춰 씀

이 외에도 글자의 침입, 교체 표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 사항에 맞춰 썼다. 이처럼 도산기 및 도산잡영은 퇴계가 처음 짓고 나서 여러 곳의 글자를 수정, 삽입하거나 내용을 수정했다. 금보는 스승의 원고를 베껴 쓰면서 초기에 쓰였던 내용을 보충해서 기록했고, 퇴계집을 편찬, 간행한 제자들은 퇴계가 최종적으로 수정 완성하여 남겼던 〈도산잡영〉 내용을 퇴계집에 넣었다.⁴⁹⁾ 고봉이 쓴 도산기 및 도산잡영은 퇴계문집 및 후대 문인들이 인용한 내용과 다르다. 이를 미루어 보면, 퇴계의 도산기와 도산잡영을 고봉이

49) 퇴계의 문집은 1571년부터 정리되기 시작하여 1600년에 출간되었다. 그 사이에 3차례 원고 정리가 이루어졌다. 1579년에 1차 정리본인 初本『퇴도선생집』을 엮었고, 1588년에 조목이 다시 정리한 중초본인 『퇴계선생집』, 1599년에 定本『퇴계선생문집』을 만든 후 1600년에 간행되었다.

전사한 것은 퇴계가 처음 작성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봉이 쓴 『도산기』는 퇴계의 초고(草稿)이면서 초고(初稿)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의의가 있는 텍스트이다. 한편 고봉종가에는 <양선생문답첩>이 있는데 고봉과 퇴계가 주고 받았던 편지 모음첩이다. 여기에 고봉 친필 편지 몇 편이 들어 있다. 또 고봉이 손수 썼다는 『도산기』도 고봉종가에 있다. 그런데 편지와 도산기를 살펴보면 글씨의 모습이 달라보이는 부분도 있어 좀더 면밀하고 다면적 고찰이 더 필요하다.



〈그림 4〉

왼쪽은 고봉이 썼다는 『도산기』, 오른쪽은 고봉의 편지이다. 왼쪽 글씨의 획은 굵기가 거의 일정하고 기울기의 정도가 거의 없다. 오른쪽 글씨는 한 글자 안에서 획의 굵기 변화가 보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높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도산기』	양선생문답첩	고봉서간(신유년): 동아대 소장	고봉서간: 전남대 소장	고봉서간: 전남대 소장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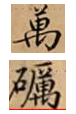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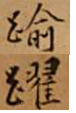
표2는 고봉의 이름 부분이다. 『도산기』에서는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 가로획까지 이어서 쓰고 오른쪽 수직획을 쓴 다음 점을 찍었다. 고봉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왼쪽획들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획을 이어서 쓴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도산기』를 보면 왼쪽의 厂을 쓰는 데에 循 처럼 이어서 쓰는 방식이 일관적으로 나온다. <양선생문답첩>에서는 循 형태로 획과 획 사이에 공간을 두고 붓을 댄다.

『도산기』	後學 不覺	此然也	如使九魚 如今 始分明	何有於山	山水 水在槃	纏繞 縛屋	今通高吟	自得 可得也	怡悅 閑情 曠懷
양선생 문답첩	後學	迥然 曠然	始願 好辯 如仰	毫釐有不察	上水 春水	傳緒 便繞樹	以今 吟玩	得夢 又得	下情 閑趣懷

〈표 3〉

표3은 『도산기』와 〈양선생문답첩〉에 나오는 글자들을 뽑아 비교해 본 것이다. 學, 覺의 윗부분의 경우 『도산기』에서는 왼쪽 수직획을 쓰지 않은 반면 〈양선생문답첩〉에서는 왼쪽 수직획을 반드시 쓰고 있다. 然은 『도산기』 오른쪽 획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붓을 돌려 올리는 순서로 썼고 아래 점을 3개 이어서 쓰는 방식을 취했다. 〈양선생문답첩〉에서는 점 4개를 모두 찍었다.

『도산기』		〈양선생문답첩〉	
	女의 오른쪽획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음		女의 오른쪽 획이 왼쪽획의 높이와 같거나 조금 올라가 있다.
	위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굽고 왼쪽으로 내려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은 후 가로획 위로 올린 후 왼쪽으로 내려 그었다.
	오른쪽의 위, 아래 획을 둥글게 했고, 아래쪽 획은 왼쪽으로 둥글게 그었다.		오른쪽 획 아래 부분이 짧은 직선이며 끝부분에서 힘을 주고 짧게 뻗었다.
	么 획을 세로로 배치하는 방식을 썼다.		么 획의 ㄴ부분이 왼쪽 획의 높이와 같다.
	ㄴ 곁에 내려 그으면서 힘을 주어 마무리했다.		비스듬히 내려 굽고 끝부분에서 힘을 주고 왼쪽으로 붓을 빼는 방식을 썼다.

	 두 획을 보면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길다. 아래의 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등글려서 뻗었다.		두 획 중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다. 아래의 점은 붓에 힘을 주어 점 형태로 찍었다.
	 수직으로 그은 후 오른쪽으로 뻗 모습		수직으로 그은 후 오른쪽으로 조금 갔다가 왼쪽으로 뻗었다.
	ㅅ을 쓸 때 세로획은 왼쪽으로 빼고 세로획의 왼쪽에만 점을 찍었으며, 위치는 가운데 또는 조금 아래쪽에 두었다.		ㅅ의 두 점을 다 썼고 세로획은 아래로 가면서 굽어지고 끝에서 힘을 준다음 오른쪽으로 빼 올렸다.
	왼쪽 ㅂ을 乙과 꺾은 점 형태로 썼다.		위쪽 口획과 이어서 썼다.
	위쪽 왼쪽 획을 ㄴ자 형태로 썼다.		왼쪽에 붓을 대어 힘을 주고 一 형태로 썼다.

〈표 4〉

개인 필적에는 개인 고유의 글자 크기, 기울기, 단어간격, 여백 등이 나타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씨를 쓰기도 한다.⁵⁰⁾ 또한 개인의 필적은 항상성을 띤다. 글씨체는 습관으로 형성되어 규칙적이고 오래된 관습형태로 남는다. 그리하여 개인적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 필적은 항상 자동적, 잠재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¹⁾ 〈양선생문답첩〉의 편지들은 1568년, 1569년에 쓴 것이다. 〈도산기문발〉 내용에 의하면 도산기를 베껴쓰고 시 짓기를 마친 때는 1570년이고 그 뒤에 짧은 글을 붙인 때는 1572년이다. 편지 쓴 때와 도산기 전사 시기가 가깝다. 그런데 두 자료 속 글자가 상이함이 보이고 있어 동일인이 쓴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두 자료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여 좀더 치밀하고 다면적인 고찰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4. 나가는 말

고봉은 20대에 들어서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30대 초반에 퇴계와 사단칠정설을 놓고 논변 활동을 했다. 퇴계는 고봉을 만난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선조에게 추천하면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쉽게 얻지 못할 인물’이라고 했다. 퇴계는 고봉을 자신의 학문 연구의 동반자이며 발전의 촉발자로 인정했다. 이는 퇴계 문하생들 사이에 공인된 사실이었다. 김성일은 만사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참담했지만 그래도 하늘이 버리지 않으셨으니 고봉으로 하여금 그 맥을 잇게 했다.’⁵²⁾ 했다. 퇴계의 학문을 이어받을 책임자로서 고봉을 인정한 것이다. 고봉은 퇴계를 학문의 스승으로 여겨 질정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또한 학문뿐 아니라 퇴계가 도산에 서당을 연 정신을 계승하여 낙암을 통해 호남 지역에서도 성리학 흥성의 공간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퇴계가 보여준 산수에서의 수양, 연구, 강학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문학 풍조도 발흥시켜보고자 했다. 〈도산기〉 전사와 발문, 화답시는 그 실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50) 한상덕, 「성격유형과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필적분석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쪽-6쪽.

51) 김미경, 「한글 필적감정의 시간 및 공간에 따른 형태적 다변성과 희소성 분석」,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2) 김성일, 『고봉집 별집』 부록, <만장>, 斯文竟不幸。吾道將何如。頃歲哭先師。儒林已慘沮。尚賴天未喪。俾公尋緒餘。

〈참고문헌〉

(고봉종가) 『도산기』, 필사본, 목판본.

(고봉종가) 『양선생문답첩』, 필사본.

기대승, 『(국역)고봉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김영두 역,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소나무, 2003.

기대승(저), 행주기씨문헌공중중(편), 한국고전번역연구원(역), 『논사록』, 사람들, 2019.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고영진, 「조선시대 영·호남의 학문과 사상 교류」, 『영남학』 60, 영남문화연구원, 2017, 73-111.

김경호, 「고봉 기대승의 낙향과 삶으로서의 철학」, 『한국인물사연구』 17,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155-185.

김미경, 「한글 필적감정의 시간 및 공간에 따른 형태적 다변성과 회소성 분석」,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신두환,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 미의식」, 『한문고전연구』 41(1), 한국한문고전학회, 2020, 133-177.

이민홍,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람과 문학의 일 양상-퇴계, 하서, 고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 한국한문학회, 1982, 25-44.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5,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5, 247-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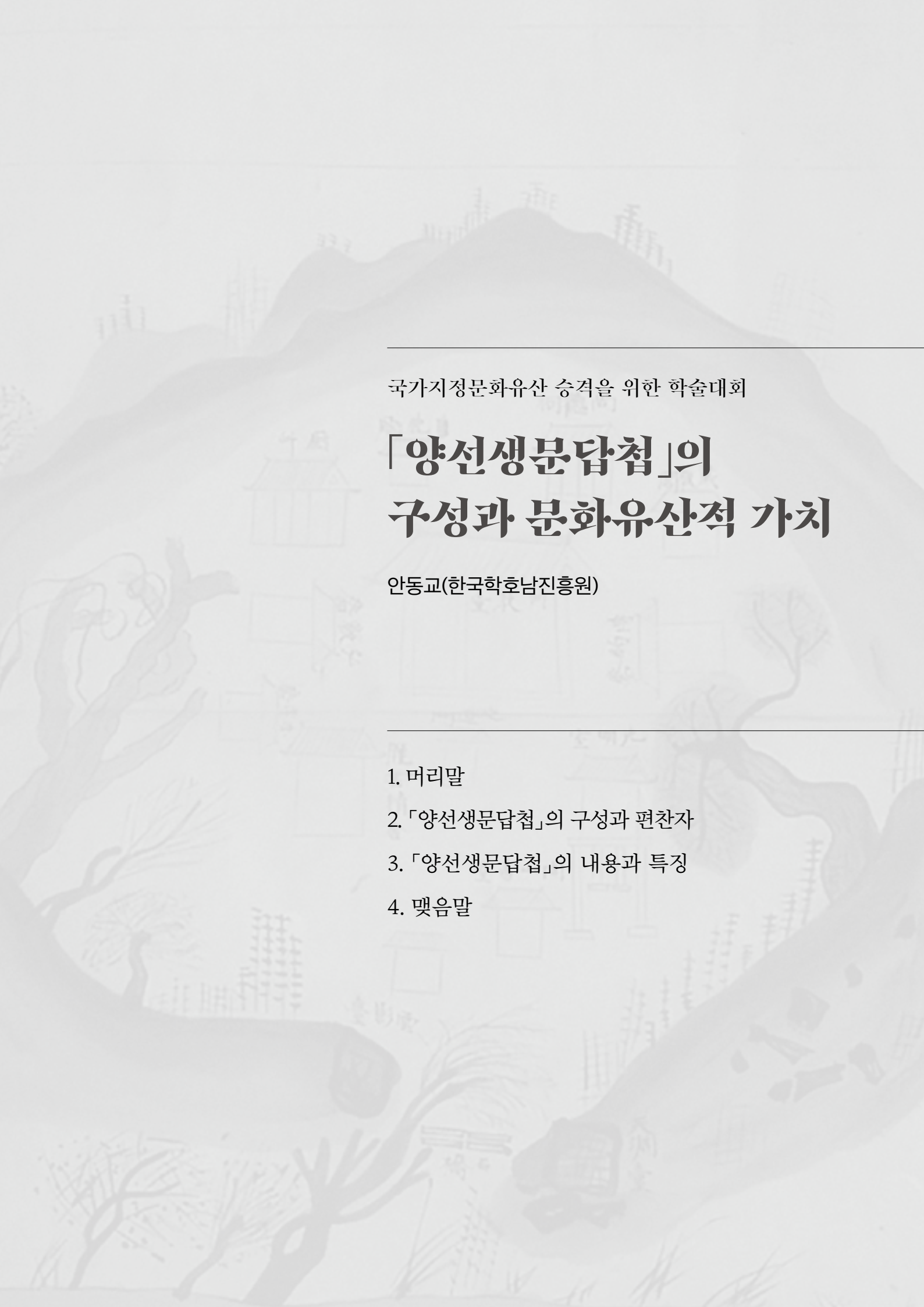
임준성, 「고봉친필본 도산기 해제」, 『고시가연구』 26, 한국고시가학회, 2010, 399-412.

추제협, 「이황의 도산잡영에 그린 도산의 삶과 산수지락」, 『퇴계학논집』 2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8, 221-250.

한상덕, 「성격유형과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필적분석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고봉서간 신유년〉 이미지, 동아대석당박물관 소장,

<https://museum.donga.ac.kr/bbs/museum/1687/53131/artclView.do>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

안동교(한국학호남진흥원)

1. 머리말
2.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편찬자
3. 「양선생문답첩」의 내용과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행주기씨 고봉종가는 조선조 중기에 유학의 큰 스승으로 알려진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학문과 정신을 잇는 집안이다. 고봉종가의 가풍은 맏아들 기효증(奇孝曾, 1550~1616)으로부터 기정현 → 기진열 → 기정후 → 기연관(奇彦觀, 1706~1784) → 기학덕 → 기상익(奇象益, 1757~1820) → 기제국 → 기형수 → 기동교(奇東敎, 1825~1889) → 기정섭 → 기세휴 → 기요석 → 기영환 → 기성근(현재 16대 종손)까지 직계로 계승되어 왔다. 이 종가는 나주 두동(斗洞)과 광곡(廣谷)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기요석 때에 담양 고서로 옮기고 기영환 때에 광주로 이거하였다.

고봉종가 소장 문적은 종가의 역사와 변천에 맞추어 생산·집적·이동·분실의 과정을 거쳤다. 고봉종가에도 한때는 호남 유수의 종가답게 많은 문적이 생산·집적되었으나, 고봉의 손때가 묻은 원 자료는 전승과정에서 대부분 망실되고 겨우 몇 종만 남아있다. 고봉의 수고본 문집은 흔적이 없고, 고봉이 생존 시에 직접 편찬해 두었다는 『퇴계서척(退溪書尺)』도 보이지 않으며, 이기왕복(理氣往復) 편지의 원본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나마 『양선생문답첩』이 종가에 남아있어 고봉과 퇴계의 원본 편지와 시, 그리고 고봉과 교유한 몇몇 유현들의 원본 시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다행이다.

고봉종가의 문적을 일찍부터 눈여겨보고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별한 연구자가 바로 이종일(당시 광주민속박물관장) 씨이다. 그는 1993년에 고봉종가의 전체 문적 중에서 『양선생문답첩』을 비롯한 7종 18점을 선별하여 「고봉 기대승 종손가 소장 문적」이라는 해제를 작성, 『호남문화연구』제22집(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3, 12) 말미에 수록하였고, 나아가 이듬해에 이 모든 문적이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받는 데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고봉종가의 문적들이 정서되거나 번역되어 시리즈로 출간, 보급되었다. 여기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뿐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망라되었다. 『양선생문답첩』은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2013, 도서출판 사람들)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⁵³⁾ 이 책에는 『도산기(陶山記)』, 『선세문서유적(先世文書遺蹟)』 등이 함께 포함되어있다. 정서와 번역은 재야한학자이자 서예가인 박경래(녹양고문연구원장) 씨가 담당하였다.

2018년에는 『양선생문답첩』의 내용을 활용한 「고봉과 퇴계의 사제 동행 -양선생문답첩을 중심으로」라는 박동욱(한양대 교수)의 논문이 『우리 시대의 유학적 삶』(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호남유학총서 5)에 실렸다. 그는 이 논문에서 먼저 『양선생문답첩』의 성격과 의미를 밝혔고 이어서 고봉과 퇴계가 편지와 시를 통해 사제로서 동행하는 모습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려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친 고봉종가의 문적들은 2023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에 기탁되어 정리 중에 있다. 진흥원 관계자들의 설득과 종손의 결단으로 1,100여점에 달하는 고서·고문서·서화·유물들이 기탁되었는데, 앞으로 고봉문집 목판(474매)까지 기탁이 이뤄지면 고봉종가의 자료가 진흥원에 모두 결집되는 셈이고, 이러한 자료들은 결국 고봉과 고봉종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

53) 그런데 이 책은 행, 초서로 된 문서를 정서하는 과정에서 다수 오류를 발생시켰고, 수수(授受) 관계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 실수도 여러 곳에 눈에 띈다. 이 책에서 반드시 수정해야할 곳을 <표2>에 적어 두었으니 나중에 수정 보완할 때 참고했으면 한다.

능케 해줄 것이다.

진흥원은 1차적으로 고봉종가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기록유산으로 승격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검토과정을 거치고, 2차적으로 광주광역시 지정문화재에서 누락된 자료들을 선별하여 시 지정을 서두른 뒤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필자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고봉종가 문적 중에서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자들이 남긴 고봉종가 문적, 그중에서도 『양선생문답첩』에 관한 해제, 정서 및 번역, 논문 등을 참고하면서 문학적 의미 파악보다는 서지적 측면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좀 더 천착할 생각이다.

2.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편찬자

형태상으로 볼 때, 『양선생문답첩』은 낱장으로 보관해 오던 편지와 시, 기타 문서들을 여러 시기에 걸쳐 호접장(蝴蝶裝) 형태로 만든 첩본이다. 크기는 세로 39.5cm × 가로 28cm이며, 모두 25건이다. 앞표지에는 제호가 ‘양선생문답첩 -간독(兩先生問答帖 簡牘)’으로 적혀 있고, 뒤표지에는 ‘양선생문답록(兩先生問答錄)’으로 적혀 있다. 최초로 이 첩본을 만든 편찬자는 앞표지의 제호처럼 적었으나 종가의 후대 인물 중 어떤 이가 뒤표지의 제호를 첨가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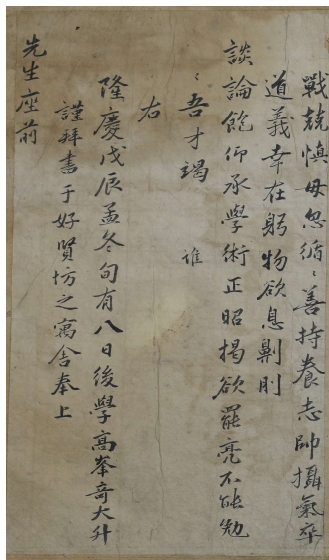


『양선생문답첩』의 앞표지(왼쪽)와 뒤표지(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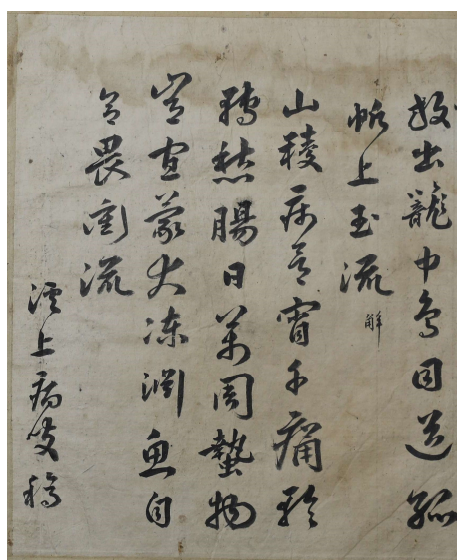
앞표지의 제호 ‘양선생문답첩 -간독(兩先生問答帖 簡牘)’에서 ‘양선생’은 물론 고봉 기대승과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두 선생을 지칭하고, ‘문답첩’은 어떤 주제나 내용에 대해 서로 묻고 대답한 글을 한 곳에 모아 붙여 만든 문서이다. ‘간독’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쪽이나 얇은 나무쪽에 쓴 글씨로 서간·서한·편지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표제어 아래에 두 글자를 작은 글씨로 첨부해 두었다. 최초의 편찬자는 두 선생이 간독으로 문답을 나누었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듯하나, 실제로는 이 첩본엔 고봉과 퇴계, 고봉과 몇몇 유현들과 수창(酬唱)한 시가 편지보다 더 많이 실려 있다.

글씨 형태로 보면, 고봉의 필체는 해서·행서가 주류를 이루면서 초서가 간간히 섞여 있는데 단아하면서도 날렵한 체세(體勢)를 갖추고 있다. 퇴계의 필체는 행서와 초서가 주류를 이루면서 해서가 간간히 섞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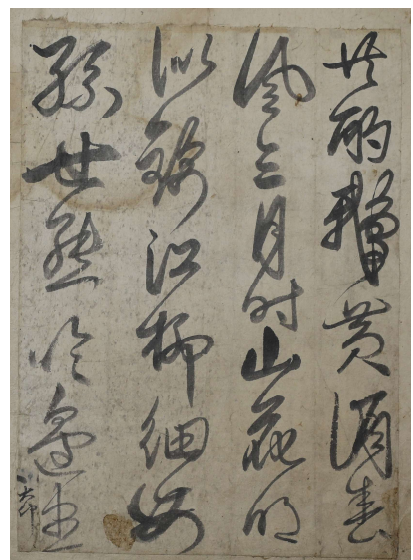
있는데 근엄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준다. 약포(藥圃) 이해수(李海壽, 1536~1599)의 필체는 활달한 초서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풍긴다.



〈고봉 글씨〉



〈퇴계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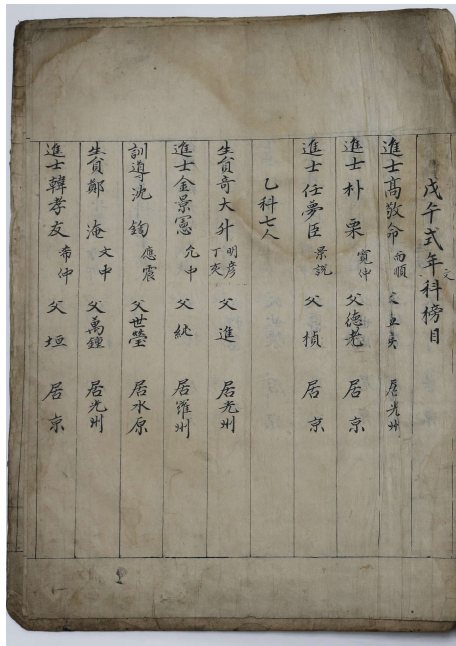


〈약포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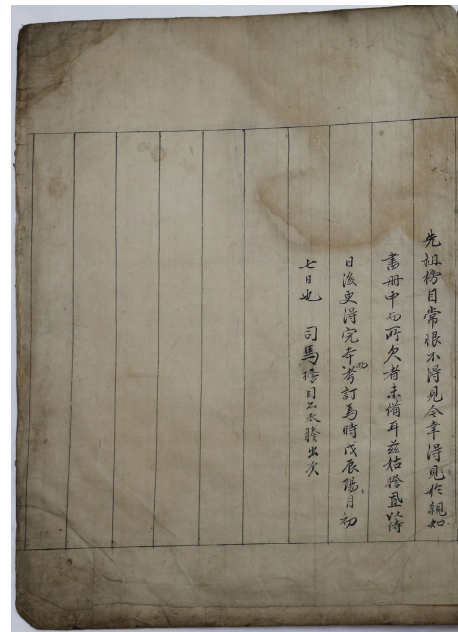
내용상으로 보면, 고봉의 글이 12건, 퇴계의 글이 7건, 기타 6건(정존재 1건, 약포 4건, 미상 1건)이다.⁵⁴⁾ 이 중에서 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편지는 2통, 시는 20수이고, 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편지는 2통, 시는 7수이다. 정존재가 고봉에게 보낸 시는 8수이고, 고봉이 정존재에게 보낸 시도 8수이다. 퇴계가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에게 보낸 시가 1수이고, 고봉이 잠재(潛齋) 김취려(金就礪, 1526~?)에게 보낸 시가 2수이다. 고봉이 약포에게 보낸 시가 2수이고, 약포가 고봉에게 보낸 시가 4수이다. 편지는 도합 4통이고, 시는 도합 52수이다. 이를 통해서 이 첩본에 실린 편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시임을 알 수 있다.

첩본 말미의 「무오식년문과방목(戊午式年文科榜目)」은 고봉이 무오년(1558, 명종13) 식년시에 을과 1위로 급제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무진년 10월 7일에 고봉의 후손이 잃어버린 고봉의 문과방목을 친지의 서책 중에서 발견하여 등사해둔 것이라고 한다.

54) 이종일은 『양선생문답첩』을 “1568년부터 1570년까지 왕복된 서간을 작첩한 책이다.”(「고봉 기대승 종손가 소장 문적」, 168쪽)라고 했는데 편지와 시가 혼재되어 있음을 착각한 것이며, 또 그중에서 “고봉의 것이 15건이고 퇴계의 것이 7건이다.”(같은 곳)라고 했는데 이 또한 고봉의 필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벌어진 오류이다. 박동욱도 “고봉의 글이 13건, 퇴계의 글이 6건, 기타 5건(이담 1건, 노수신 1건, 이해수 3건)이다.”(「고봉과 퇴계의 사제 동행」, 128쪽)라고 했으나 역시 같은 착각을 범하고 있다.



〈고봉의 문과방목 첫페이지〉



〈마지막 발문〉

다음 〈표 1〉은 『양선생문답첩』의 작첩된 순서에 따라 첩본 차례, 원본과 문집 제목의 비교, 작성 시기, 저작자, 수신자, 문집에 수록 여부, 친필 여부를 개략적으로 도표화한 것이다.

첩본 차례	제목(시/편지)	작성 시기	저작자	수신자	문집 수록	친필 여부
1	伏蒙先生俯和鄙韻,感幸之餘,敢復用韻,仰塵盛覽,伏希郢正(원본과 문집 일치. 장편시 2수)	1568년 10월 18일	高峰 奇大升	退溪 李滉	고봉별집 보유	친필
2	奉次退溪先生和示無字韻(문집. 앞쪽에 짧은 편지 있음)	1568년~ 1569년 경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存齋叢錄	친필
3	得見存齋中興洞佳句,秋思難禁,吟和見意,奉呈一笑(원본과 문집 일치)		퇴계	고봉	퇴계집 권5 續內集	친필
4	……前後八韻 ……鄙忱(원본) 仰次退溪先生梅花詩(문집)	1569년 3월 15일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存齋叢錄	친필/ 전사
5	季春,至陶山,山梅贈答,二首(문집)		퇴계	고봉	퇴계집 권5 續內集	친필
6	次韻梅花問答(원본)		靜存齋 李湛	고봉	정존재집 미수록	고봉 친필
7	來詩甚佳,客煩未和,記得寄盧詩錄呈一笑(원본) 寄蘇齋(문집)		퇴계	蘇齋 盧守愼	퇴계집 권5	친필
8	伏蒙先生垂示山梅山翁贈答兩絕,欽想閒趣,懷不能已,敢綴蕪思,伏祈笑鑑(원본과 문집 일치)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친필

9	靜存文丈和示梅花八節,捧玩之餘,輒復用韻,每韻並寓贈答之意,以申鄙懷,今敢錄呈,仰希一粲(원본) 靜存文丈和示梅花八韻,仍復依韻,以申下情(문집)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친필
10	奉別以來,頻得夢中之拜,戲爲一絕,併此仰呈(원본) 夢見退溪先生(문집)	1569년 4월 15일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存齋叢錄	친필
11	伏觀先生次韻靜存送別三絕,輒敢攀和,以效區區 (원본과 문집 일치)	1569년 4월 15일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存齋叢錄	전사
12	奉和頻夢韻(원본) 奉和奇明彦頻夢韻(문집)	1569년 5, 6월경 ⁵⁵⁾	퇴계	고봉	퇴계집 권5 續內集	친필
13	편지	1569년 5, 6월경	퇴계	고봉	퇴계집 미수록	친필
14	편지		퇴계	고봉	퇴계집 미수록	친필
15	편지와 칠언절구 2수(제목 없음)	1569년 7월 21일	고봉	퇴계	고봉집 미수록	친필
16	出城有懷(원본) 又憶前春仰別先生鄙作之韻,因用其韻(원본)		고봉	潛齋 金就礪	고봉집 연보	전사
17	感事(원본) 行到稷山,感懷有述,寄上退溪先生(문집)	1570년 2월	고봉	퇴계	고봉속집 권1 存齋叢錄	친필
18	次韻存字絕句(원본) 陶山暮春偶吟(원본과 문집 일치)	1570년	퇴계	고봉	미수록 퇴계집 권5	친필
19	呼韻(원본과 문집 일치)		고봉	藥圃 李海壽	고봉집 권1	친필?
20	次明彦(원본) 次高峯韻(문집)		약포	고봉	약포유고 권1	친필
21	次友人韻(문집)		고봉	약포?	고봉집 권1	친필?
22	湖堂吟示高峯栗谷松江白麓諸賢(문집) ⁵⁶⁾	1567년 2월 경 ⁵⁷⁾	약포	고봉	약포유고 권1	친필
23	醉草(문집) ⁵⁸⁾		약포	고봉	약포유고 권1	친필
24	湖堂偶吟(문집) ⁵⁹⁾	1567년	약포	고봉	약포유고 권1	친필
25	戊午式年文科榜目	무진년 10월 7일				등사

〈표 1〉

고봉과 퇴계가 주고받은 편지와 시는 1568년(선조1) 10월 18일부터 1570년(선조3)까지 철저하게 연월일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는 편지와 시마다 연월일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본의 표기된

55) 『退溪集』 권18, 書, 「與奇明彦」, 獨和頻夢一絕 并謝扇一絕 錄在別紙 幸發一笑.

56) 『藥圃遺稿』의 제목은 「湖堂吟示高峯栗谷松江白麓諸賢」인데 3수 중 두 번째 시이다.

57) 약포 이해수는 1567년(명종22) 2월에 홍문관 수찬이 되어 湖堂에서 賜暇讀書하였다.

58) 약포 이해수의 시인데 『고봉별집』에 잘못 수록되어 있다.

59) 『藥圃遺稿』의 제목은 「湖堂偶吟」이다. 원본에는 6, 7, 8구가 누락되어 있으나 문집에는 모두 실려 있다.

부분과 추정 가능한 부분을 작성시기별로 나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정존재·소재·잠재와 관련된 시도 고봉 또는 퇴계와 관계 속에서 연월일 순으로 배열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고봉이 약포 이해수와 수창한 시는 일괄해서 말미에다 배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양선생문답첩』은 낱장 편지와 시들을 대충 주섬주섬 모아 엮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 연월일을 고증하여 편찬하고 작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봉종가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은 누구일까. 물론 현전하는 『양선생문답첩』에는 서문도 발문도 없어서 편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다만 만아들 기효증이 지은 「양선생 왕복서 후지(兩先生往復書後識)」에 그 단서가 보일 뿐이다.

선생(퇴계)이 서울에 와서 계신 무진(1568)·기사(1569) 두 해 동안의 짧은 편지는 선인(고봉)께서 모두 편지지에 곧바로 쓰셨으므로 부분(副本)이 없다. 선인의 편지를 선생께서는 틀림없이 없애지 않으셨겠지만 자제(子弟)가 수습할 때 간혹 유실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선인의 짝막한 편지는 없어지고, 홀로 남아 있는 선생의 짝막한 편지는 월일(月日)을 상고할 수 없어 그 차례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권중(卷中)에 합쳐 붙이지 않고, 수필(手筆)을 잘 손질하여 서간(書簡) 4책, 시(詩) 1책을 첩(貼)으로 만들어 가장(家藏)의 보물로 삼아 선인께서 한 자(字)도 버리지 않으신 뜻을 보존하였다.⁶⁰⁾

고봉은 퇴계 사후에 1558년부터 1567년까지 퇴계와 왕복한 편지를 문답한 차례에 따라 편찬하고 『퇴계서척(退溪書尺)』이라 불렀으나, 1568년부터 1570년까지 3년 동안의 편지는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만아들 기효증은 고봉의 뒤를 이어 그 3년 동안의 편지들을 정서하여 전질을 간행코자 했으나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1568년과 1569년에 왕복한 편지는 내용이 짝막하고 연월일도 고증할 수 없어서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에 넣지 못하고 편지와 시를 수필(手筆) 그대로 작첩(作貼)하여 가장지보(家藏之寶)로 삼았다고 하였다. 이 해가 1614년경이다.

『양선생문답첩』에 실린 고봉과 퇴계의 짝막한 편지와 시들이 최초 첩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정확히 고증할 길이 없으나, 이 첩본이 기효증에 의해서 최초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봉과 퇴계가 주고받은 편지와 시는 철저히 연월일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고봉의 측근에서 편지와 시가 왕복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들어본 인물이 아니라면 이처럼 편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3. 『양선생문답첩』의 내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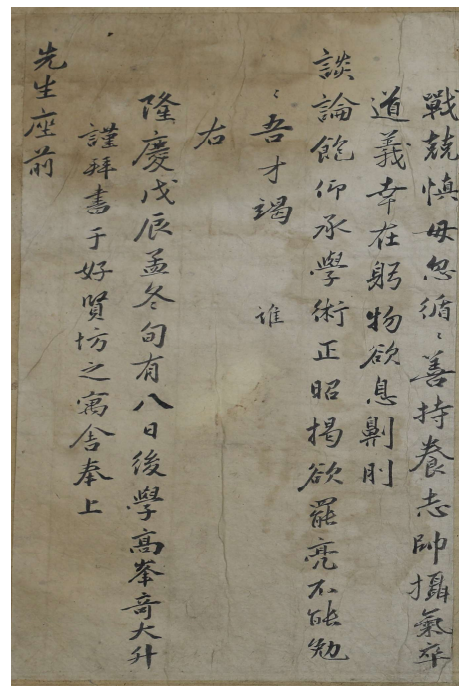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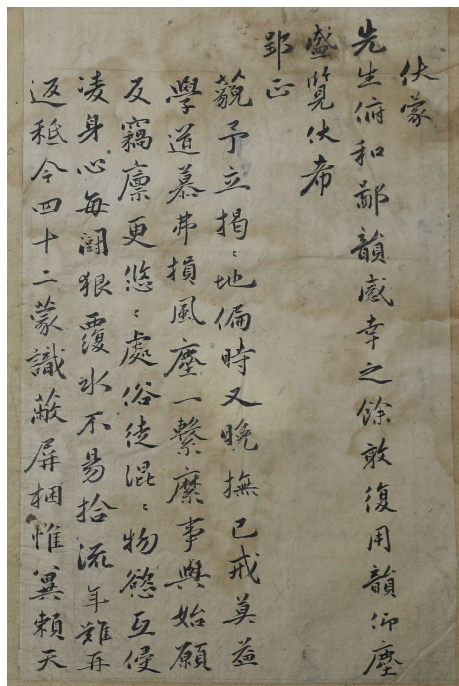
위에서 『양선생문답첩』을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최초 편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양선생문답첩』에 작첩된 편지와 시들 중에서 몇 건을 뽑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차례 1】고봉이 퇴계에게 친필로 써서 올린 오언 장편시 2수이다.⁶¹⁾ 고봉이 42세 되던 1568년(선조1) 10월 18일에 한양 호현방(好賢坊) 우사(寓舍)에서 지은 것이다. 호현방은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일대이며, 고종 때에 회현방(지금도 회현동, 회현역이 있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에 고봉이 한양에서 벼슬살이할

60) 기효증, 『涵齋勤王錄』 참고. 이 글은 『高峰全書』 「兩先生往復書」에도 전제되어 있는데, 작성 시기를 “皇明 萬曆 卽인년(1614, 광해군6) 2월 하순에 후학 덕양 기효증은 단정히 절하고서 삼가 기록한다.”고 밝혔다.

61)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에서는 이 시를 4수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고봉은 문서 중간과 말미에 두 군데 ‘右’자를 써넣어 2수임을 표기했다.

때 거주하던 집이 있었다. 고봉은 이해 4월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7월에 한양으로 들어온 퇴계를 배알하였다. 그리고 8월에 공조 참의에 임명된 고봉이 한양에 머물며 판중추부사로 있던 퇴계(68세)에게 이 시를 올린 것이다. 시지(詩紙)임에도 간지 앞에 융경(隆慶) 곧 명나라 목종 때의 연호를 표기한 것이 이채롭고,⁶²⁾ 퇴계를 ‘선생(先生)’이라 부르면서 자신을 ‘문하생(門下生)’이나 ‘소자(小子)’라 일컫지 않고 ‘후학(後學)’이라 지칭한 것도 특이하다. 후학 다음에 ‘고봉(高峯)’을 쓴 것은 자신의 별호를 썼다기보다는 자신의 뿌리가 고봉현(高峯縣)에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⁶³⁾ 고양덕양행주는 모두 고봉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자가 복건성 우계현(尤溪縣)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조상은 강서성 무원현(婺源縣)에 뿌리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주자의 본관 ‘신안(新安)’은 바로 강서 무원현의 옛 지명이다.



시의 제목은 비교적 길다. 「저의 시에 화답한 선생의 시를 삼가 받고 감사한 나머지 감히 다시 그 운을 써서 번거롭게 살펴보시게끔 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伏蒙先生俯和鄙韻 感幸之餘 敢復用韻 仰塵盛覽 伏希郢正]」⁶⁴⁾ 첫 수는 24운 48구로 구성했고, 둘째 수는 12운 24구로 지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봉은 1558년 문과에 급제한 그 해에 한양에서 처음으로 퇴계를 배알한 뒤 서간과 시를 통해 끊임없이 인간적 유대와 학문적 담론을 나눴다. 그러다가 무려 10년이 지나 다시 배알하게 되었으니 그 감회가 어떠했겠는가. 고봉은 그간의 학문과 환로에 대한 반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앞으로도 퇴계의 도움을 받아 물욕을 절제하여 도의(道義)를 실현하는 성현의 학문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풍진 속에 한번 엇매이고 나니
일이 처음의 바람과 어긋나 버렸네
벼슬길은 더욱 아득하기만 하고

風塵一繫縻
事與始願反
竊廩更悠悠

62) 차례 18에서 퇴계도 연월일 부분에 ‘융경(隆慶)’이라는 연호를 썼다.

63) 차례 4, 10, 15의 연월일 부분에도 ‘高峯’이 보인다.

64) 이하의 제목과 시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역주본을 따랐으나, 어색한 곳은 필자가 임의로 수정하였다.

세속 생활 한갓 혼탁하기만 하네
 물욕이 서로 침범하고 능멸하니
 심신은 매양 싸우고 사나워라
 엇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쉽지 않고
 흐르는 세월은 다시 오기 어려운 법
 지금 나이 이미 마흔둘인데
 몽매한 식견 장애에 막혔네

處俗徒混混
 物慾互侵凌
 身心每鬭狠
 覆水不易拾
 流年難再返
 祇今四十二
 蒙識蔽屏欄

.....

차근차근 지키고 기르기를 잘해야
 장수인 지가 졸도인 기를 다스리네
 도의가 다행히 몸에 있으니
 물욕으로 받는 형벌 종식되리
 담론하며 익히 가르침을 받드니
 학술이 정말이지 밝고도 드높아라
 그만두려 해도 참으로 그만둘 수 없어
 힘쓰고 힘써 나의 재주를 다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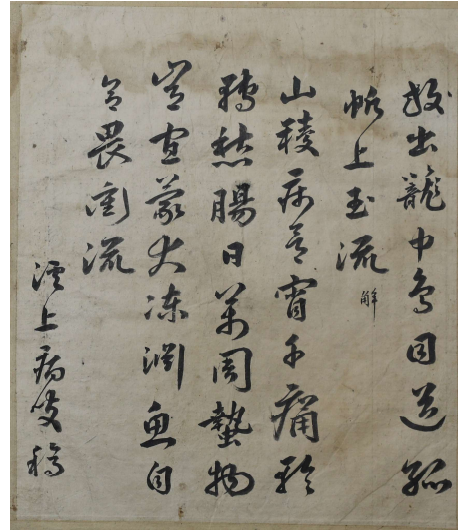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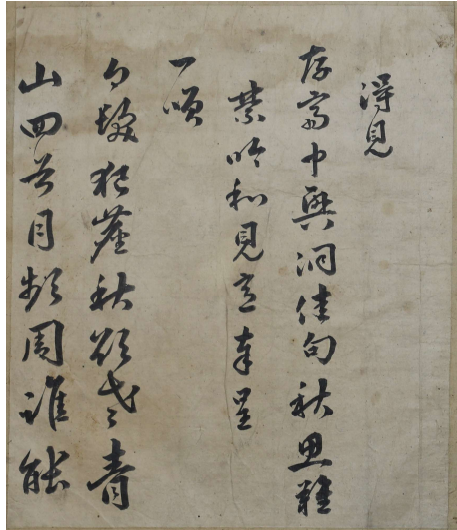
循循善持養
 志帥攝氣卒
 道義幸在躬
 物欲息剗刑
 談論飽仰承
 學術正昭揭
 欲罷亮不能
 勉勉吾才竭

【차례 2】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짧은 편지와 오언율시 1수이다. 피봉에 ‘판부사택(判府事宅)’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계가 한양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직임을 떠던 1568년 8월부터 1569년 3월 사이에 작성되었다. 원본에는 시제(詩題)가 없으나 『고봉속집』 「존재만록(存齋漫錄)」에는 「퇴계 선생이 화답해서 보여 주신 ‘무’ 자 운에 받들어 차운하다[奉次退溪先生和示無字韻]」라고 했다. 서로 시를 수창하면서 시평을 전하기도 하고 개정을 부탁하기도 한 내용이다. 이 시는 고봉이 이전에 지었던 시에서 미진했던 말구를 개정하여 보낸 것이다. 문서 중간에 ‘개본시(改本詩)’ 적 자는 ‘원본 시를 개정했다’는 의미로 후인이 가필한 것이다.

【차례 3】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칠언절구 2수이다. 제목은 원본과 문집의 내용이 일치한다. 「존재가 중흥동에서 지은 아름다운 시구를 얻어 보고 가을 생각을 금하기 어려워 읊어 화답하여 뜻을 드러내고는 이를 부치니 한 번 웃어보게나.[得見存齋中興洞佳句 秋思難禁 吟和見意 奉呈一笑]」 존재(存齋)는 고봉 기대승의 별호이다. 중흥동(中興洞)은 북한산의 서남쪽에 있는 계곡으로, 중흥사(中興寺)가 있던 곳의 주위를 가리키는데 ‘중흥동(重興洞)’이라고도 한다. 계곡이 깊고 경치가 아름다워 시인묵객들이 많이 찾던 곳인데 고봉도 한때 이 계곡을 탐방하고 시를 남겼던 것 같다. 퇴계가 고봉이 지은 이 주옥같은 시를 얻어 보고 가을날의 적막하고 처량한 심정을 가눌 길 없어 화운시를 지어 보낸 것이다. 늘그막에 한양에서 벼슬살이하던 퇴계가 자신을 새장 속에 갇힌 새로 비유하면서 환로를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다. 고봉이 중흥동을 유람하고 지은 시는 현재 『고봉집』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백발은 속세에 머물고 가을은 저무는데
 청산을 둘러보니 세월만 자주 흘러가네
 누가 새장 속의 새를 풀어 주어
 외론 돛단배를 옥류동으로 가게 해줄까

白髮犯塵秋欲老
 靑山回首月頻周
 誰能解出籠中鳥
 目送孤帆上玉流



【차례 4】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칠언절구 8수이다. 제목은 원본의 그 부분이 박락되어 정확히 알 수 없고, 문집에는 「퇴계 선생의 매화시에 우리러 차운하다[仰次退溪先生梅花詩]」라고 되어 있다. 연월일 부분은 후인이 전사한 것인데 1569년 3월 15일에 호현방 우사에서 도산(陶山)의 농운정사(隴雲精舍)로 인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선조는 퇴계를 소명하여 관직을 내렸으나 퇴계는 즐기차게 병으로 사직하고 한직인 판중추부사로 있다가 윤회를 얻어 이해 3월 4일에 하직하고 도성을 나와 6일에 봉은사에서 고봉과 헤어진 뒤 3월 17일에 도산에 당도했다. 따라서 이 시는 퇴계가 당도하기 이틀 전에 발송된 것이다. 벼슬을 탐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퇴계를 한매(寒梅)에 비유하면서 달빛 아래에서 선천(先天) 시대의 순수한 담론을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다.

공은 매화 찾아 고향 산으로 돌아가려는데
나는 영록을 탐해 풍진 사이에 체류하네
향 피우고 닳줄 매는 곳이 어드메나
비바람 어둑한데 홀로 사립문을 닫았노라

公欲尋梅返舊山
我貪榮祿滯塵間
燒香繫纜知何處
風雨冥冥獨掩關

영남의 한매는 바로 적선이라
고고한 향기 나그네 자취가 본연을 보전했네
어찌하면 달빛 아래서 그득한 회포를 열고
복희씨 팔괘 긋기 이전의 이야기를 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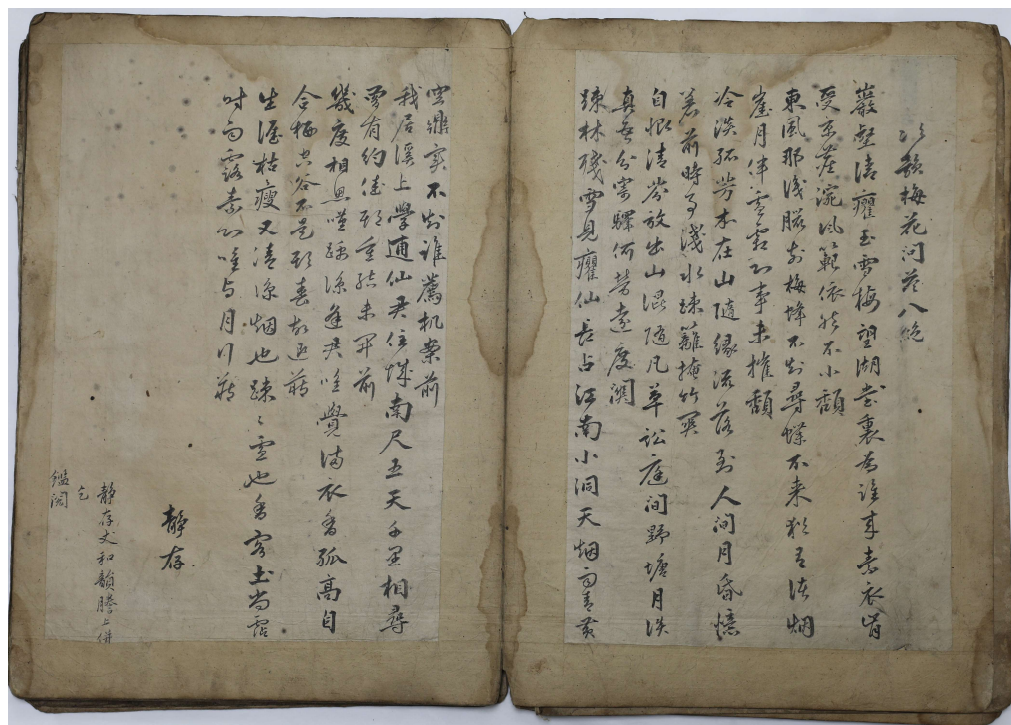
嶺外寒梅是謫仙
孤芳羈跡各全天
何當月下開幽抱
說到羲皇畫卦前

【차례 6】정존재(靜存齋) 이담(李湛, 1510~1574)이 고봉에게 보낸 칠언절구 8수이다. 정존재는 한양에서 고봉과 이웃집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본관이 용인(龍仁), 자는 중구(仲久)인데 환헌당 김굉필의 제자인 서봉(西峯) 유우(柳藕, 1473~1537)에게 배웠고 나중에 정암 조광조와 교유한 처부 경세인(慶世仁, 1491~?)에게도 배웠다. 1538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을 지냈으나 정미사화에 양산(梁山)으로 원방 부처되었다. 선조 때 신원되어 승자병조 참의·부응교 등을 역임했다. 퇴계보다는 9세가 적고 고봉보다는 17세가 많았으나 홍금을 털어놓고 교유했는데 퇴계는 그를 위해 「정존재잡(靜存齋箴)」을 지어주기도 했다. 1568년 12월 6일 야대(夜對)에서 고봉은 선조에게 퇴계는 정주(程朱)의 학문을 독신하는 사람이며 도덕과 문장이 뛰어나니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건의했고, 같은 자리에서 정존재는 “소신이 종종 말년에 이황과 같은 관직에 있으면서 함께 교유도 하였는데 그는 젊을 때부터 표리가 한결같았고, 근자에는 오랫동안 산림에 있으면서 학문을 깊이 하여 공부가 독실합니다. 그를 고인의 누구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옛날 군

자의 도리와 같았으니 이러한 인물을 쉬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추천하였다. 이를 통해 퇴계·정존재·고봉의 관계도 매우 돈독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은 「매화문답에 차운하다[次韻梅花問答]」인데 정존재가 퇴계의 「매화문답」이라는 시에 차운하여 고봉에게 보낸 것을 고봉이 다시 베껴 써서 퇴계에게 올린 것이다. 이 시는 모두 『정존재집』에 누락된 것이다.

봄바람이 어찌 선달 전의 매화를 알라
벌도 찾지 않고 나비도 오지 않는구나
외려 물가 안개와 벼랑 달을 벗 삼으니
눈서리 겪어도 그 심사 꺾이지 않으리

東風那識臘前梅
蜂不知尋蝶不來
猶有渚煙崖月伴
雪霜心事未摧頽



【차례 7】퇴계가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에게 보낸 오언율시 1수이다. 『퇴계집』에는 제목이 「소재에게 부치다[寄蘇齋]」라고 되어 있으나, 원본에는 「보내온 시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객지에서 번잡한 일로 화답하지 못했는데 소재에게 부칠 시가 기억나 적어 보내니 한 번 웃게나[來詩甚佳 客煩未和 記得寄盧詩 錄呈一笑]」이다. 이에 대해 소재는 「도수 선생에게 수답하다[酬陶叟先生]」라는 시를 지었는데 원본은 없고 『소재집』에만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시를 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시라든가 소재가 지은 시라고 보는 것은 고증의 잘못이다. 아래에 퇴계와 소재의 시를 차례대로 배열하였다. 퇴계가 학문은 마음을 비워서 얻는 게 귀중하다고 한 데 대해 소재는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이로 인해 잡념이 더 자라게 되니, 비우는 것보다 체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벼슬 사직하고 공은 먼저 떠났는데
당연히 떠나야 할 나만 홀로 남았네
임금과 부모를 맘속에 늘 잊지 못해
천지간에 그리운 생각 그지없으리
학문은 맘을 비워 얻는 게 귀하거니와
명예는 귀 가리고 흠치는 게 수치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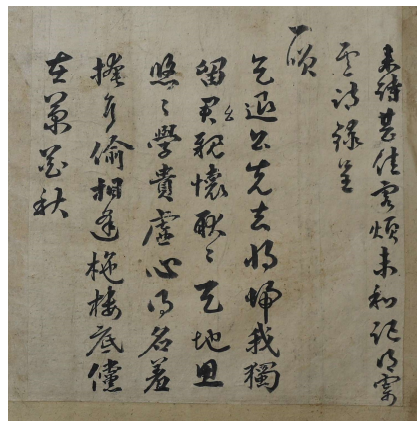
乞退公先去
當歸我獨留
君親懷耿耿
天地思悠悠
學貴虛心得
名羞掩耳脣

한강 배 봉창 아래 서로 만날 날
국화 피는 가을에나 있게 될는지

相逢柁樓底
倘在菊花秋

소자는 끝내 한나라로 돌아왔고
장공은 이미 유후로 만족했다고
이별의 아픈 회포 늘 슬프거니와
똑같은 우리 도는 갈 길이 멀기만 하네
욕심을 적게 함이 참으로 주를 높임이요
비우기만 하면 도득을 부를까 염려로다
모름지기 자득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
바둑 배움에 어찌 혁추의 말만 전념하라

蘇子終還漢
張公已足留
別懷長惻惻
同道只悠悠
寡欲眞尊主
徒虛恐引偷
須要有自得
聽奕豈專秋



【차례 9】고봉이 퇴계에게 적어 올린 칠언절구 8수이다. 이 시는 정존재가 퇴계의 「매화문답(梅花問答)」이라는 시에 차운하여 고봉에게 보낸 것을 고봉이 다시 화운하여 퇴계에게 올린 것이다. 원본의 제목은 「정존 문장이 화답해준 매화시 절구 8수를 음미해본 끝에 다시 그 운자를 이용해 짓되 매 운마다 나란히 증답하는 뜻을 붙여 저의 마음을 펴는데 이제 감히 적어 보내니 한 번 웃으시기 바랍니다[靜存文丈 和示梅花八絕 奉玩之餘 輒復用韻 每韻竝寓贈答之意 以申鄙懷 今敢錄呈 仰希一粲]」인데, 『고봉전서』에는 제목이 「정존 문장이 매화시 여덟 수를 화답해 보여 주었으므로 다시 그 운에 따라 내 뜻을 말하였다[靜存文丈和示梅花八韻 仍復依韻 以申下情]」라고 되어 있다. 고향 동산에 핀 매화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고 싶다는 소원을 내비치고, 아울러 맑고 찬 매화향기를 맡으면 뼈에 사무쳐 영혼까지 맑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에서 고야(姑射) 신선은 '매화'에 비유되는데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막고야의 산에 선녀가 있는데 피부가 하얗고 윤택하여 옥설(玉雪)과 같다.”고 한 데서 유래했다.

멀리 남쪽동산 떠올리니 나무마다 매화겠지
흰 눈 앞에서 누가 그윽한 향내 맡고 오나
나도야 세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니
초가집 대나무 울엔 오히려 남아 있으리라

遙憶南園樹樹梅
雪前誰嗅暗香來
餘生歲暮當歸去
茅屋篁籬尚未頹

달빛 아래서 고야 신선을 서로 만나
향내 맡으며 세 번 돌고 푸른 하늘 바라보네
맑고 차가움이 뼈에 들어 영혼도 깨끗하니
한 기운이 깊고 고요하여 태고와 같구나

月下相逢姑射仙
嗅芳三匝望青天
清寒入骨髓靈瑩
一氣冲然太古前

【차례 10】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칠언절구 1수이다. 1569년 4월 15일에 한양에서 지어 도산으로 보냈는데 토한 명나라 연호를 적고 자신을 후학(後學)이라고 했다. 원본 제목은 「작별한 뒤로 자주 꿈속에서 뵈니 장난삼아 절구 1수를 지어 함께 보내 드립니다[奉別以來 頻得夢中之拜 戲爲一絕 竝此仰呈]」라고 했는데, 『고봉전서』에는 「꿈에 퇴계 선생을 뵈다[夢見退溪先生]」로 되어 있다. 차례 12가 바로 이 시에 대한 퇴계의 화답시이다. 이 시의 끝 구절에서 ‘선생께서 매화에만 집착 않으심 알겠구나’라고 표현한 것은 작별하기 전에 퇴계가 “도산의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으니 지금 돌아가면 필 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자, 고봉이 “산림에 집착하는 것도 성곽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서로 해학하며 웃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다.⁶⁵⁾

지난밤에 어렴풋이 선생을 뵈었고
오늘밤도 진실하게 담소를 나누었네
세상을 걱정하시는 한 생각이 또렷하니
선생께서 매화에만 집착 않으심 알겠구나

前夜依稀杖屨陪
今宵款曲笑談開
分明一念猶憂世
可識先生不著梅

【차례 11】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칠언절구 2수와 오언절구 1수이다. 1569년 4월 15일에 한양에서 안동으로 보낸 것인데, 제목은 「선생께서 정존재의 송별시 절구 세 수에 차운하는 것을 삼가 보고 문득 화답해서 구구한 정성을 바치다[伏觀先生次韻靜存送別三絕 輒敢攀和 以效區區]」이다. 정존재는 퇴계가 사직하고 안동으로 향할 때 광나루(廣津)에서 퇴계를 송별하면서 절구 3수를 지어 석별의 정을 나타냈다. 퇴계가 여기에 차운시를 남기는 것을 보고 고봉도 화답시를 지어 퇴계에게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고봉의 친필이 아니라 8대 종손 기상익(奇象益)이 전사한 것이다.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본이 없어지고 전사본을 붙이게 된 경위를 짚막하게 적어두었다. “이 시편은 경상도 진주에 사는 박 광양(朴光陽)의 5대손 천건(天健)이 빌려갔다. 1805년 10월 4일에 8대손 상익이 등사하여 붙여둔다.” 그런데 광양 현감 박 아무개의 5대손 박천건이 빌려갔다는 이 시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의 원본이 현재 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근묵(槿墨)』113번째에 들어 있다. 『근묵』은 위창 오세창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한국의 인물 1,306명의 친필로 이루어진 시와 간찰을 수집하여 편찬한 총 34책의 서첩인데 2023년 6월에 보물로 승격, 지정된 바 있다. 이 세 수의 시에서 고봉은 ‘태평하면 나가고 혼란하면 물러나는’ 퇴계의 출처(出處)야말로 진정한 퇴휴(退休)라고 보았다.

작별한 뒤 회포가 너무도 그윽하여
가는 구름 끝까지 바라봐도 돌아오지 않네
이웃 노인 우연히 찾아와 시편을 헤쳐 보니
암담한 시름 이 때에 참기 어려워라

別來懷抱太幽孱
望極飛雲去不還
隣老偶尋披寶唾
黯然愁緒此時難

봄바람 호탕할 제 돌아가는 배 보내니
푸른 벼랑 오를 수 없고 흰 해도 흘러가네
하나의 본체는 가함이 될 수 없으니
백 년에 진휴를 얻음 혼연히 깨달았네

春風浩蕩送歸舟
靑壁無梯白日流
一體不應成假合
百年渾覺得眞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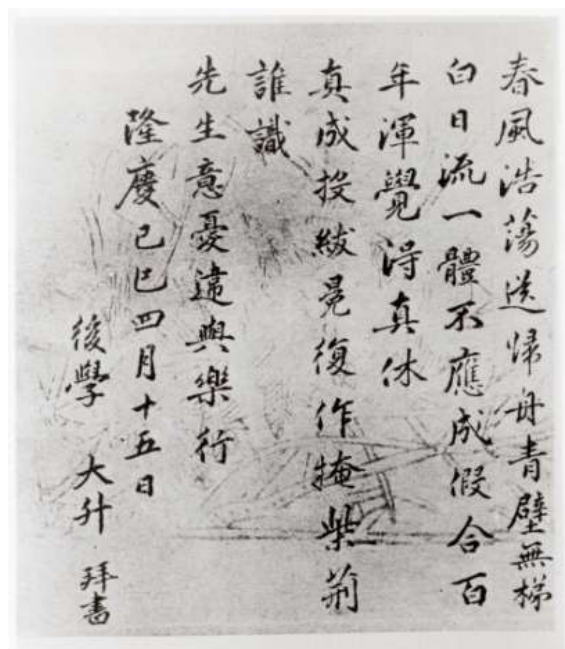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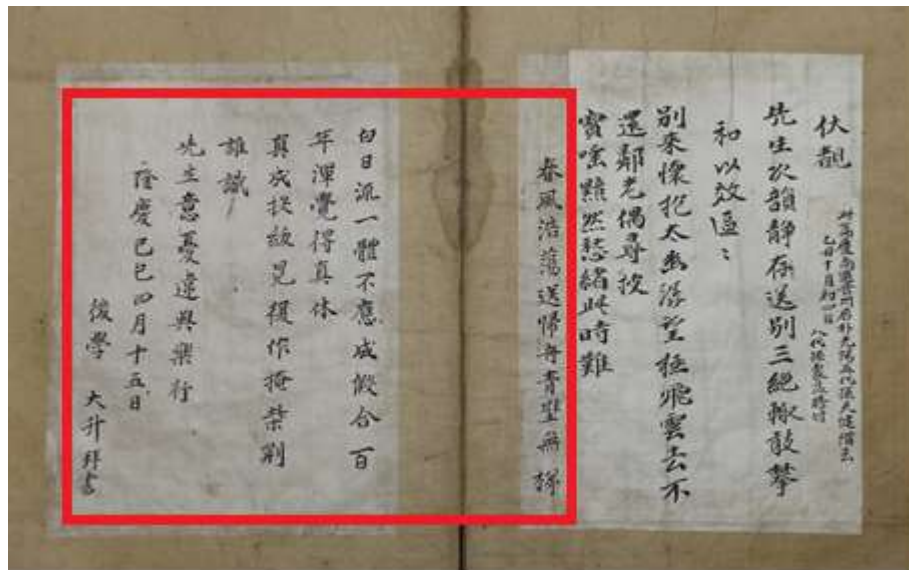
참으로 벼슬살이를 던져두고
다시 가시나무 사립문 단계 되었구려

眞成投綬冕
復作掩柴荆

65) 『高峰續集』 권1, 「存齋謾錄」, 先生嘗說陶山梅花尚未開 今歸及其開時云 大升以爲著山林 何異著城郭 相與諧笑 故末句云云.

누가 알겠는가 선생의 뜻이
태평하면 나가고 혼란하면 물러나는 것임을

誰識先生意
憂違與樂行



〈『근목』속의 고봉 필적〉

【차례 13-14】퇴계가 고봉에게 보낸 편지 2통이다. 모두 연월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찰(短札)인데 《퇴계집》에도 누락되었다. 퇴계·정존재·고봉 사이에서 수창된 시들에 대한 품평이 주류를 이룬다. 보낸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차례 13에 나오는 ‘사선시(謝扇詩)’라는 용어와 다음에 인용한 편지에 동일한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569년 6월경 편지로 볼 수 있다. “보내신 여러 시(詩) 도합 15절(絶)과 <정존시(靜存詩)> 8절은 모두 매우 사랑할 만하여 깊은 감사와 부끄러움을 말로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모두 나의 시구(詩句)에 화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다시 번거롭게 화답하여 마치 서로 많이 짓기를 겨루는 것처럼 할 수 없어 다만 <빈몽시(頻夢詩)>에 화답한 1절과 아울러 <사선시(謝扇詩)> 1절을 별지에 기록하였으니, 한번 웃어 주기 바랍니다.

기사년(1569) 6월 7일 이황 돈수(頓首).”⁶⁶⁾

【차례 15】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답장 1통과 칠언절구 2수이다. 1569년 7월 21일에 한양에서 작성하여 안동으로 보낸 것인데 여기에도 연월일 부분에 용경(隆慶)·후학(後學)·고봉(高峯)이라는 용어가 모두 보인다. 승정원 좌승지 시절에 임시로 머물던 작은 누각이 앞이 확 트여 동남쪽(퇴계가 있는 도산)을 바라보기가 좋았으나 매번 가르치르는 구름이 시야를 가려 한스러워하던 차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면서 감회를 시로 표현했다고 하였다. 이 편지와 시들은 현재 고봉의 문집에 실려 있지 않다.

【차례 17】고봉이 퇴계에게 올린 칠언절구 1수이다. 원본의 시제는 「어떤 사건에 느낀 바 있어[感事]」인데, 『고봉전서』에는 「직산에 이르러 감회를 써서 퇴계 선생께 올리다[行到稷山 感懷有述 寄上退溪先生]」라고 되어 있다. 고봉은 이 시를 짓게 된 이유를 시의 끝에 기록해 두었다. “위의 시 한 수는 길에서 지은 것이다. 도성에서 나올 때 술을 마시고 방광(放狂)하였으므로 후회를 금치 못해 이 시를 써서 자책한 것이다.” 고봉은 1570년 2월에 귀향길에 올랐다. 고봉이 대사헌으로 재직할 때에 대신의 비위에 거슬린 데다 구신(舊臣)의 비난까지 받게 되자, 퇴계는 장남헌(張南軒, 송나라 장식(張栻))이 당시 재상 우윤문(虞允文)과 어긋나자 벼슬을 그만두었던 고사를 들어 경계하였다. 마침내 고봉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나주로 돌아가 산 속에 집을 짓고 학도를 모아 학문을 강론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고자 하였다. 혹자가 왜 소장을 올려 그대의 충성을 밝히지 않느냐고 묻자, 고봉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말해야 할 일은 경연 석상에서 이미 다 진달하였다. 나는 더 이상 쓸데 없는 말을 하여 명예를 얻고 싶지는 않다.”⁶⁷⁾ 조선조에 명망 있는 벼슬아치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도성 안의 관청에서도 도성 밖의 관청에서도 술상을 마련하여 대접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한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거나하게 취하여 거친 말을 쏟아내던 고봉은 직산에 이르러서 반성하는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차례 18에 고봉의 시에 차운한 퇴계의 시가 나오는데, 술로 인한 말실수를 다스리려면 고졸(古拙)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좋다고 처방하였다. 위의 시는 고봉이 지은 것이고, 아래 시는 퇴계가 차운한 것이다.

존재라는 호를 걸고도 보존 못하니
예사로운 뉘우침을 누구에게 말할꼬
안타까워라 지나치게 분방한 기운 타고나
곳곳마다 모난 것이 본성을 혼드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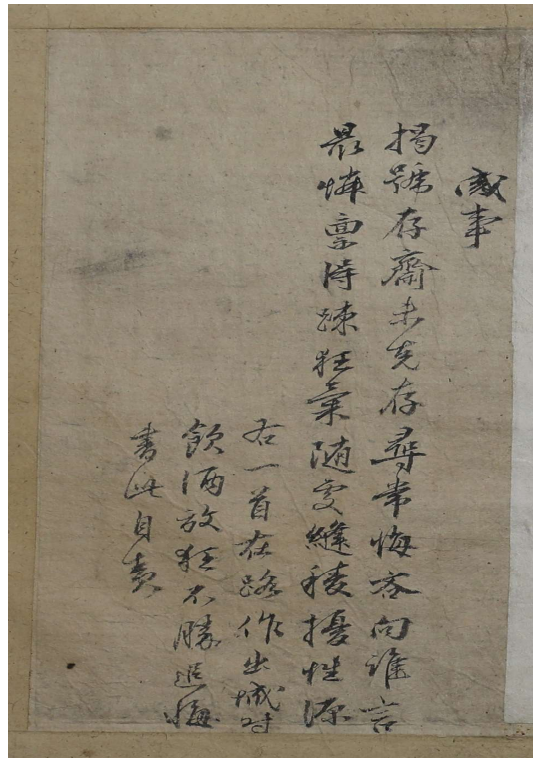
揭號存齋未克存
尋常悔吝向誰言
最憐稟得疎狂氣
隨處縫稜擾性源

고졸하면 도가 보존될 수 있나니
술에 취해 장황하게 말하지 말게나
늙은이가 마음 다스릴 약 드리려는데
입엔 쓰나 되려 장수의 근원 기른다오

用拙由來道可存
莫將狂藥抵煩言
老生欲獻醫心劑
苦口還能養壽源

66) 『高峯全書』, 「양선생왕복서」 제3권, ‘令前上書 奇承旨宅’. 같은 내용이 『退溪集』 권18, 「與奇明彦」에도 실려 있는데 발송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

67) 『선조수정실록』 3년 경오(1570) 2월 1일 기사 참고.



【차례 19】고봉이 약포 이해수(1536~1599)에게 준 오언율시 1수이다. 약포는 본관이 전의(全義)이고 자는 대중(大仲)이며 영의정 이탁(李鐸)의 아들이다. 그는 고봉보다 9년 늦게 한양 호현방 타락동(駝駱洞)에서 태어났다. 1563년 알성 문과에 급제한 뒤 1567년에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응교·대사간·도승지·대사간이 되었다가 1594년에 대사성을 거쳐 부제학에 이르렀다. 약포는 고봉의 호현방 우사와 이웃하는 마을에서 살았고 조정에서도 동료로 지내기도 하였다. 이 시지(詩紙)의 글씨는 지금까지 보아온 고봉의 필체와는 거의 닮지 않았다. 그리고 시지의 첫머리에는 ‘호운(呼韻)’이라는 글자가, 끝부분에는 ‘명언(明彦)’이라는 글자가 다른 필체의 작은 글자로 적혀 있다. 현재 『고봉전서』에는 첫머리에 가필한 글자를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 「운자를 부르다(呼韻)」로 표기했다. 이 시는 고봉이 늦봄에 동호(東湖)에서 약포와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논한 흥취를 표현한 것이다. 술이 얼큰해지자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혀 신선이 되는 듯한 우화등선(羽化登仙)의 느낌을 표출한 것도 흥미롭다. 차례 20에 고봉의 시에 차운한 약포의 시가 나오는데, 시지의 첫머리에는 ‘차명언(次明彦)’이라는 글자가, 끝부분에는 ‘대중(大仲)’이라는 글자가 작은 글자로 적혀 있다. 현재 『약포유고』에는 시제가 「고봉의 시에 차운하다(次高峯韻)」로 되어 있다.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에서 이 시를 고봉의 시로 본 것은 끝부분에 적힌 ‘대중(大仲)’을 ‘대승(大升)’으로 오독한 때문이다. 그리고 원 시를 정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군데 오류가 보인다. 위의 시는 고봉이 지은 것이고, 아래 시는 약포가 차운한 것이다.

늦은 봄에 호수 위에 모이니
좋은 일 옛사람 따를 만하네
시를 논하며 우선 흥을 일으키고
술을 마시며 함께 복을 빌었네
술 얼큰하니 내 신선이 되려는가
두 겨드랑에 날개가 돋친 듯하여라

暮春湖上集
勝事可追古
論詩且發興
酌酒共薦祐
酒酣我欲仙
兩腋如生羽

푸른 물결 아득히 눈에 보이는데
배 한 척 연우 속에 희미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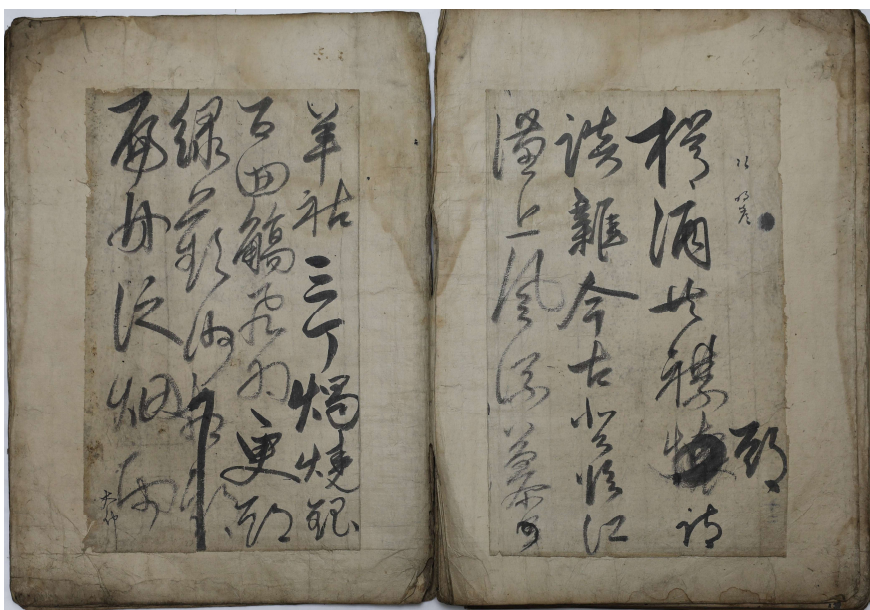
蒼波渺在眼
一舸迷烟雨

술동이 앞에서 흥금 떨어놓고
고금의 시들을 담론한다네
한강 가에 올라 굽어보며
양호의 풍류를 흠모하네
세 자루 은촉을 다 태워가며
백 잔 술을 서로 권하노라
다시 푸른 마름 물가를 기약하며
일엽편주를 안개비 속에 띄우네

樽酒共襟期
詩談雜今古
登臨江漢上
風流慕羊祜
三丁燭燒銀
百回觴飛羽
更期緣蘋洲
扁舟泛煙雨



〈고봉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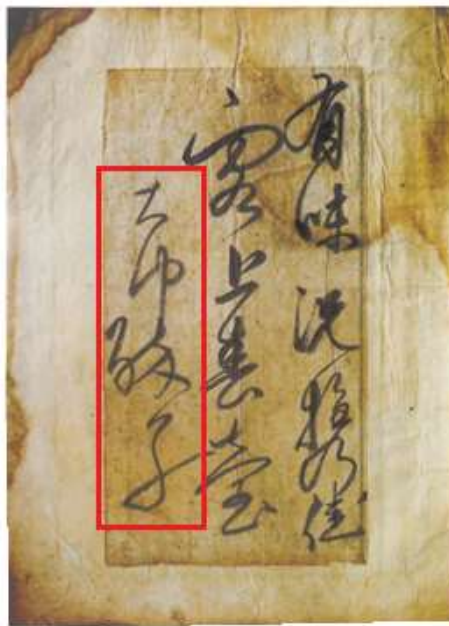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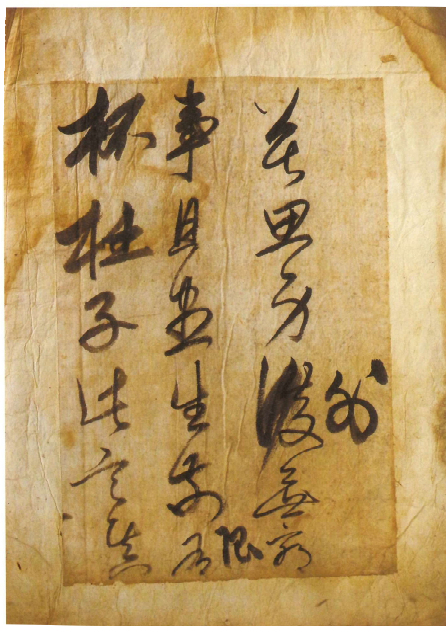


〈약포의 시〉

【차례 23】약포가 고봉에게 보낸 칠언절구 1수이다. 원본에는 시제가 없으나 『약포유고』습유록에는 「취하여 쓰다[醉草]」로 되어 있다. 원본 시지(詩紙) 끝에 적힌 ‘대중취초(大仲醉草)’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에서는 이 시를 고봉의 시로 보았는데 ‘대중취초(大仲醉草, 대중이 취해서 쓰다)’의 초서를 ‘대승취자(大升醉子, 취객 대승)’로 오독한 때문이다. 똑같은 실수로 이 시는 『고봉별집』의 보유편에도 실려 있다. 이 시의 첫 구와 둘째 구는 두보(杜甫)의 「만흥(漫興)」곧 “이월은 벌써 다해가고 삼월이 돌아오니, 늙어 가는 내가 앞으로 봄을 몇 번이나 만날는지. 이 몸 밖의 무궁한 일일랑 생각지 말고, 우선 생전의 유한한 술잔이나 다 마셔보세.[二月已破三月來 漸老逢春能幾回 莫思身外無窮事 且盡生前有限杯]”에서 셋째 구와 넷째 구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두보의 시도 맛이 있거니와 더구나 아름다운 손님과 함께 날씨가 좋은 봄날에 누대에 올라 좋은 경치를 바라보니 흠뻑 취하고 싶었을 것이다. 약포와 고봉의 호방한 기풍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이 몸 밖의 무궁한 일일랑 생각지 말고
우선 생전의 유한한 술잔이나 다 마셔보세
두보의 이 뜻이 참으로 맛이 있는데다
더구나 가객을 끌고 춘대에 오름에라

莫思身外無窮事
且盡生前有限杯
杜子此意真有味
況携佳客上春臺



4. 맺음말

서두에서 밝혔듯이, 발표자는 고봉종가에서 작첩된 『양선생문답첩(兩先生問答帖)』을 문학적 측면보다는 서지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이는 국가 문화유산 승격을 위해 먼저 거쳐야 할 검증과정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자료의 유래와 성격, 내용과 가치 등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양선생문답첩』은 1614년경에 고봉의 맏아들 기효증이 날장으로 보관해 오던 편지와 시, 기타 문서들을 작성시기별로 배열하여 첩본으로 만든 것인데, 문과방목 등사본을 제외한 24건의 문서들은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정존재 이담·소재 노수신·잠재 김취려·약포 이해수와 관련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고봉과 퇴계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편지나 시를 통해 인간적 유대와 문학적 토론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하여 『양선생문답첩』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양선생문답첩』에 수록된 원본 자료가 모두 개별 문집에 수록된 것은 아니다. 차례 6은 『정존재집』에 누락되었고, 차례 13, 14, 18은 『퇴계집』에 누락되었으며, 차례 15는 『고봉전서』에 누락되었다. 『양선생문답첩』의 내용으로 개별 문집을 보완하고 연구자료의 간극을 메꿔줄 수도 있다. 그리고 차례 23은 원본 고증을 통해 고봉의 필체가 아니라 약포의 필체임이 확인된 만큼 『고봉전서』에 수록된 이 시는 정본화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양선생문답첩』의 원본 자료는 문집에 수록된 해당 자료를 고증하거나 교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편지와 시를 포괄하는 원본 자료들은 일부러 변형을 가하지 않는 한 최초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연월일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목과 내용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성시기와 주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 4, 7, 9, 10, 12, 17, 20 등은 원본과 문집의 시제가 달라진 부분이며, 차례 7처럼 퇴계가 소재에게 준 시임에도 연구자들이 수창관계를 잘못 이해한 부분은 원본의 필체와 제목으로도 교감해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양선생문답첩』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높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양선생문답첩』가치의 백미는 고봉과 퇴계의 유묵(遺墨)을 나란히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봉과 퇴계는 13년여(1558~1570) 세월동안 수많은 편지와 시를 주고 받았다. 『양선생왕복서(兩先生往復書)』가 이를 입증하고 양 선생의 문집 속에 산재한 시들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양 선생의 손때(手澤)가 묻은 유묵의 원본이 나란히 편집된 서첩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거의 사라지고 없다. 양 선생의 한국유학사에서 남긴 철학적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이나 양 선생이 남긴 고봉종가의 친필 유묵도 국가적으로 높이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高峰全書』(高峯集, 高峯續集, 高峯別集, 兩先生往復書 등) (奇大升)

『선조수정실록』

『蘇齋集』(盧守愼)

『兩先生問答帖』(고봉종가 소장본)

『藥峯遺稿』(李海壽)

『靜存齋集』(李湛)

『退溪集』(李滉)

『涵齋勤王錄』(奇孝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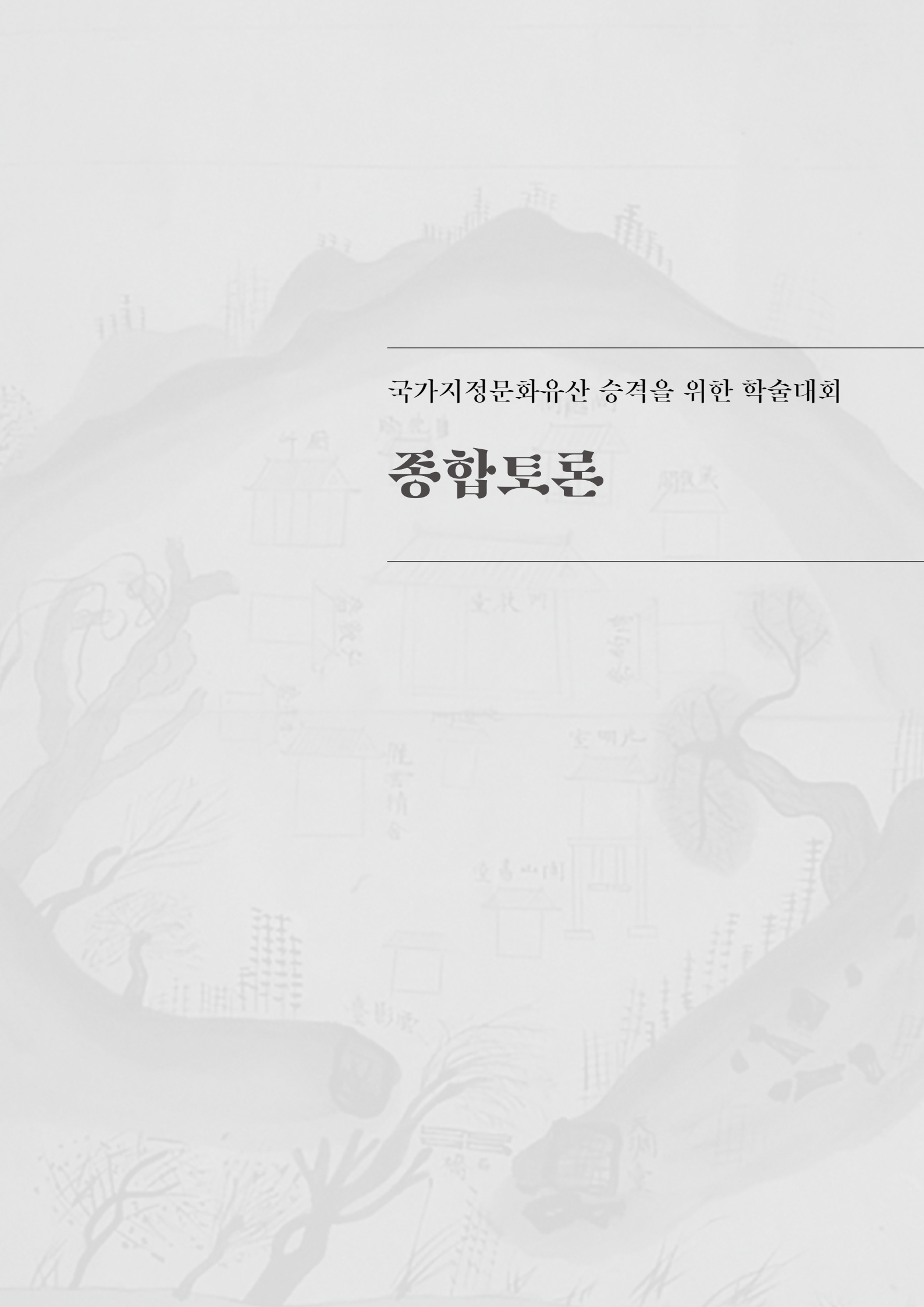
박경래,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도서출판 사람들), 2013.

박동욱, 「고봉과 퇴계의 사제 동행 -양선생문답첩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유학적 삶』(전남대 철학연구 교육센터 호남유학총서 5), 2018.

이종일, 「고봉 기대승 종손가 소장 문적」, 『호남문화연구』제22집(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93, 12.

원본 차례	수정 부분	비고
1	鄙呈 → 郢呈, 鬪狼 → 鬪狠, 4首 → 2首	
2	體候 → 伏問體候, 覽裁 → 鑒裁, 惟事 → 怪事	
3	四首 → 回首, 放出 → 解出, 同送 → 目送, 軫轉 → 輪轉	
4	제목 누락 → ……前後八韻 ……鄙忱, 尉摧 → 慰摧, 壁山 → 碧山, 漂渺 → 縹緲, 蘭漫 → 爛熳	
5	八節 → 八絕, 示意 → 不意, 二節 → 二絕	
6	八節 → 八絕, 塵浣 → 塵浣, 詩事 → 時事, 送庭 → 訟庭, 尙店 → 尙霑	
7	寄慮 → 寄盧	퇴계가 고봉에게 → 퇴계가 소재에게
9	八節 → 八絕, 荒籬 → 簞籬, 千朝 → 干朝, 欲塵 → 欲盡	
10	一節 → 一絕	
12	一追 → 日追	
13	吾子語 → 孟子語, 懸然懸然 → 顯然顯然	
14	完然 → 宛然	
15	之當 → 至當, 爽轄 → 爽豁	
20	情談 → 詩談, 百曲 → 百回, 飛爲 → 飛羽, 大升 → 大仲	고봉 시 → 이해수 시
22	汀瀟 → 江潯, 河澤 → 何須, 禁 → 襟, 明氣室 → 日金鑾, 宜 → 直, 升 → 仲	고봉 시 → 이해수 시
23	大升醉子 → 大仲醉草	고봉 시 → 이해수 시
24	大升 → 大仲	고봉 시 → 이해수 시

〈표 2〉『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 1』(2013, 도서출판 사람들) 수정해야 할 곳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종합토론



문숙자선생님이 발표한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의 내용과 역사문화적 가치」는 기씨종가에 전래되어 오던 분재기 3점을 분석한 연구 성과입니다. 이 분재기들은 모두 『선세문서유적』에 실려 있는데 가정 38년(1559, 명종 14), 만력 14년(1586, 선조 19), 만력 35년(1607, 선조 40)에 작성된 것이어서 16세기 중반에서부터 17세기 초반 행주기씨의 경제상황 등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가정 38년의 분재기는 기대승을 포함한 그의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나누고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며 만력 14년의 분재기는 위의 재산분배에서 누락되었던 노비들이 후에 발견되자 이를 다시 분재한 문서입니다. 다만 이때는 기대승 형제 등이 모두 사망한 후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가 분재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력 35년의 분재기는 기대승의 아들 기효증이 그의 사위 조찬한이 문과에 급제하자 이를 축하하며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줄 때 작성한 것입니다.

고봉 기대승 종가에 전하는 분재기 3점은 행주기씨가 낙남한 후 그 가문의 사회경제적인 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또 이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분재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재기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으신 문숙자선생님께서 짧은 연구 기간과 부족한 발표 시간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독자를 대신하여 세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분재할 때 신노비질과 봉사질을 별도로 구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가문의 사례처럼 신노비, 친득, 집주, 봉사, 득후를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다른 가문의 분재기에서도 보이는지요?

둘째, 득후 소생을 밝히는 것이 주목되는데 득후가 명확히 어떤 명목으로 재산을 분배받은 이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득후 소생의 어미를 추적하면 친득이나 집주의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 재산분배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으나 문서작성을 후에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분재기를 작성할 때 ‘後所生竝以永永執持使用’이라 하여 후소생은 모두 아울러서 준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굳이 득후를 분류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가문에서는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지요?

셋째, 만력 35년의 분재기는 기대승의 아들 기효증이 그의 사위 조찬한이 문과에 급제하자 이를 축하하며 전답과 노비를 나누어 줄 때 작성한 것인데 이것이 원본이라면 어떻게 해서 조찬한의 후손들이 소장하지 않고 이 재산을 나누어 준 행주기씨의 집안에서 보관하게 되었을까요?

문숙자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고봉 기대승 종가 분재기에 대해 상세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행주기씨 낙남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문헌의 조사를 통해 획득한 서지 정보와 이를 체계화했을 때 얼마나 방대하고 다양한 학술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발표 내용은 간결하게 정리된 것이지만 논문 등에 수록되어 있을 본 연구 내용을 예상해볼 때 발표자의 노력 정도와 성실함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는 먼저 조선시대에 시행된 공신제도에 관한 설명을 필두로 정공신과 원종공신의 차이, 공신교서와 공신녹권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기대승 증가에도 소장되어 있는 『광국원종공신녹권』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공신녹권을 전공하신 발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 등의 토론을 주고받을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토론 대신 배우는 입장에서 발표 내용에 관련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1. 광국원종공신에 책봉된 인물이 모두 872명인데, 이들에게 모두 『광국원종공신녹권』을 지급하였습니까. 수급비용으로만 최소 872건이며 그밖에 사고와 관청 등의 비장본까지 합하면 대략 900건 이상 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인출 사업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800-900건이 중앙과 외방에 광포되었는데도 현전본이 6건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통시대 중앙에서 인출했던 많은 다른 관찬서와 비교해도 현전본의 수량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제대로 인출되고 배포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출 부수에 비해 현전 부수가 극히 소량만 남아있는 이유가 확인되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녹훈도감의궤』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의궤는 공신의 책봉과 녹훈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자료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광국원종공신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원자료를 『녹훈도감의궤』가 아닌 『광국원종공신녹권』이라 하였고, 광국공신도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하셨습니다. 광국공신의 책봉과 녹훈 과정을 기록한 『녹훈도감의궤』가 편찬되었다면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광국공신 책봉과 관련된 의궤는 당시에 편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론문은 발표 주제인 고봉종가 소장 자료 <도산기>(그림 1)의 서예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토론자의 소임이기도 하다.

발표문에는 후반부에 글씨에 관해 비교적 소상하게 적혀 있다. 역시 고봉종가 소장 자료인 고봉과 퇴계가 주고받은 편지 모음첩 《양선생문답첩》(그림 2)에도 고봉의 친필이 있으니 비교를 통해 『도산기』 글씨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 그림 4에 두 작품이 실려 있다. 그리고 좀 더 큰 이미지가 토론문 뒤에 있으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후반부에서 동일자로 두 글씨를 소상히 비교하고 설명했는데 토론자도 그 내용에 대체로 동의한다.

고봉이 해서의 필의가 강한 행서

로 쓴 《양선생문답첩》의 글씨는 행간은 정연하고 획간은 그렇지 않다. 다른 행보다 한 자 올려 시작한 '先'으로 인해 1행만 16자, 나머지 행은 모두 15자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옆 행과 나란히 놓인 글자가 없어 장법의 변화가 도드라진다. 가로획은 주로 앙세(仰勢)로 썼고 획의 굵기와 글자의 크기에 변화가 많아 생생하고 역동적이다. 상단은 행간의 여백과 자간의 여백이 동일하게 넉넉해 시원스럽고, 하단으로 갈수록 자간의 여백이 행간의 여백보다 뾰뚱해 편방형인 글씨가 많다. 편지글이라 고봉이 자신의 기분대로 붓질한 듯하지만 결구의 변화와 운필의 능통함은 그의 서사 솜씨가 여느 명서가 못지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진의 왕희지가 행서로 쓴 <난정서>를 연상시킨다.

반면 《양선생문답첩》을 쓴 수년 후 행서의 필의가 강한 해서로 쓴 <도산기>는 행간이 정연하고 자간도 《양선생문답첩》의 고봉 글씨에 비하면 비교적 정연한 편이다. 그리고 획수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크기가 대략 비슷하다. 1행 19자 또는 20자로 쓴 글자의 자간 여백이 전체적으로 넉넉지 않아 그것이 넉넉한 《양선생문답첩》의 고봉 글씨, 특히 상단 글씨와 구별된다. 가로획은 대부분 평세(平勢)이고, 그 수필(收筆)을 눌러서 회봉(回鋒)한 것은 안진경의 해서 필법과 상통한다. 《양선생문답첩》의 글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도산기>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힘차다. 서자는 퇴계가 『도산기』를 쓴 마음을 헤아리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필사에 임한 듯 보인다. 그리고 그 정갈함에는 퇴계에 대한 존경심이 배어져 있는 듯하다.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쓴 《양선생문답첩》의 고봉 글씨와 <도산기>의 글씨는 서체, 서풍, 장법, 결구 등에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각각 다른 의미에서 서예적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陶山記

靈芝之一支東出而為陶山或曰以其山之再成而
命之曰陶山也或云山中舊有陶竈故名之以其實
也為山不甚高大宅曠而勢絕占方位不偏故其旁
之峯巒溪壑皆若拱揖環抱於此然也山之在左曰
東翠屏在右曰西翠屏東屏來自清涼至山之東
而列岫縹緲西屏來自靈芝至山之西而聳峯巍
峩兩屏相望南行迤邐盤旋八九里許則東者西
西者東而合勢於南野莽蒼之外水在山後曰退
溪在山南曰洛川溪循山北而入洛川於山之東川

〈그림 1〉. 도산기, 1572.

靈或能知大本

先生夙所慕隔濶川塗遠憑書屢質疑演
剏啓玄捷今來幸承顏提掇鑑微懇譬
如大明鏡照物莫遁意契莞而懼起
異默相忖述圖極深奧摘藻轉清婉撐
船要上水員輻終踰阪證父嗤葉黨訟
君洙衛咍浩尔正氣充曠然丹田壑襟
期任切磨勢利寧攀輓芝蘭藹在室稷
黍紛盈碗行藏葆高厚潛躍據壇蜿恭
惟聖傳緒千載同繾綣道合遇元夫用

〈그림 2〉. 양선생문답첩, 1568, 1569

안동고 선생님의 논문 “『양선생문답첩(兩先生問答帖)』의 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 박명희

(전남대)

안동고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동고 선생님께서 논문 제1장 머리말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고봉종가는 호남 유수의 종가답게 많은 문적이 생산·집적되었을 것이나 현재 남아 전승되고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94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성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자료는 고문서와 전적(典籍) 7종 18점으로, 분재기(分財記) 3점·전적 3점·명문(明文) 6점·시권(試券) 3점·상소(上疏) 1점·호구단자(戶口單子) 1점·관문(關門)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안동고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집중 거론한 『양선생문답첩』은 전적 3점 중 1점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23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봉종가의 문적들을 기탁 받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양선생문답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1994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양선생문답첩』 자료가 지방기록문화유산으로 머문 채 국가기록문화유산으로서 더 이상의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연구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3년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1』도 출간되는 등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고(再考)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동고 선생님의 발표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데, 어느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가능하다 할 때 현재 안동고 선생님께서 그 짐을 오롯이 진 듯하여 마음속으로 깊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유산에 대해 그동안 깊은 고뇌와 성찰이 없는 본 토론자가 과연 토론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반성을 거듭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시 본질을 벗어난 물음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선생님께서는 제1장 머리말 말미에서 “이전의 연구자들이 남긴 고봉종가 문적, 그중에서도 『양선생문답첩』에 관한 해제, 정서 및 번역, 논문 등을 참고하면서 문학적 의미 파악보다는 서지적 측면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좀 더 천착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논지(論旨)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양선생문답첩』의 서지적 가치와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선생님께서는 제2장 ‘『양선생문답첩』의 구성과 편찬자’ 내용 중 <표1>를 통해 『양선생문답첩』에 실린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셨고, 이어 제3장에서 『양선생문답첩』의 내용과 특징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었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원본 즉, 『양선생문답첩』 외에 개인 문집과 비교 대조하여 살핀 점, 둘째 그동안 연구 성과에서 오류를 지적한 점 등이다.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가령, 차례20의 경우를 들었는데, “『고봉선생 종가 고문헌집1』에서 이 시를 고봉의 시로 본 것은 끝 부분에 적힌 ‘대중(大仲)’을 ‘대승(大升)’으로 오독한 때문이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차례20은 원래 약포(藥圃) 이해수(李海壽)가 지어서 고봉 선생에게 보낸 시이고 『약포유고』 권1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과에서는 고봉이 지었다고 와전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정리한 <표2>라고 생각합니다. 선학자의 노력은 노력대로 인정하면서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제대로 잡아주는 것이 연구자의 또 다른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본 토론자가 볼 때 제3장 ‘『양선생문답첩』의 내용과 특징’에서는 『양선생문답첩』에 작첩된 각 편지와 시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언급하시기는 했으나 특별한 강조점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즉, 각 편지와 시의 내용과 특징을 나열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양선생문답첩』에 작첩된 편지와 시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자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여쭙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홈페이지(<https://www.khs.go.kr/main.html>)의 '국가유산정책 Q&A' 부분에서 『양선생문답첩』과 관련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Q : 국가유산이란 무엇인가요

A :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합니다.

Q : 전적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요

A : 문화유산법상 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적(典籍)문화유산이란 넓게는 '문자나 기호 등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좁게는 '기록정보 가운데 각 학문분야에 있어 학술적 혹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자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래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전적문화유산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는 전적(典籍), 고문서(古文書), 서적(書籍)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전적은 책(冊)을 의미하는데 직접 붓으로 써서 엮은 사본(寫本)과 목판 및 활자로 찍어서 만든 인쇄본(印刷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본은 고본(稿本)과 전사본(傳寫本), 사경(寫經), 일기 등으로 나누어지며, 인쇄본은 목판본(木版本)과 활자본(活字本)으로 구분 짓습니다. 을묘원행정리의궤(조선1795년)고문서는 일정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며 1차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외교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적은 필자가 직접 글로서 예술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서화(書畵), 시문(詩文), 서간(書簡)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지방기록문화유산인 『양선생문답첩』이 국가기록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유산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합당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양선생문답첩』의 학술적이고 예술적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 Q&A 내용에는 없으나 아마도 현대적 가치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제4장 맺음말 부분에서 『양선생문답첩』의 가치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양선생문답첩』이 국가유산청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한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봉 기대승 종가 자료의 심층 연구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 062-941-6705

<http://www.hiks.or.kr>
